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방 기 정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방 기 정

인 준 서

방기정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하이브리드(hybrid)란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을 말하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의 기술과 재료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결합한 각각의 장르의 기능과 형태는 전체 혹은 일부분이 남아 있어 결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한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시·공간을 허물어 버리고 전 세계의 동시간대를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여 특정한 한 부분에서만 융·복합화가 아닌 문화와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 시대의 특징인 하이브리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현상은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디지털과 온라인과의 결합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해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추(反芻)하여 발전하고 패션과 메이크업(Make-up)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와 같은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의 예술 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을 중심으로 흐름을 유형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한 흐름과 방향을 예측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의 예술적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개 과정과 하이브리드 예술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메이크업 연구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 특성을 응용하여 메이크업 스타일별 경향을

분석하여 메이크업 디자인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 하였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 2장에서는 하이브리드 개념과 사회·문화적 특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탈 장르화, 다원화, 융합화, 유희화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성을 시대별로 고찰하였다.

제 3장에서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중심으로 경계 해체의 계층의 해체와 시·공간의 혼재성 2가지로 분류하고, 계층의 해체는 하위 문화와 성의 역할 변화에 따른 선정과 퇴폐, 일탈과 혐오, 실험적 창조주의, 성의 무경계성 4가지로 세분화하고, 해체주의에서 시·공간 불연속의 특성을 통해 시·공간의 혼재성으로 분류하였다.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성과 민속적 요소의 혼합 특성을 통해, 비서구화와 지역화 요소로 구분하였고, 대중매체의 발달과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 및 유희와 테크놀로지 발달로 자연과 유희적 요소로 구분하여 메이크업 사례를 디자이너 작품을 통하여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탈 장르를 응용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서의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여 총 19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조형적 분석을 위하여 제작 의도와 디자인 기획, 색채 의미, 주제의 상징성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작 및 과정 등에 대해 작품 해설을 하였다.

결론으로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탈 장르화 특성을 분석하여 메이크업 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과 재인식화를 통하여 의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방법은 대표적인 패션 전문지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한 메이크업에 나타난 탈 장르화 특성을 경계의 해체와 대중화 절충과 혼합의 구분을 통한 2가지 경향으로 분석하고, 탈 장르를 다시 계층의 해체, 시·공간의 혼재, 민속적 요소, 과학 기술적 요소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응용하여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제한하였다. 하이브리드 개념과 특성의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출판된 단행본 및 간행본,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된 선행연구 자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21세기 한 예술사조인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개방적이고 절충적 예술성을 나타내는 메이크업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은 총 19점으로, 첫째, 경계의 해체성 10작품 중 작품 I~VII은 계층의 해체 7작품, 작품 VII~X은 시·공간의 혼재로 구성하였다. 둘째,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9작품 중 작품 XI~XVI은 민속적 요소 6작품, 작품 XVII~X사IX은 과학 기술적 요소 3작품으로 디자인하였다.

본 작품은 탈 장르화를 조형미 분석에 따라 화려하고 섬세하면서도 과감하게 디자인하여 얼굴을 하나의 캔버스 의상과 같은 이미지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헤어와 조화롭게 하여 인체의 조형 예술작품으로 재구현하였다. 모델은 동·서양의 지역적인 요소와 비서구화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쌍꺼풀이 없는 얼굴선이 가늘고 여린 전형적인 동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색채는 해체에서 주 색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정색의 비중을 높였으며, 포인트로 빨강색, 흰색 등의 색상을 이용하였다. 또한 빨강색과 파랑색의 혼합 형태인 보라색 색상의 비중을 높여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의 형태는 지역적, 민속적 요소에 많이 사용하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 등을 이용하였다. 자연과의 결합은 갈색을 중심으로, 자연 회귀, 인간성 회복 심화 등의 포인트로 초록색을 사용하였다. 질감은 해체의 표현 형태인 광택이 없는 마른 질감의 비중을 높여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휴대성의 증가와 가벼움의 선호로 번질번질 윤이 나고 투명한 가벼운

느낌과 광택이 없는 질감을 기본으로 딱딱함을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시각 및 촉각적 즐거움을 위한 유희는 선명하고 다양한 컬러의 색채 사용을 통한 가벼움을 표현하고, 투명한 느낌을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대인의 정서, 생활습관 등을 반영한 다문화 시대의 문화적 열린 사고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공감하는 디자인이어야 함을 인지하였고, 작품 제작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응용한 메이크업은 조형적 예술의 차원에서 다원성 요소를 가미하여 또 다른 새로운 창작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다양한 다원성과 장르를 넘나드는 탈 장르화 특성을 통한 현대적 메이크업 디자인을 통해 인정받지 못하던 소외되었던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의 소통으로의 미미한 시도를 하여 미적 특성으로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이브리드의 예술적 특성 중에서 탈 장르화 형성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그 시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형태를 연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탈 장르를 통한 열린 개념의 미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메이크업에 디자인 개발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무한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메이크업의 디자인 및 조형적인 특성과 표현 양식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기초자료의 제공과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II. 이론적 배경	8
1.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특성	8
1) 하이브리드의 개념	8
2)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 특성	11
2. 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성	25
1) 메이크업의 개념	25
2) 메이크업의 특성	27
3) 메이크업의 시대별 특징	31
III.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	41
1. 경계의 해체성	43
1) 계층의 해체	45
2) 시·공간의 혼재	58
2.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64
1) 민속적 요소의 혼합	67
2) 과학기술의 발달과 절충	73

IV.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	85
1. 제작의도 및 방법	85
1) 제작 의도	85
2) 제작 방법	85
2. 디자인 기획	86
3. 작품 제작	87
V. 결론	147
1. 요약 및 결론	147
2. 연구의 시사점	150
3.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	150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하이브리드의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24
<표 2> 하이브리드 탈 장르화 특성의 유형별 분류	83
<표 3> 탈 장르화 특징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84
<표 4> 작품 디자인 컨셉	88
<표 5> 작품 I. Black Tears of an Angel의 작업지시서	90
<표 6> 작품 II. The Illusion of Nomadic의 작업지시서	93
<표 7> 작품 III. Flamenco Dance Chimera의 작업지시서	96
<표 8> 작품 IV. The Return of Zorro의 작업지시서	99
<표 9> 작품 V. The Dream of a Clown의 작업지시서	102
<표 10> 작품 VI. Passionate Expression of Phoenix의 작업지시서	105
<표 11> 작품 VII. He and Her Idealism의 작업지시서	108
<표 12> 작품 VIII. Communication with Madonna의 작업지시서	111
<표 13> 작품 IX. Digital Nomads' Network의 작업지시서	114
<표 14> 작품 X. Crystal Dreams in the Winter의 작업지시서	117
<표 15> 작품 XI. Queen of Purity의 작업지시서	120
<표 16> 작품 XII. Courtesy of Multinational Girl의 작업지시서	123
<표 17> 작품 XIII. Soul of the Geisha의 작업지시서	126
<표 18> 작품 XIV. Out of the Eskimo의 작업지시서	129
<표 19> 작품 XV. The Reincarnation of Cleopatra의 작업지시서	132
<표 20> 작품 XV. Pop Art of India and the Middle East의 작업지시서	135
<표 21> 작품 XVII. Return to Nature의 작업지시서	138
<표 22> 작품 XVIII Primitive Jungle Girl의 작업지시서	141

<표 23> 작품 XIX Cute Minnie Mouse의 작업지시서 144
<표 24> 탈 장르화 특징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작품 146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전개도	7
<그림 2> Elisabeth I, 1966, Gerhard Richter	15
<그림 3> Singer 1965, Gerhard Richter	15
<그림 4> 1910년대 메이크업	33
<그림 5> 1920년대 메이크업	33
<그림 6> 1930년대 메이크업	34
<그림 7> 1940년대 메이크업	34
<그림 8> 1950년대 메이크업, 마릴린 먼로	35
<그림 9> 1950년대 메이크업, 오드리 햅번	35
<그림 10> 1960년대 메이크업	36
<그림 11> 1970년대 메이크업	36
<그림 12> 1980년대 메이크업	37
<그림 13> 1990년대 메이크업	37
<그림 14> 2010년도 메이크업, 2011 John Galliano	40
<그림 15> 2000년도 메이크업, 2004 John Galliano	40
<그림 16> 2000년대 메이크업, 2004 John Galliano	40
<그림 17> 2000년도 메이크업, 2004 Christian Dior	40
<그림 18> John Galliano I, 2009 F/W Collection	49
<그림 19> Alexander McQueen I, 2009 F/W Collection	49
<그림 20> Jean Paul Gaultier I, 2009 F/W Collection	51
<그림 21> Jean Paul Gaultier II, 2010 S/S. Collection	51

<그림 22> Christian Dior I, 2005 F/W Collection	51
<그림 23> John Galliano II, 2010 F/W Collection	51
<그림 24> Alexander McQueen II, 2009 F/W Collection	53
<그림 25> Christian Dior II, 2003F/W Collection	53
<그림 26> Jean Paul Gaultier III, 2010 F/W Collection	57
<그림 27> Phillip Lim I, 2010 F/W Collection	57
<그림 28> John Galliano III, 2010 F/W Menswear	57
<그림 29> John Galliano IV, 2009 S/S Menswear	57
<그림 30> Christian Dior III, 2008 F/W Collection	62
<그림 31> Christian Dior IV, 2010 S/S Collection	62
<그림 32> Jean Paul Gaultier VI, 2009 S/S Collection	64
<그림 33> The Warriors, VOGUE, 2010년 2월호	64
<그림 34> John Galliano IV, 2007 F/W Collection	71
<그림 35> Flower Bomb Part.1 VOGUE, 2010 5월호	71
<그림 36> John Galliano V, 2009 F/W Collection	73
<그림 37> John Galliano VI, 2009 F/W Collection	73
<그림 38> Alexander McQueen III, 2010 S/S Collection	79
<그림 39> Dark Mutation VOGUE, 2009년 9월호	79
<그림 40> Chanel V, 2010 S/S Collection	82
<그림 41> John Galliano VII, 2008 S/S Collection	82
<그림 42> Louis Vuitton I, 2010 S/S Collection	82
<그림 43> Hair Show, VOGUE, 2009년 9월호	82
<그림 44> 작품 I. Black Tears of an Angel	91
<그림 45> 작품 II. The Illusion of Nomadic	94
<그림 46> 작품 III. Flamenco Dance Chimer	97

<그림 47> 작품 IV. The Return of Zorro	100
<그림 48> 작품 V. The Dream of a Clown	103
<그림 49> 작품 VI. Passionate Expression of Phoenix	106
<그림 50> 작품 VII. He and Her Idealism	109
<그림 51> 작품 VIII. Communication with Madonna	112
<그림 52> 작품 IX. Digital Nomads' Network	115
<그림 53> 작품 X. Crystal Dreams in the Winter	118
<그림 54> 작품 I. Queen of Purity	121
<그림 55> 작품 II. Courtesy of Multinational Girl	124
<그림 56> 작품 III. Soul of the Geisha	127
<그림 57> 작품 IV. Out of the Eskimo	130
<그림 58> 작품 V. The Reincarnation of Cleopatra	133
<그림 59> 작품 V. Pop Art of India and the Middle East	136
<그림 60> 작품 VII. Return to Nature	139
<그림 61> 작품 VIII Primitive Jungle Girl	142
<그림 62> 작품 IX Cute Minnie Mouse	145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디지털 시대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 동안 동안시 되었던 문화적 콘텐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국제화의 이동(Global Shift)’으로 나타나고 있다¹⁾. 그 결과 디지털 유목민의 생성과 그들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되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현대사회 각 영역의 융합과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서 제시²⁾한 바 있듯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전 세계의 동시간대를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여, IT 부분에서만 융·복합화가 아닌 문화와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의 특징인 하이브리드(hybrid)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스스로 의복을 착용하는 생명체이다³⁾. 의복을 스스로 착용함으로써 미적 충족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패션과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들 중에서 중요한 외모 표현의 수단으로 특히, 메이크업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의 경향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정신적 메시지를 포함하여 예술적 가치 창조의

-
- 1) Peter Dicken (1999), *Global Shift: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3rd Edition*,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Ltd., p. 429.
 - 2) Alvin Toffler, 이규행 역 (1997), *미래 쇼크*,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p. 30.
 - 3) Lynn Schnurnberger (1991), *Let There Be Clothes: 4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Workman Publishing, p. 5.

의미를 부여한다⁴)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과학 기술, 정보, 문화의 빠른 발전은 시간, 공간의 경계가 붕괴되고 사회 계층간의 구분, 예술양식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은 인문학과 과학뿐만이 아니라 상호 작용을 매개하고 있다⁵). 탈 경계는 상호 융합함으로서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산업부문이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미디어들은 독립적으로 발전하며 매체간에 단점을 상쇄시키고 각종 자원을 공유하며 매체간의 특징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스노우(C.P. Snow)의 전문화의 시대에 보여주는 ‘두 문화’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극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학제간의 노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⁶)고 할 수 있다. 미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예술 양식의 혼재 경향을 보이고,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문화·예술에서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적 특징은 보이지 않고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의 추구로 인해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이고 있다⁷).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전문화가 가속됨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메이크업은 패션의 범주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⁸). 메이크업은

4) 강대영 (1999),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p. 10.

5) Stuart W. Leslie (1999), “Reestablishing a Conversation in STS: Who's Talking, Who's Listening? Who Cares?”,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Volume 19, pp. 271-280.

6) 홍성욱 (2008),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4.

7) Penelope, H. (1996), *Hybrids of Modernity: Anthropology, the Nation State the Universal Exhition*, New York: Routledge Inc, pp. 45-60.

8) Scott Barnes (2010), *About Face: Amazing transformations Using The Secrets of the Top Celebrity Makeup Artist*, Beverly: Fair Winds Press, pp. 10-20.

얼굴을 통한 외모 표현에서 심리상태를 표시해서 자신의 성,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성격을 알려주므로 무언의 의사 소통에서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⁹⁾. 그러므로, 메이크업은 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정신 세계를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은 정보화 사회 안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즉, 독특한 문화적 개성과 배경, 연령의 차이, 지리적인 위치, 구매행동 같은 사회 문화적 환경들은 중요하면서도 넓은 시야로 마케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¹⁰⁾. 생활전반에 걸쳐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사회학적인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은 모든 형태의 사회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술적이면서도 지적활동으로서의 문화는 전통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부터 저널리즘, 패션, 광고까지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¹¹⁾. 이러한 양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예술, 디자인 분야와 문화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한 사물에 서로 다른 양식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상품이나 현상을 말한다¹²⁾.

인류역사와 함께 뷰티(beauty) 문화는 발전해 왔고, 뷰티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등 융합 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¹³⁾. 현대 메이

9) 김용숙 (2004), *화장치료심리학*, 서울: 신정, p. 7.

10) Penelope, H, op. cit., pp. 45-60.

11) Raymond Williams (1995), *The Sociology of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3.

12) Bruno Latour (1988), “Mixing Humans and Nonhumans Together: The Sociology of a Door Closer”, *Social Problems*, Volume 35, pp. 298-310, Bruno Latour (2002), “Morality and Technology: The End of the Means”, *Theory, Culture & Society*, Volume 19, pp. 247-260.

13) 박수남 (2009),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 대한화장품학회, 2009 국제 심포지움 프로시딩, p. 81.

크업도 여러가지의 예술 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양식의 혼재로 인해 상품과 사용자에게 상호 작용하는 개념이 도입되어 개인의 취향이 존중된 제품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인간과 제품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의사소통의 개념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¹⁴⁾. 과학에는 기술적인 요소가 녹아 들어 있고, 기술에는 과학의 태도, 방법, 이론이 이미 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뷰티 문화에서 메이크업은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을 중심으로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메이크업 방향을 예측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이브리드의 유사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퓨전(fusion), 크로스오버(crossover), 컨버전스(convergence)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패션에서 보여지는 혼합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이브리드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메이크업의 경우 선행된 논문들은 하이브리드 패션과 비교 분석하여 연구된 경우가 많았다. 그 동안 메이크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는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메이크업의 원칙들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양식과 요소들이 혼재된 변화적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 한 얼굴에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가 동시에 표현된 형태와 이질적인 색채, 질감 등이 나타나거나 서로 다른 양식이나 스타일이 혼합표현 되어 특정한 이미지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해체와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¹⁶⁾.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이론에

14) Daniel H. Pink (2005),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New York: Riverhead Books, p. 75.

15) 홍성욱, op. cit., p. 264.

16) 이윤정 (2010),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특성 연구: 보그(Vogue)지를 중심으로,” 복식, 제 60권, 제 1호, pp. 91-100.

대한 고찰을 통해 전개과정과 하이브리드 예술의 특성을 파악하여 메이크업 연구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시대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스타일별 경향을 분석하여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을 디자인하는데 있다.

메이크업은 시각적 이미지와 정신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예술로,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의 예술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을 중심으로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메이크업 방향을 예측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이브리드의 예술적 이론 고찰을 통한 여러가지 특성 중에서 탈 장르화 특성의 형성 배경을 살펴 보고, 유형별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메이크업에서의 하이브리드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알아보고자 한다. 탈 장르의 고찰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고 응용하여 미래 방향 예측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형태를 통하여 개방적이고 절충적 예술성을 통한 체계적인 메이크업 디자인 작품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실용 예술인 메이크업에서 과거 적용되었던 메이크업의 원칙들에서 벗어나 혼재된 변화적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생활속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탈 장르화 특성을 중심으로 작품 제작하여 앞으로 메이크업의 디자인 및 조형적인 특성과 표현양식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 분야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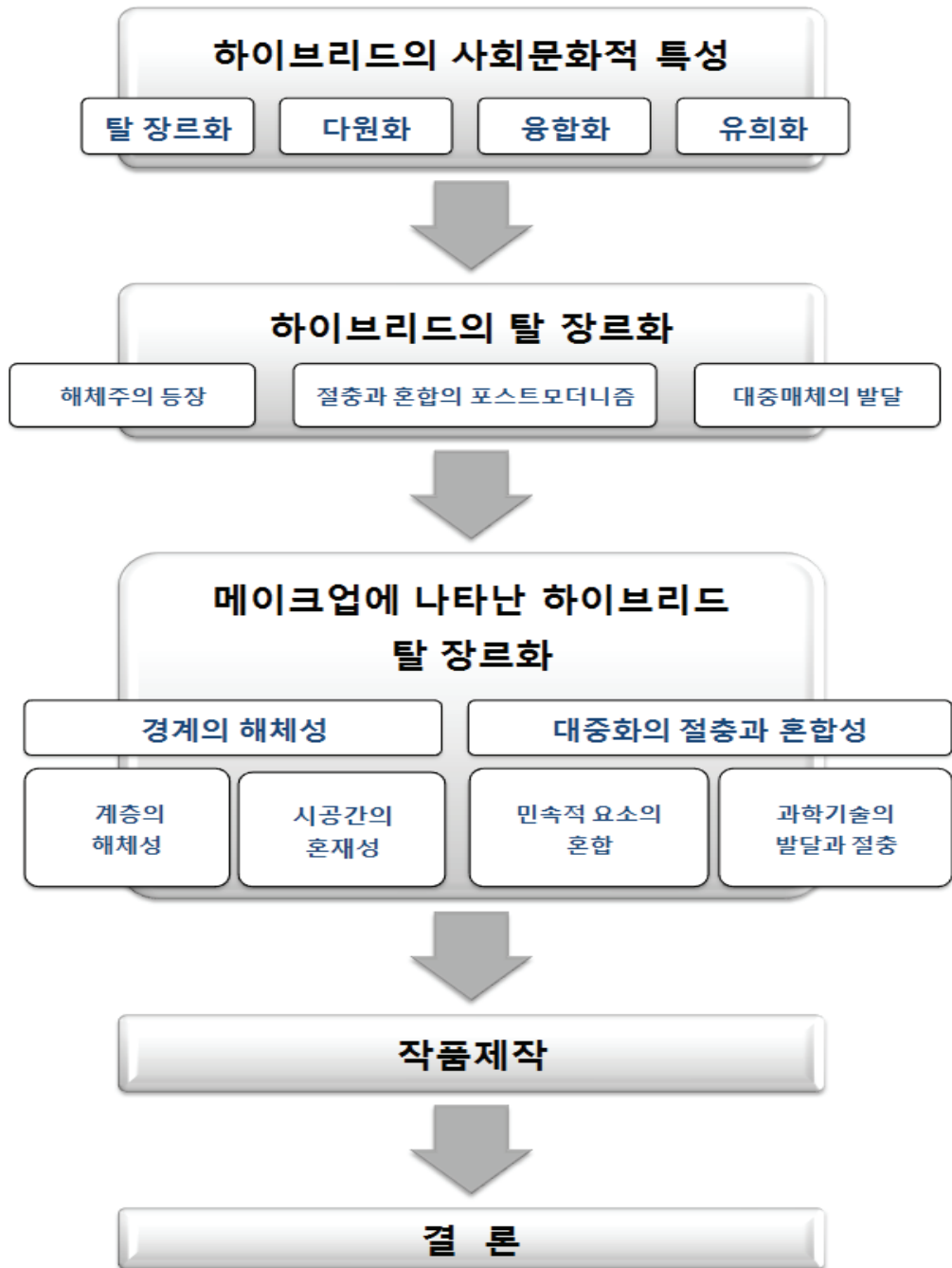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예술사조인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개방적이고 절충적 예술성을 나타내는 메이크업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헌 연구는 하이브리드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련된 국내외 서적과 작품, 선행 연구논문 등을 참고로 하여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도출하여 메이크업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예술형태와 의미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 개념과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의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출판된 단행본 및 간행본,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된 선행연구자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메이크업의 개념 및 특성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는 대표적인 패션 전문지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한 탈 장르화 특성을 경계의 해체성과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의 구분을 통한 2가지 경향으로 분석하고, 탈 장르를 계층의 해체, 시·공간의 혼재, 민속적 요소의 혼합,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절충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분석한다.

이론적 배경의 문헌연구와 패션 전문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메이크업 디자인에 응용하게 된 제작의도 및 방법을 제시하며, 디자인을 기획하고, 디자인 컨셉을 정한 후, 작품을 제작한다. 작품 제작과정과 결과물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메이크업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형태와 접목할 수 있도록 고찰한다.

연구의 범위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응용하여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전개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전개도

Ⅱ. 이론적 배경

1.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특성

1) 하이브리드의 개념

하이브리드(hybrid)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유래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는 그리스어로 ‘오만한, 주제넘은’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라틴어로는 ‘섞여진, 잡종의, 혼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¹⁷⁾.

하이브리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 또는 섞여서 만듦’이라고 되어 있고,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이종을 결합,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통합 코드’¹⁸⁾로 인식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용어는 피터 킨(Peter Keen)¹⁹⁾에 의해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마이클 얼(Michael Earl)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하이브리드란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을 말하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성, 특성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을 말하며 두 개의 상이한 문화나 전통의 혼합에 의해 출현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²⁰⁾고 정의하였다.

하이브리드는 극단적 이질성으로 인식되어오던 것들을 화해시키고, 이미 완성된 형태로 혼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가능성의 전제가 함축되

17) 김연순 외 (2008), 하이브리드 컬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p. 11.

18)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i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p. 611.

19) Keen, Peter G. W., Sanford, Lindsa., Williams, Ronald O. (2005), *Let Go And Grow - How to Profit And Thrive in Commodity Hell*, New York: Pearson P T R, pp. 150-159.

20) 마이클 얼 (Michael Earl) 이국철 외 역, (1995), *정보기술시대의 경영전략*, 서울: 푸른산, pp. 1-11.

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의 기술과 재료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각각의 물건이나 상품 등에 혼합되어 제작된 것을 말한다²²⁾.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결합한 각각의 장르의 기능과 형태는 전체 혹은 일부분이 남아 있어 결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한다²³⁾.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예는 ‘래드 랩(radiation laboratory)’으로 래드 랩이라는 이름은 방사능 연구소란 의미인데, 래드 랩은 연구원들의 전공이 아니라 레이더의 부품별로 구획되어 독특한 구조가 큰 역할을 하여 이들의 지식이 섞이고 융합되면서 실용적인 레이더가 개발되었다²⁴⁾. 래드 랩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카페 혹은 광장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과학자와 건축가가 서로 다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만나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려 사람들이 오가다 만날 수 있는 복도, 엘리베이터, 커피자판기, 휴게실, 카페테리아 등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공간은 두 전공의 잡종 언어가 만들어지는 ‘교역 지대(trading zone)²⁵⁾’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적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서로 다른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팀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곳에 놓아 뒀으로써 사람들 사

21) 조영철 (1992), COSMA 9312, 서울: 사회사상과 일러스트아트, p. 12.

22) 허정선 (2010),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 10권, 제 1호, pp. 108-109.

23) 백정현 (2009), “문화예술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3.

24) Peter Galison (1997), *Image and Logic: A Material Culture of Microphys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816-820.

25) Mark Douglas, Thom Hartle (2001), *Trading in the Zone: Master the market with confidence, Discipline and a Winning Attitude*, Prentice Hall, pp. 22-23.

이의 유연한 만남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²⁶⁾”고 하였다. 하이브리드는 탈 경계성의 예술과 현실의 경계선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예술의 독창성과 유일무이성은 기계의 대량 복제와 생산에 의하여 하나의 평범한 보편적인 모조품으로 전락되면서, 그 자체가 해체됨을 의미한다²⁷⁾. 하이브리드의 흐름으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적 경계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세계와 지역 등의 경계가 붕괴되었고,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경계 또한 모호해졌다. 21세기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은 이미 보편화가 되었으며, 현재 유비쿼터스 기술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융합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²⁸⁾.

하이브리드 현상의 특성은 21세기를 전후로 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합의 형태와 유형이 뚜렷한 형식을 보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 많은 변화와 흐름이 있지만, 예술 사조의 큰 흐름이 하이브리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를 중심으로 메이크업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특성에서 탈 장르는 결합하고 혼합했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탈 장르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장르와 장르의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각화된 시각적 방향성으로 경계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발전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6) Peter Galison (1999), *Trading Zone: Coordinating Action and Belief*, in Mario Biagioli ed., *Science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p. 137.

27) Penelope, H., op. cit., pp. 45-50.

28) 김미현 (2005), “융합화 문화 변화에 따른 패션 패러다임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

2)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 특성

사회문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에 대한 접근법은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 1943년, 알제리)가 정의하는 ‘레고 문명(civil lego)’²⁹⁾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레고 문명은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어 ‘지구촌화(globazation)’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가 등장한 배경은 여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출현하였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 보려면, 먼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는 영어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몇 단어들 중 하나이다³⁰⁾.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 미국)은 ‘문화란, 한 사회의 가치, 실천, 상징, 제도, 인간관계 등 인간 삶의 양식 그 자체로,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것’³¹⁾이라고 하였으며, 에드워드 텔러(Edward B. Tyler: 1832~1917, 미국)는 “문화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얻게 되는 습관, 도덕, 예술, 지식, 신앙, 법률을 비롯하여 이외의 다른 어떤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the complex whole)이다”³²⁾라고 말하였다. 문화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는 독특한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권’이라는 복합체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문화 특유의 요소’란 가족과 국가 등의 사회제도, 종교, 경제, 도구를 포함한 문화의 각 측면과 그것들의 독특

29) 레고 문명(civil lego) : 서로 다른 레고 조각들을 모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듯 서로 다른 철학과 이데올로기·문화·정치체제·예술·종교를 구미에 맞게 레고처럼 한데 어울리게 조립해 재창조된다는 새로운 문명형태.

30) Jim McGuigan (2006), *Modernity and Postmodern Culture: Issues in cultural and Media Studies*, London: McGrawhill, p. 40.

31) Samuel P. Huntington (2001),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p. 11.

32) Edward Burnett, Tyler (1958), *Primitive Culture*, New York: Harper, p. 1. (2010),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London: Cambridge Press, p. 1.

한 복합체를 뜻하며, 이러한 문화복합체는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문화’ 복합에서 독자적인 특정적 유사성이 확인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은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³³⁾. 문화는 예술적이면서도 지적활동으로서의 전통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부터 저널리즘, 패션, 광고까지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³⁴⁾.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인종의 만남과 그로 인해 세계화되는 문화양상은 다양한 기능과 미를 조합한 복합제품을 만들어 낸다³⁵⁾.

이와 같은 두 문화의 복합적 내용에 의견을 더한 하이젠베르크(Heisenberg: 1901~1976, 독일)는 “인간의 생각에 따른 역사에서 가장 비옥한 발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의 경향(lines of thought)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두 경향은 서로 연관을 맺어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새롭고 흥미로운 발전이 뒤따른다”.³⁶⁾고 하였다.

하이브리드에 의한 문화변화는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정보혁명을 거쳐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지식혁명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념이나 영역들을 초월하여 융합하는 융합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공간의 경계 붕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전문영역의 경계 또한 모호해졌다³⁷⁾.

하이브리드의 선행 연구에서 이정희(2005)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의 조형적 특성에서 모바일성, 복합성, 탈 부착성으로 구분지어 연구하였다. 김자민, 하지수(2005)는 패션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해체주의 영향, 차별가치적 소비개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고, 하미희

33) Tsuneo Avabe 편저, 김인호 역 (1999), 문화인류학의 명저, 서울: 자작나무, p. 4.

34) Raymond Williams., op. cit., p. 13.

35) Ibid., pp. 67-68.

36) W. 하이젠 베르크, 최중덕 역 (1990), 물리학과 철학의 만남: Physics and Philosophy, p. 175.

37) 김미현, op. cit., pp. 21-22.

(2009)는 시간, 문화, 성(性), 기술적 요소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공차숙(2008)은 남성의 하이브리드 출현 요인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현, 하위문화 등장, 남성 역할의 변화, 매스 미디어의 영향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특성을 이수인(2005)은 포스트 모더니즘 표현 양상에서 비 독창성, 몰 형식성, 탈 중심성, 상호 텍스트성으로, 김경인(2008)은 하이브리드 성향의 헤어 디자인 특성을 시공, 스타일, 성, 이질적 요소, 문화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백정현(2009)은 문화·예술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에서 탈 장르화의 탈 경계성, 기술 지향성, 감성 지향성, 시공간의 혼재성으로 구분지어 분류하였다.

하이브리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 전반에서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혼합 및 융합이란 뜻으로 이종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인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통합코드로 보았고, 위에서 제시한 특성 중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사회·문화적 측면, 조형·예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이동을 통한 장소와 민족을 초월한 지역과 문화의 결합으로, 조형·예술적 측면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여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장르와 장르의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한 발전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융합되어 있는 상대로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탈 장르화, 다원화, 융합화, 유희화 라는 4가지로 유형을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탈 장르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는 조형 예술적으로 혼성 모방이나 개작의 경향을 띠는 다른 여러가지 양식을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매너

리즘이나 양식적인 왜곡현상 및 언어 혼란의 경향³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³⁹⁾.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인식 체계는 미디어가 조성하는 시각체계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이원적인 대립 체계의 구분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모호해지게 되었다. 이전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은 이전의 모든 중심주의와 형이상학, 인간주의적 세계관 등이 해체되어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체계가 형성되어⁴¹⁾. 가치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으로 인해, 새로움은 관계성에 대한 기존의 틀을 없애고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초월하게 한다. 이는 수직적 위계질서 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탈 장르화 현상이 반영된 태도이다⁴²⁾.

건축에 등장한 하이브리드는 어떠한 사조나 양식을 표현하기 보다는 복합성에 대한 현상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개념은 다원성과 규범해체의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복합성 즉, 구조, 기능, 기술, 미에도 내재되어 있으며, 16세기 후반의 매너리즘(Mannerism) 및 18~19세기의 절충주의 그리고 20세기 초의 과도기에서 비롯되는 매우 포괄적이며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다⁴³⁾고 한다.

38) 김경인, 유영선 (2009),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헤어디자인의 표현 특성 분석”, 복식문화연구, 제 17권, 제 6호, p. 22.

39) Ibid., p. 37.

40) 서자연 (2009), “현대 미술의 다층적 평면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 사진, 회화, 섬유예술의 매체적 혼용”,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6.

41) Jean Baudrillard (2005), *Conspiracy of Art: Manifestos, Texts, Interviews*, New York: MIT Press. p. 88.

42) 이봉덕 (2002),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4.

43) 이일형 (1995), “현대 건축의 혼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 11권, 제 1호, 통권

회화나 사진의 개념을 통해 매체를 서로 '교차'시켜 매체의 장르 허물기가 시작된 이유와 방향성을 연구한 작가인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 독일)는 늘 개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고, “나는 어떤 특정한 의도도, 체계도, 노선도 추구하지 않는다. 내가 따라야 할 어떤 강령도, 양식도, 과정도 없다. 나는 일관성이 없으며, 무관심하고 수동적이다. 나는 불확정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것들을 좋아한다”⁴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그는 자신과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관찰자의 위치에서 무관심하게 작품을 바라보고자 했다⁴⁵⁾.



<그림 2> Elisabeth I, 1966,
(출처:<http://www.gerhard-richter.com>)



<그림 3> Singer 1965,
(출처:<http://www.gerhard-richter.com>)

<그림 2>와 <그림 3>은 두 경계에서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진의 흐린 효과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기보다 오히려 이미지에 집중하게 한다. 장르가 교차한 것 같은 형식은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작품의 이면에 있는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게 한다⁴⁶⁾. 우

75호, pp. 35-36.

44) Richter, Gerhard. (2006), *Gerhard Richter: Portraits*, Distributed Art Pub Inc, p. 109.

45) 윤난지 (2002), *현대미술의 풍경*, 서울: 예경, p. 20.

리에게 보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제시하며 그의 장르를 초월한 작업은 이 시대의 새로운 제작 기준의 코드가 되었다. 이는 장르를 수직적 상하위치에 있던 매체들을 수평적 위치로 재정립하며 현대미술에 새로운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⁴⁷⁾. 탈 장르의 이러한 특성은 두 경계의 모호한 측면으로 인해 오히려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이미지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경영학에서도 탈 장르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영학에서 ‘하이브리드 매니저(Hybrid Manager)’ 라는 신조어가 있다. “기술적인 능력과 적절한 비즈니스 지식을 가진, 또는 적절한 기술적 능력과 뛰어난 비즈니스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⁴⁸⁾”고 하였다. 디지털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인간의 삶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신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동양사상은 정적인 디자인, 자연과 유기적 조화를 이룬 디자인을 통하여 인간 본성의 회복과 자연회귀를 역설하고 있으며,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며 착용자의 내면 상태를 표현하는 디자인, 착용자의 의도에 의해 변형이 가능한 착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을 통하여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⁴⁹⁾. 이처럼 열린 디자인은 탈 장르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화 개념은 불확정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46) 서자연, op. cit., p. 47.

47) Ibid., 51.

48) Gottschalk, Petter (2006), *Cio And Corporate Stragic Management: Changing Role of Cio to ceo*, Idea Group Pub., p. 45.

49) 김지희, 유태순 (2007),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 문화 감성성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7권, 제 8호, p. 10.

(2) 다원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은 21세기 정보화 사회 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즉 독특한 문화적 개성과 배경, 연륜의 차이, 지리적인 위치, 구매행동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들은 중요하면서도 넓은 시야로 마케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⁵⁰⁾.

문화적 다양성은 대중예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예술은 미학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 삶의 한 의미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도피적 또는 대리체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중예술의 의미영역이 거짓과 도피와 대리체험만으로 채워진 것만은 아니고 만만함속의 진지함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하이브리드 현상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연히 드러나며 또 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⁵²⁾.

모더니즘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거하여 사고해 왔으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모든 유형의 이원적인 대립 체계의 구분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모호해지게 되었다⁵³⁾. 그리하여 이전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의 기반은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거나 의미의 부재라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전의 모든 중심주의와 형이상학, 인간주의적 세계관, 시·공간적 경계 등이 해체되어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사고체계가 형성되었다⁵⁴⁾.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 소장인 롤프 엔센(Rolf Jensen: 1949)은 저서 'Dream Society'에서 “정보화 시대 다음에 도래할 사회는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감성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50) Trachtenber. J., op. cit., p. 29.

51) 박성봉 (2006), 대중예술과 미학, 서울: 도서출판 일빛, p. 9.

52) 홍성욱, op. cit., p. 71.

53) John Storey (2006),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 Reader*, Univ of Georgia Press, pp. 208-211.

54) 이봉덕, op. cit., p. 26.

전망하였다⁵⁵). 이는 앞서 언급한 미래의 사회가 문화·예술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의 일환으로 산업화, 정보화 시대의 결과로 발달된 하드(hard) 영역, 즉 제조, 기술영역에 서비스, 브랜드, 감성, 이미지 등 무형적 가치를 높여 주는 소프트(soft) 감성, 예술 영역이 결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 온 미하이 칩센트 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1934~)교수는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관계에 주목한다”⁵⁶)고 밝혔다. 이같은 능력은 전문화된 지식이 빠르게 일상적인 업무로 변화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야 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 간에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다중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다중모드에서 일하고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21세기의 창의적 인재상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Boundary Crosser)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창의성 개념의 예를 들면, 네트워크 사회를 관통하는 법칙 중에 경영컨설턴트 존 카오(John Kao)의 이름을 딴 카오의 법칙(Kao’s Law)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가진 다양성의 지수함수에 비례한다는 것⁵⁸)으로 창의성이란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의 다원화를 창의성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즉 경계를 넘어서 문턱을 낮추어 이것저것 섞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다원화는 가장 중심에 있는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5) Rolf Jensen (2001), *The Dream Society*, New York: McGraw-Hill, pp. 12-13.

56) Daniel H. Pink (2005),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Riverhead Books , p. 75.

57) Ibid., p. 147.

58) 홍성욱, op. cit., pp. 99-103.

(3) 융합화

21세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융합화(fusion)는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이중 교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와 유사한 맥락의 것으로 최근의 다양한 개념들이나 영역들을 초월하여 문화와 기술,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⁵⁹⁾.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문화기술 시대로 접어들어 이전에 금기시 되었던 것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해내고 있다. 이런 문화현상은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벗어나 다양하게 섞임으로써 분리에 융합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구분하고 있다⁶⁰⁾.

융합(融合)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 지는 일⁶¹⁾이며, 융합성이란 장르 내의 분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첨단과학 또는 산업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장르를 모두 포함한 열린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⁶²⁾.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제 3의 문화를 일컫는 이중 교배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개념들이나 영역들을 초월하여 문화와 기술, 감성과 이성을 연결하여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개념이나 다른 영역들을 초월하여 문화와 기술,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콜레보레이션(Collaboration) 하는 두 파트너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 브랜드를 런칭한 것의 의미한다⁶³⁾. 이때, 콜레보레이션이란 전략적 제휴의 일종으로 서로 다른 두

59) 김미현, op. cit., p. 18.

60) Quinn Biroshi (2002), *Techno Fashion*, New York: Berg, pp. 185-200.

61)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i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p. 258.

62) 최정호 (2001), 새로운 예술론 편: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 서울: 나남출판, p. 155.

63) Devon Lee (2008), 콜레보 경제학: 새로운 부와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콜레보레이션 성공전략, 서울: 흐름출판사, p. 67.

기업이 만나 서로의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⁴). 이것은 문화와 기술의 융합성 그리고 제품과 이미지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단순히 디자인이나 기획력 제공을 넘어 공동연구 및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이미지를 판단하는 문화적 가치의 상품개발로 발전하는 것이다⁶⁵). 공업 사회의 상징물이 기계였다면, 현재는 아이디어 상품, 생활에 직접 필요는 없지만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조작하는 정신 상태나 유행이라는 사회적 행동에 복종하는 기능적으로 무용성을 지닌 상품이 대표적이다⁶⁶). 데본 리(Davon Lee)에 의하면 비눗갑 같은 평범한 일상품의 패키지에 명화나 명화와 비슷한 구도의 사진, 유명 스타의 사진 등을 넣어 비교 실험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비눗갑 패키지에 명화를 실는 것만으로도 그 제품을 다른 제품에 비해 ‘고급스럽다’고 여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⁶⁷)고 한다. 이는 예술가의 기존 작품이 제품 디자인에 결합되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예술은 차별화된 가치를 지녀서 개인이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⁶⁸). 콜레보레이션은 점차 다양한 사례를 낳으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휴는 상품기획 단계부터 다른영역의 디자이너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확산효과도 불리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⁶⁹).

인터넷과 컴퓨터 문화가 발달하면서 문화 장르간에 퓨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통합과 융합은 문화전체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⁷⁰) 현대의

64) Jang, N., Hawley, J. & Dickerson, K. (2002),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factors of apparel product success and failure*, pp. 100-113.

65) 최정호, op. cit., p. 155.

66) 김자민, 하지수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르간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 복식, 제 55권, 제 8호, p. 5.

67) Devon Lee, op. cit., p. 67.

68) 백정현, op. cit., p. 46.

69) Devon Lee, op. cit., p. 28.

유목민들은 항상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송수단을 몸에 휴대해야 하는 ‘가벼움’이 주목 받고 있다. 더욱 작아지고, 얇아지고, 가벼워지면서 인체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디자인 될 것이다⁷¹⁾. 이렇게 전략적인 제휴나 장르간의 퓨전은 다양한 절충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절충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절충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회람철학에서이며, 19세기의 미술과 건축, 20세기의 포스트모던 건축에서도 재출현하였다. 건축에 나타난 역사적 절충주의는 19세기 후반의 전통적 절충주의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 등장한 급진적 절충주의로 대별되며, 이들 모두 과거의 양식을 참고로 한 역사적 절충을 나타내고 있다⁷²⁾. 탈 권력에 의한 경계의 와해로 중심화, 총체적, 국제적 보편성, 획일성으로서의 열망은 종말화되었으며 다원성으로 이행되었다. 또한 불확정성에 의한 다원주의에 따른 숭고미 그리고 그의 기법에서 비롯된 반 형식주의적 혼성모방으로 설명할 수 있다⁷³⁾. 이렇듯 융합성은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서 절충과 혼합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발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화의 특성은 무차별적으로 섞고,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절충적 재구성할 수 있다.

(4) 유희화

유희(遊戱)란 영어로 ‘플레이(Play)’, ‘페스타임(Pastime)’, ‘메리메이킹(Merrymaking)’등으로 사용⁷⁴⁾ 되며, 유희화란 미학적 의미에서 놀이

70) John Storey, op. cit., p. 102.

71) Ibid., pp. 67-68.

72) 권택영, 윤도근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pp. 397-398.

73) 고윤정, 김민자 (2010),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문화권력과 패선에 대한 연구", 복식, 제 60권, 제 2호, pp. 81-85.

(Play)의 개념으로 인간은 놀이를 하는 존재이며, 놀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목적일 때 의미를 가진다는 것⁷⁵⁾을 뜻한다. 유머는 현대인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최고의 수단으로 과거에는 저급한 문화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머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⁷⁶⁾. 유희는 보고 웃고 싶은 감정을 말하며 대체로 외부로부터 받은 정취나 감동으로 지적되며 밝고 화사한 정감을 일컫는다⁷⁷⁾. 유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흥미의 세계, 감흥의 세계, 착각의 세계로 그려진다. 이러한 환상의 세계를 그린 것이 곧 낭만주의 예술이며, 유희의 내재된 의의가 뚜렷해진다⁷⁸⁾.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는 파스콜리(Pascoli)의 '유아의 미학'과 예술사와 시학의 분양서 영국인들이 '넌센스 시'라고 부르는 장르들이 '탈출'의 개념에 바탕을 두며, 그 탈출은 사물들이 불변의 정확성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세계로의 도주를 의미한다⁷⁹⁾. 고 하였다.

유희성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 고전주의 경향에 힘입어 나타내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논리적인 면과 감각적인 면을 통합한 '감성'이 중요한 디자인의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즉 감성(感性)이란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가치, 개성, 취향, 기분을 움직인다는

74)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i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p. 779.

75) 오창섭 (2002), 디자인과 키치, 서울: 시지락, p. 194.

76) 이운진, 박명희 (2003), “현대 의상에 나타난 유머성”, 복식, 제 53권, 제 5호, p. 34.

77) 채금석 (2004),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된 꾸밈미학”, 복식, 제 54권, 제 3호, p. 114.

78) 양희석 (1988), 예술철학(上), 서울: 자유문고, p. 40.

79) Renato Poggioli (1962), Teoria dell'ate d'avanguardia. Bologna: Il Mulino, pp. 68-69. 박상진 역 (1996), 아방가르드 예술론, 서울: 문예출판사, pp. 12-25.

뜻이라고 할 수 있다⁸⁰⁾.

하이브리드 경향이 시대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참고하여 위에서 살펴본 하이브리드의 특성을 중심으로 탈 장르화, 다원화, 융합화, 유희화 등으로 유형을 분류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80)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제 22권, p. 75.

< 표 1 > 하이브리드의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유형	특 징	개념 및 배경
하이브리드의 특성	탈 장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예술은 도피적 또는 대리체험 ·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성 중시 · 예술의 독창성과 이성은 대량복제 생산에 보편적 모조품 전략 · 의미의 해체, 예술과 현실 경계의 해체 · 관념화된 사고에서 탈피하고 개방된 사회 지향 · 모든 것을 통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적 자아의 탈 장르화 · 서구적 인종의 중심을 이루었던 주체의 해체 · 다양한 개념들과 영역들을 초월하여 문화 및 과학 기술의 발달 · 감성과 이성을 연결하는 역할 · 장르내의 분화에 의한 새로운 창조 형태의 예술 · 첨단과학, 산업의 만남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장르를 포함한 열린 개념 	<p>해체주의</p> <p>경계의 해체</p> <p>탈장르 가속화</p> <p>포스트 모더니즘</p> <p>과학기술 발달</p> <p>비서구화</p>
	다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니즘 이후 다원주의를 통한 다원화 · 개인마다 개성 중시 · 21세기 정보화 사회, 문화적 다양성 중요 · 다양한 인종의 만남과 세계화되는 문화 양상 · 수직적 위계질서 보다 수평적인 다양성 중시 · 다중 렌즈를 통한 문제점을 보는 시각 	<p>다원주의</p> <p>다문화</p> <p>수평적 사고</p> <p>다양성</p>
	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영역 초월한 문화 창의적으로 결합 · 다양하게 섞임으로써 분리에 융합으로 변화 · 인터넷, 컴퓨터 발전으로 문화 장르간 융합 가속화 · 현대 유목민의 전송수단을 휴대하는 가벼움 주목 · 소형화로 인해 휴대용 제품은 재료 사용 줄임 	<p>과학기술 발달</p> <p>디지털 가속화</p>
	유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놀이 경계 모호 · 문화경계 구분짓는 절대이념 및 이원적 이념 붕괴 · 유희 그 자체로써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 · 재미의 요소 + 디지털 기술 결합 = 퍼블로지의 새로운 트렌드 · 논리적인 면과 감각적인 면을 통합 · 감성은 중요한 디자인 주제 	<p>유희+기술 결합</p> <p>감성의 통합</p>

2. 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성

1)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Make-up)의 사전적 의미는 ‘만들다’,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으로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게 해 주고 단점은 보완, 수정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메이크업이란 용어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것에서 유래한 페인팅(Painting)⁸¹⁾과 화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치장을 가리키는 투알레트(Toilette), 또는 연극에서의 분장을 의미하는 마퀴아쥬(Mquilage)⁸²⁾ 등으로 표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화장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⁸³⁾.

20세기 초부터 메이크업은 대중들에게 일반화되는 개인의 취향으로 자리 잡는 시기를 가지게 되었다⁸⁴⁾. 1900년대의 메이크업은 19세기의 연장으로 상류여성의 잘 정돈된 성숙미를 가진 화장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구 상류층의 화장이 러시아 발레단과 디자이너 폴 푸아레(Paul Poiret)의 의상의 영향과 함께 동양적인 취향의 화장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01년 세르게이 디아길레프(1872~1929)⁸⁵⁾가 인솔한 러시아 발레단의 선풍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그로 인해 페르시아, 터어키풍의 요소가 장식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1910년 파리는 동양풍의 유행이 일어나게 되었다. 동양풍에는 중국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도

81) 한명숙 (1999), 마퀴아쥬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p. 11.

82) Dominique Paquet, 지현 역 (1998), 화장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pp. 49-73.

83) 이경은 (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

84) Victoria Jackson (2000), *Make up Your Life*, New York: QVC Publishing, Inc. p. 17.

85) 세르게이 파브로비치 디아길레프 (Sergej Pavlovič Dăgilev) : 러시아 미술 평론가, 후원자, 발레 흥행주, 그리고 많은 유명한 무용수와 안무가들이 뒤에 명성을 얻게 된 발레 루스의 설립자.

가미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반쯤 감긴 눈과 조그만 입의 심술긋은 여자 등을 묘사하였다⁸⁶).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능과 영역이 창출되거나 기존 개념이 파괴되는 등 현재 통용되는 개념으로는 이러한 과도기적 사회에 나타나는 융합화 환경의 변화를 융합화 환경에 접근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분류하기도 한다⁸⁷). 현대의 메이크업 표현경향은 네오 아방가르드(Neo Avant-garde)의 기본적 틀에서 탈 장르, 해체, 혼성모방 등으로 묘사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맥락으로서 미적 가치의 다원성과 주관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⁸⁸).

조형적인 입체성을 갖는 디자인에서 시각적 관심과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조형요소는 점, 선, 면이다⁸⁹). 현대 회화의 순수 추상작가인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한 논고’에서 회화의 원천적인 조형요소인 ‘점’, 제 2차적인 요소로서 점이 모여 이루어진 ‘선’, 긴장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면’을 회화의 요소로 보았다⁹⁰). 메이크업은 색채와 질감이 더해진다. 메이크업에 있어서 비일상적인 색채의 사용은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고, 색채의 부드러움 및 다채로움의 특징적인 속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질감에 의해서 가볍고 무거운, 여러가지 변화되는 인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유분 조절에 의한 질감을 중요시하게 되었다⁹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특성 중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6) 조규화 (199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2), p. 257.

87) 김미현, *op. cit.*, p. 2.

88) 장미숙 (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 20호, pp. 412-413.

89) 김인혜 (2004), *기초디자인: 점 / 선 / 면*, 서울: 미진사, pp. 144-146.

90) 칸딘스키 (W. Kandinsky), *차봉희 역* (2004), *점 · 선 · 면*, 서울: 열화당, p. 47.

91) Scott Barnes, *op. cit.*, pp. 10-20.

2) 메이크업의 특성

(1) 점 · 선 · 면 · 형

점(dot)이란 피타고라스학파에 의해 ‘그 이상 분할 할 수 없고 위치만 가진 것’으로 정의되어 기하학적 의미에서 크기는 없고, 위치만 갖게 된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는 시각적인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점은 조형성을 상실하게 되어 디자인상의 활용 가치를 잃게 되므로⁹²⁾ 점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이유로 크기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⁹³⁾.

일반적으로 점이란 작고 둥근 것이라 이해되고 있는데, 칸딘스키는 점의 크기와 형태들은 점과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면과의 관계에 따라 한 면 속의 다른 나머지 형태들과 점의 크기관계에 따라 변한다⁹⁴⁾고 정의하였다. 점은 이와같이 다른 기하학적 형태나 자유자재로 임의의 형태를 취하면서 메이크업에 표현되고 있는데, 크기에 따른 아주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의도되고 있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갖고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주며 메이크업 포인트로 사용한다⁹⁵⁾.

선(line)은 점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점 다음으로 단순한 형식 요소로서 넓이와 깊이는 없고 길이만 있다. 선은 모든 시각예술의 형태표현 단계로 이용되며, 상대에 따라 운동감과 질감, 양감의 표현도 달라진다⁹⁶⁾.

메이크업에서의 선은 눈썹(eyebrow), 아이라인(eyeline), 입술라인(lipline) 등에 사용되어지며, 굵기나 두께에 따라 표현되는 이미지가 달라진다. 간혹

92) 조 열, 김지현 (2003), 형태지각과 구성 원리, 서울: 창지사, p. 32.

93) Howard Eves (1995), 수학의 기초와 기본개념, 서울: 경문사, p. 58.

94) 칸딘스키(W. Kandinsky), op. cit., p. 21.

95) 박정신 (2008), “뵐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시각적 표현형식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4.

96) 김인혜, op. cit., p. 105.

아이 새도우(eye shadow)나 블러셔(blusher)도 운동감과 질감, 양감의 변화를 통해 선적인 터치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생겨난 직선과 곡선의 형태로 좌우대칭, 비례, 균형, 유기적 통일감을 고려하여 얼굴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기교로 사용한다⁹⁷⁾.

면(space)은 셋이나 혹은 그 이상의 점들이 연결된 변에 의해 정의된 내부 공간으로 길이와 폭의 이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의 군집과 밀집, 혹은 점의 군집으로 조형되는 면은 얼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메이크업에서는 형과 색을 갖는 아이 새도우나 블러셔, 입술에서 볼 수 있다. 아이 새도우나 블러셔의 가시적인 면은 다양한 컬러와 함께 입체감을 주어, 수정의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입술의 면은 색채의 힘을 빌어 메이크업 구성으로서의 영향력을 갖는다⁹⁸⁾.

형(形)은 2차원적인 셰이프(shape)와 3차원적인 폼(form)이 있다⁹⁹⁾. 메이크업의 형태는 2차원과 3차원적인 형태가 혼합된 형태를 갖는다. 즉, 메이크업을 하는 얼굴의 형태는 이목구비의 형태에 따라서 셰이프와 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¹⁰⁰⁾. 형태는 포괄적인 의미로 인간이 디자인하는 창의성에 입각하여 부여된 가치가 기능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그 결과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통해 인지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달 매체라고 할 수 있다¹⁰¹⁾.

메이크업에서의 형태는 크게 얼굴분석을 위한 형태와 눈, 코, 입 등의 표현을 위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얼굴형은 곡선형과 직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97) 박정신, op. cit., p. 15.

98) 김인혜, op. cit., pp. 265-267.

99) Ibid., p. 40.

100) 이수인 (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6.

101) 민경우 (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p. 174.

곡선형은 계란형과 둥근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위의 선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으로 부드럽고 우아하며 온화한 느낌, 넓어 보이고 귀여우며 여성적 느낌을 준다¹⁰²⁾. 직선형은 주위의 선이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으로 사각형과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각형의 경우는 딱딱하고 각져 있으며 다소 거친 느낌이고 남성적이다. 역삼각형의 경우는 샤프해 보이고 사나워 보이며 냉정하거나 각이져 보이나 개성적이고 세련되어 보이기도 하고, 가끔 앙상하거나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다이아몬드형은 역동적으로 보이고 볼륨감과 안정적인 느낌과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¹⁰³⁾.

(2) 색채

메이크업에서 색채는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시각적 디자인의 요소¹⁰⁴⁾이며, 개인의 기호, 심리상태를 표현하며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준다¹⁰⁵⁾. 회화의 채색에 관한 규칙과 법칙의 필요성을 절감한,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색채생성의 원리를 통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대립적으로 생겨난다¹⁰⁶⁾고 하였다.

메이크업에서의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은 퍼스널 컬러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의 선정 기준을 갖게 하고 효과적인 컬러를 선택하게 한다¹⁰⁷⁾. 메이크업은 회화적 특성을 갖는 색채예술로 색채의 응용과 적용이 가장 중요하며, 의상

102) 강경화 (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 APC. p. 172.

103) 한명숙, op. cit., p. 139.

104) Joanne Richmond (2008), *Color Me Beautiful: 4 Seasons of Color, Makeup, and Style*, Canada: National Book Network, p. 29.

105) 김용선, 이정민 (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팝아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9권, 제 1호, p. 186.

106)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장희창 역 (2003), 색채론, 서울: 민음사, p. 8.

107) Scott Barnes, op. cit., p. 29.

과 모발색, 눈동자 색과 피부색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이루어지도록 색상, 명도, 채도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¹⁰⁸). 그리고 색상과 색조가 가지는 상징성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색상의 조화로 주변과의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현대인에게 있어 색채는 가장 솔직한 정보매체이며 감각적 효과에 있어서 호소력이 강한 요소 중의 하나로 메이크업 유행 색상과 패턴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자유로운 내적 이미지의 표출로써 다양성을 갖는다¹⁰⁹).

뷰티 메이크업에서의 색채 사용은 일반사회 관념에 따른 한계가 있지만 스테이지(stage) 메이크업과 아트(art) 메이크업에서는 제한적인 색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색채 선택의 폭이 넓고 사용이 자유롭다. 과도하게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축소시켜 생략하거나 극도로 색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색의 적절한 조화와 대비, 강조에 따른 배색에 의한 기발한 색채 사용으로 새로운 시각효과를 보여 준다¹¹⁰).

(3) 질감

메이크업에서의 질감은 사물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고유의 촉감으로 사물의 표면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촉각의 느낌을 말한다. 일반적인 뷰티 메이크업에서는 주로 파운데이션(foundation)의 종류와 파우더(powder)의 종류 및 양에 의해 다르게 표현되는데, 최근에는 색채보다 질감을 강조하는 유행으로 오일(oil)이나 펄(pearl)에 의한 광택선호 등 질감 표현이 매우 다양해졌다¹¹¹).

108) Joanne Richmond (2008), op. cit., pp. 29-30.

109) Ibid.

110) 박정신, op. cit., pp. 17-18.

111) Scott Barnes, op. cit., pp. 24-25.

아트 메이크업에서의 질감 표현은 물체가 가지고 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도구의 특성을 이용한 표면의 효과로 만들어진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의 질감 표현은 평면적인 표현법이 아니라 시각적, 촉각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3차원적인 표현 방법이다¹¹²⁾.

3) 메이크업의 시대별 특징

18세기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19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할 만한 자연과학과 응용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해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정적인 생활이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생활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대량생산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 또한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¹¹³⁾. 20세기 후반부터는 대중문화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메이크업은 장르의 구분이 사라지고 여러가지 절충되고 해체된 스타일이 복합적으로 등장하여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 이어지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 사이의 융합화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혼합과 붕괴가 여러 예술분야에서 경계를 허물어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해체를 통한 상호·절충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20세기를 1900년대 전반, 1900년대 후반으로,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21세기는 2000~2010년까지 세계의 전반적인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시대별 특징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112) 이화순 외 2명 (2003),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pp. 32-33.

113) 양덕재 (1998), 최신 화장품학, 서울: 장업신보, p. 62.

(1) 1900년대 전반 (1900~1950년)

1900년 전반은 20세기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는 기존의 서구중심의 문화에서 전쟁에 참가하게 된 미국과 소련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남성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남은 여성들은 산업전선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와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때의 대표적인 화장법은 광택 없는 창백한 얼굴에 눈은 위쪽으로 비스듬하고 선명하게 긴 선을 그리고 속눈썹은 두껍게 칠했으며 입은 크기를 과장하여 검은 색으로 윤곽을 잡은 후 짙은 진홍색으로 칠하고 입술이 빛나 보이도록 바셀린으로 처리하였다¹¹⁴⁾.

1910년대는 영화 산업의 초기 단계로 메이크업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였는데, <그림 4>와 같이 솜으로 그린 것 같은 새까맣고 일자형의 눈썹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지 않는 어색한 형태와 눈 주위가 움푹 꺼져 보이도록 음영을 강하게 넣었으며 입술은 작고 선명하게 표현하였다¹¹⁵⁾.

1920년대에는 전쟁의 충격에서 해방으로 인하여,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영화산업의 번창과 짜즈가 발생, 보급되었다. 전쟁 후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여성참정권 보장과 남녀 평등을 주장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의 대표적인 화장법으로는 코올(khol)을 이용하여 위, 아래 짙게 표현하였다. <그림 5>에서 보여지는 피부는 아주 창백하게 보이고 눈썹은 깨끗하게 밀어 아주 둥글고 가늘게 아치형의 눈썹으로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하트 모양을 연상한 느낌의 작고 동그랗게 표현하여 다소인위적인 메이크업이 성행하였다¹¹⁶⁾. 본래의 눈썹을 밀고 펜슬로 그린 눈썹은 인위적인

114) 이경은, op. cit., p. 14.

115) 김귀정 외 5명 (2007), 실전 메이크업, 서울: 청구문화사, p. 153.

116) 김춘дук (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서울: 현문사, p. 239.

느낌도 있지만 매우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 그림 4 >

1910년대 메이크업

Max factor's Hollywood: Glamour1995



< 그림 5 >

1920년대 메이크업

Max factor's Hollywood: Glamour1995

1930년대는 1929년에 있었던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침체된 시기로, 경제적 불황으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여러나라 에서는 해고된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수산업에 주력하였고 1930년대 말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암울한 시기였으나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TV 방송을 시작하게 하였고 이런 계기가 영상시대로 접어 들게 하였다. 이 시기에 화장품 산업은 급속히 발달하여 기초제품과 립스틱, 아이섀도 등 신제품이 많이 개발 되었다. <그림 6>은 할리우드 스타의 화장법으로 피부색은 붉은 피부톤으로 표현하고 눈썹은 정리한 후 아치형으로 얇게 가늘게 그렸으며, 갈색, 회색 아이 섀도로 아이홀(eyehole)의 음양을 강조하고 긴 인조 속눈썹을 이용하여 눈매에 신비함을 연출하였으며 입술은 볼륨감 있는 형태로 반짝이는 붉은 색을 칠했다¹¹⁷⁾.

1940년대의 2차 세계대전은 1914년 미국의 참전으로 결말을 맺게 되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상승되었고, 전쟁 후의 궁핍한 유럽과 대조적

117) 김귀정 외 5명, op. cit., p. 155.

으로 미국은 경제적 부흥을 맞게 되었으며, 컬러필름의 등장으로 할리우드는 영화산업과 패션의 새로운 메카로 떠올랐다. 이 시기에는 <그림 7>과 같이 아름다운 눈매와 신비로운 미소를 강조한 시각에서 강하고 관능적인 여성미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부각되었으며 가늘고 신비로운 눈썹대신 두껍고 뚜렷한 곡선 형태의 눈썹과 아이펜슬로 눈꼬리를 치켜 올려 눈꼬리를 강조하였으며 적당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입술을 선호하였다¹¹⁸⁾.



< 그림 6 >

1930년대 메이크업

Max factor's Hollywood: Glamour1995



< 그림 7 >

1940년대 메이크업

Max factor's Hollywood: Glamour1995

2차 세계대전 후 막강해진 미국은 1950년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었으며 컬러영화, 대중음악, TV 등 다양한 대중매체가 발달하였다. 사회적 분위기는 종전 후 남성들의 사회 복귀로 인하여 여성들의 이미지는 가정적이고 모성적이며, 순종적인 여성을 바람직한 사회의 이상형으로 삼았으며 반면 대조적인 분위기는 섹시하고 관능적인 여성상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영화 배우들의 화장비법이 더욱 대중화되었다. 룩(look)의 선도자인 <그림 8>의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메이크업은 밝은 피부톤에 살구색과 밝은 브라운으로 아이홀에 음영을 주고 아웃커브 형태의 붉은 입술과 애교점을 찍었으며, <그림 9>는 티파니의 아침으로 사랑을 받은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의 밝고 깨끗한 피부표현과 굵고 길게 눈썹을

¹¹⁸⁾ 정현진 (2004), 미용문화사, 서울: 광문각, pp. 182-185.

그렸으며 아이라인으로 눈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 사슴같은 눈매로 연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¹¹⁹⁾. 이 시대에는 전형적인 전통 메이크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소 인위적이고 어색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8 >
1950년대 메이크업, 마릴린 먼로
(www.vogue.co.kr)



< 그림 9 >
1950년대 메이크업, 오드리 햅번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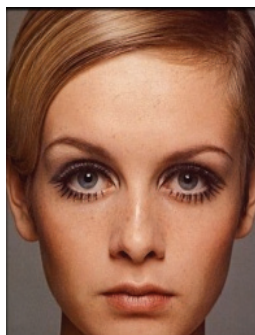
(2) 1900년대 후반 (1950~2000년)

20세기 후반에는 1960년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유인우주선이 달에 착륙하였으며, 세계경제는 계속 성장하여 문화적으로 가장 왕성한 전성기를 누린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인 젊은이들에 의해 다양성과 개성을 강조한 청년문화가 등장하였으며, 젊음과 저항, 변혁의 요구같은 기존 문화에 반기를 든 히피족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부각하였다. 히피족은 눈을 커 보이게 연출하는데 주력하여 쌍꺼플 부분에 진한 회색으로 두꺼운 라인을 그리고 핑크나 담비털 등을 사용한 인조 속눈썹을 붙였으며, 밝은 핑크빛의 글로시한 립스틱을 사용하여, 정렬적이면서 다소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¹²⁰⁾. <그림 10>은 패션모델인 튀위기(Twiggy)로 속눈썹을 이용해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하고 연한 핑크계열의 입술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119) 김선희, 차귀옥 (2006), 실용메이크업, 서울: 훈민사, p. 115.

120) 하루야마 유키오, 임희선 역 (2004), 화장의 역사, 서울: 사람과 책, pp. 66-69.

1970년대는 석유 과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황기로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퇴폐적이고 무질서한 펑크 문화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여성운동이 확대되는 시대 사조를 이룬다. 이때에 펑크(punk)족은 밝고 진한 피부표현과 직선적인 눈썹, 회색과 검정색, 어두운 와인색 계열의 아이새도와 검붉은 색의 립스틱을 발랐으며, 머리카락을 빨처럼 세워 다양한 색상의 스프레이(spray)를 뿌려 다소 혐오스러우나 독특한 스타일을 표현하였으며, <그림 11>과 같이 일반인들은 자연스러운 피부표현과 눈썹형, 브라운 계열의 아이새도, 글로시하면서도 강하지 않는 내추럴 메이크업이 성행하였다¹²¹⁾.



< 그림 10 >
1960년대 메이크업
(www.vogue.co.kr)



< 그림 11 >
1970년대 메이크업
미용문화사, 정현진 외 (2004)

1980년대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을 추구한 시대로써, 환경, 복지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세계의 패션 경향이 다양해지고 개성화된 시기이다. 이때의 메이크업은 디스코 열풍으로 펄(pearl)이 들어간 화려한 다양한 컬러가 유행하였는데, 황금, 노랑색 펄을 눈두덩이에 바르고 펄이 들어간 볼터치를 사용하여 빨간색, 주홍색 등의 짙은 립스틱을 발라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였고, 긴 머리를 땅아 내린 디스코(Disco) 머리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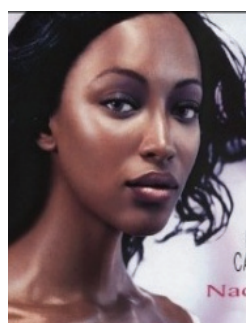
121) 김선희, 차귀옥, op. cit., p. 118.

였다.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여배우(브룩 쉘즈, 소피 마르소 등)들과 같은 자연스러운 화장법이 유행하였다¹²²⁾(그림 12).

1990년대는 지구의 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인들을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며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던 시기로 <그림 1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20~30년대의 복고풍 메이크업과 자연스러운 피부연출과 초록색, 연한 갈색, 밤색 계열의 아이섀도우와 갈색 펜슬로 라인을 살려 연한 밤색 립스틱으로 표현하는 에콜로지(ecology)풍으로 연출하였으며, 펄과 반짝이를 이용한 사이버(cyber) 분위기의 아방가르드식(Avan-garde) 메이크업으로 패션쇼나 잡지 모델들이 사용하던 화장기법이 젊은이들 사이로 퍼져 나갔다¹²³⁾. 이 시대에는 전형적인 전통 메이크업 스타일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정신적인 메시지를 메이크업을 통해 자유롭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12 >
1980년대 메이크업
(www.style.com)



< 그림 13 >
1990년대 메이크업
(www.style.com)

(3) 2000년대 (2000~2010년)

2000년도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 사이의 상호교환이 가능해지고, 통신 산업의 융합화를 통해 디지털 위성 TV를 통해

122) 김귀정 외 5명, op. cit., p. 160.

123) 장미숙, op. cit., pp. 412-418.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생성되면서 개방적이고 수평적 사고의 사회가 특정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장르의 혼합과 붕괴가 여러 예술 분야에서 보여지고 있다¹²⁴⁾. 또한, 물질 문명의 리얼리티(reality)를 메이크업을 통해 제시하여 소재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여 다양한 질감과 형태 표현으로 다양하게 부각시켰다. 소재 개발과 사고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 사용에 있어서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반된 소재들을 병행 인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고 소재 자체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소재를 결합할 때에도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극단적 대비를 통한 상호·절충적인 면도 나타났다¹²⁵⁾.

이 시기의 메이크업은 표현의 무제한성을 보여 주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 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 예술의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양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비주류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움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¹²⁶⁾. 그 동안 메이크업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메이크업의 원칙들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양식과 요소들이 혼재된 변화적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어, <그림 1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 얼굴에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가 동시에 표현된 형태나 이질적인 색채, 질감 등이 나타나거나 서로 다른 양식이나 스타일이 혼재되어 하나의 이미지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해체적 유형으로 시도되었다¹²⁷⁾. 또한 성적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다

124) 방기정, 김경희 (2010),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18권, 제1호, p. 65.

125) 이경은, op. cit., p. 186.

126) 방기정, 김경희, op. cit., p. 74.

127) 이윤정, op. cit., p. 93.

양한 표현 방법으로 <그림 15>에서와 같이 성 본능의 자유로움에 대한 표현을 신체의 노출, 인체의 강조, 자극적인 소재나 선정적인 장식, 양명 가치의 표출인 성의 혼돈, 에로티시즘의 강조 등으로 나타냈다¹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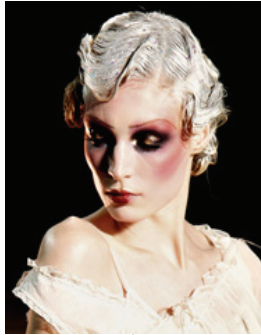
표현 방법으로는 <그림 16>과 같이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눈썹이 아닌 독특한 눈썹의 형태를 만들고, 또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눈화장에 사용된 형태는 정확한 눈의 위치나 눈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눈 형태나 위치를 무시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면이 아닌 점이나 선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나 표현 방법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볼 화장은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하여 새로움과 다양성을 창출하고 있다. 서구 중심적인 패션의 영향력과 동양의 신비스러움을 창조하여 극도의 여성스러움과 귀여움을 연출하는 등 다양하고 극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입술 메이크업은 입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형성하는 등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피부표현을 부정하고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한 장의 캔버스로 취급하여 다양한 낚서나 그림을 연출하여 표현하고 있다¹²⁹⁾. 질감과 색상은 펄을 이용한 메탈릭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춘 그래픽 질감의 표현으로 여러가지 이질적 소재가 결합 되기도 하여 풍부한 효과를 제시하면서 조형성을 가미해 나타냈다¹³⁰⁾. <그림 17>에서는 사이버, 테크노 이미지, 메탈릭 소재 외에 신소재, 무채색이나 강렬한 원색으로 표현하여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을 파괴하고 소재나 패턴의 사용에 있어서 무한히 다양해진 첨단 기술의 감성을 보여 주고 있다.

128) Victoria Jackson, op. cit., p. 40.

129) 이수인, op. cit., pp. 55-58.

130) 이경은, op. cit., p. 187.

그러므로, 2000년대 후반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유형은 아방가르드식 유형으로 다양하게 혼합과 결합되어 진행되고, 탈 장르화의 경계의 해체성이 가미된 유형으로 절충적인 혼합을 기본으로 과거에 있어 왔던 스타일이나 장르와 장르와의 혼합과 병치로 나타나고 있다.



< 그림 14 >

2010년도 메이크업, 2011 John Galliano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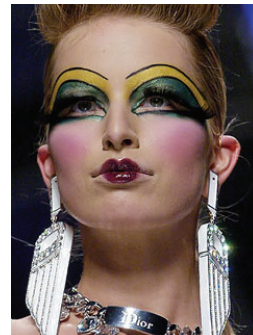
< 그림 15 >

2000년도 메이크업, 2004 John Galliano
(www.style.com)



< 그림 16 >

2010년 메이크업, Brow attitude
(www.vogue.co.kr)



< 그림 17 >

2000년도 메이크업, 2004 Christian Dior
(www.style.com)

III.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현상을 존 워커(John A. Walker)는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다원화 경향이 반영된 태도이다¹³¹⁾’라고 하였다. ‘장르’는 개념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왔으며, 장르의 해체와 진화, 다시 말해서 장르간 하이브리드 현상은 장르가 갖고 있는 본질이지만, 후기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며 또 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¹³²⁾. 21세기 전유물로 인식되어진 타 장르와 예술들 사이의 혼합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아방가르드들의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방가르드의 특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연결이 되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은 현대 예술에 있어 하이브리드적 요인과 상당부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¹³³⁾. 절충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의 기본 특징들 중에 절충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편화된 현상은 하이브리드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고 해체주의의 절대적인 진리나 중심이나 근원의 독선과 횡포를 거부하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 탈피 또한 하이브리드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 되었다¹³⁴⁾.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 현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의 공간 개념의 확장으로 획일적이고 보편화된 장소 대신 확장된 개념의 장소를 택하여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퍼포먼스적 특징을 보여 문화전반의 양식이나 폭의 확대로서 실험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¹³⁵⁾.

131) John A. Walker (1987), *Art in the Age of Mass Media*, 정진국 역 (1997), 대중 매체 시대의 예술, 서울: 열화당, p. 104.

132) 문석우 (2003), 장르진화란 무엇인가?,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p. 24.

133) 김동호 (2006), “현대미술에 있어서 혼용된 오브제와 하이브리드 오브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7.

134) 이일형, *op. cit.*, p. 37.

현대 사회에는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여러 양식과 장르의 탈 경계, 그리고 문화의 융합화로 다양한 콜레보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콜레보레이션은 기업 및 브랜드의 합작 마케팅 전략으로 인식었고 이제 장르와 영역을 넘나들면서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 현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¹³⁶⁾. 다원화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기술의 발전은 스타일간의 융합, 문화 변화에 따른 장르의 파괴, 서로 다른 업계와의 협업, 전자기기의 유입현상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¹³⁷⁾. 메이크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역시 영역의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현상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의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⁸⁾.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인 포스트 구조주의는 관념화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개방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였으며, 주체의 해체, 모든 것을 통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적 자아의 탈 장르화, 그 자아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원근법적 구조의 해체를 주장하는 해체주의¹³⁹⁾로 대표된다. 해체는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의 연장으로 표현되어 20세기에서 21세기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사조이다. 그래서, 해체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인식의 해체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기 다른 요소들과의 재결합을 위한 전단계로 작용하여 통합적 사고 체계와 이미지의 혼합, 장르의 절충과 혼합, 자연과 기술과의 융합, 타 예술 장르와의 절충 현상의 배경이 되었다¹⁴⁰⁾. 해체는 그 자체가 복합적인, 다원적인

135) Ibid.

136) Penelope, H. op. cit., pp. 45-60.

137) 하미희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세계 4대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4.

138) Lee, C. Susan, op. cit., pp. 5-10.

139) 조정미 (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제 11권 제 6호, p. 937.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해체주의는 다원주의를 내포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⁴¹⁾.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징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서 하미희(2009)는 시간, 문화, 성(性), 기술적 요소의 특성으로, 공차숙(2008)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현, 하위문화 등장, 남성 역할의 변화, 매스 미디어 영향으로의 유형 분류하였고, 백정현(2009)은 탈 경계성, 기술 지향성, 감성 지향성, 시·공간의 혼재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여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장르와 장르의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한 발전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와 융합의 개념으로 보고, 경계 해체성을 계층 해체와 시·공간의 혼재,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을 민속적 요소의 혼합과 과학 기술발달과 절충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경계의 해체성

‘해체(deconstruction)’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분석 및 비평을 위해 해체이론을 사용하는 비평가 및 해설가들에 의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고 모더니즘적 문화양식의 파괴와 관련해 변화와 대담한 변형에 대한 합법적인 표상으로서 이러한 해체를 활용하고 있다¹⁴²⁾. 해체는 용어 텍스트에 담김 의미의 불안정성을 폭로하기 위한 읽기 및 쓰기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철학자들과 문예학자들은 매우 자의적으

140) John Storey, op. cit., p. 102.

141) 박기웅 (2000), 조형예술학 연구, 서울: 조형사, p. 31.

142) Ibid.

로 이러한 해체이론을 일종의 비평으로써 수용해왔다¹⁴³⁾.

해체는 포스트 구조주의의 하부 개념이며, 1966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열렸던 국제 심포지움의 ‘인문과학의 언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라는 논문에서 플라톤 이래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¹⁴⁴⁾는 니이체의 해체정신을 전수하였지만 니이체와 비교하여 보다 철저하게 구조해체를 하였으며¹⁴⁵⁾, 차연¹⁴⁶⁾과 산중¹⁴⁷⁾의 개념을 통해 기호, 절대성, 총체성, 중심성을 해체하고 상대주의, 주관주의를 인정하는 열린 사고로 건축, 복식, 미술을 비롯한 다원화된 문화, 예술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⁴⁸⁾.

해체주의는 철학적이며 문학적이며 추상적인 가설이나 내적모순을 노출시키기 위해 쓰이며, “destruction”은 파괴하는 행위, 파괴당하는 상태, 구성의 반댓말, 해체하고 버리는, 물질적인 것과 비 물질적인 것을 해체하는, 파괴된 상태, 상황, 사실을 뜻한다¹⁴⁹⁾.

경계의 해체성은 과거의 시대, 역사적 요소, 동양을 포함한 제 3국의 이

143) Alison Gill (1998), "Deconstrucion Fashion: The Making of Unfinished, Decomposing and Re-assembled Clothes", *Fashion Theory*, Volume 2, Issue 1, United Kingdom: Berg Publishers, p. 26.

144)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프랑스의 철학자. 언어의 기호체계(記號體系)가 자의적인 것이라는 인식에서 언어위에 조립된 논리학을 재검토. 서기언어(書記言語)에 크리튀르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시.

145) 김상환 (1996),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164.

146) 차연 [差延] : 서로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상대를 서로의 흔적으로 받아 들인다는 뜻.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비평 용어. '차연'은 '다르다'와 '연기하다'라는 말의 합성어.

147) 산중: 원래 태어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뿌려진다는 뜻.

148) 김성곤 (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p. 18.

149)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i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p. 327.

미지를 차용, 변형시킨 복고적, 이국적 경향을 비롯해 고급·하위 문화적 이미지 등 상대적 개념을 절충하는 탈 경계적·해체적 양상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고, 여러 특징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서 ‘탈 경계’라 함은 각 고유 개념의 경계를 초월해 이질적인 것들 간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¹⁵⁰⁾이다.

해체주의의 이론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를 중첩, 병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원리나 이질적인 형태들의 융합, 고정 관념으로 부터의 탈피 등의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¹⁵¹⁾ 하위문화, 성의 역할 변화, 시·공간의 해체에 따른 불연속 현상은 하이브리드의 중요한 특징이고, 절대적인 진리나 중심이나 근원의 독선과 횡포를 거부하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 탈피 또한 하이브리드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여러 예술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특성에서 하위문화와 성 역할의 변화, 시·공간의 불연속의 특징적인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탈 장르화 특징에서 경계의 해체성을 계층의 해체와 시·공간 혼재 두 가지로 유형 분류 하고자 한다.

1) 계층의 해체

계층의 해체는 경계를 허물기 위해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여 메이크업과 다른 형태의 경계선에서 병행·인용으로 전환하고 다원주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¹⁵²⁾. 이는 하위문화(subculture)와 성의 무경계로 설명할 수 있

150) 이순홍 외 8인 (2002), 세계 복식과 패션 정보, 서울: 교문사, p. 218.

151) 김성곤 (1989), 탈 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87-88.

152) 이영재 (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집, Vol. 18, No.1, p. 114.

는데, 하위문화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 양식과 가치관과 달리, 주목 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 하위문화는 대중적이고 속물주의 경향의 표현으로 해체주의의 ‘차연’과 ‘탈 중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⁵³).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의 은폐를 통한 축소적 경향이나 완성된 구성을 의도적으로 파괴, 지저분하게 만드는 미완성과 변형의 파괴적 경향 등 부조화의 미를 실현함으로써 미적 관조를 방해하거나 반미적 표현을 새로운 미의 범주로 포함시켜 다양한 미적 표현을 가능케 한다¹⁵⁴).

20세기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회규모가 점차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인구의 이질성과 유동성이 증대되어 주류권에 속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외모를 표현하기 위해 하위문화가 출현하였는데, 이는 사회의 기존관념을 타파하는 선봉이 되었고, 스트리트 패션과 미용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등장시켰다¹⁵⁵).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1960년대 비틀즈가 유행시킨 모즈(mods)나 히피(hippi)문화가 있다. 히피문화는 너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긴 머리, 공공장소에서 옷 벗기, 섹스, 마리화나, 꽃, 마약, 지나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 록 페스티벌, 동양의 신비주의, 집단 결혼, 거리공연, 사이키델릭(psychedelic)의 바디 페인팅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¹⁵⁶). 비주류인 거리문화의 파괴적 성향을 수용한 펑크(Punkanture)나 빈티지(vintage)스타일은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개념이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패러다임 변화

153) John Storey, op. cit., pp. 102-105.

154) 엄혜정 (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복식학회지, 제 37권, 제 1호, p. 45.

155) John Storey, op. cit., p. 198.

156) 서유리 (2004), “Y세대 미국 청소년의 문화와 패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4.

를 야기시킨 것¹⁵⁷⁾이라 할 수 있다. 힙합(hiphop)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갱스터 랩(Gangster rap), 하드 코어 랩(Hard-core rap), 팝 랩(Pop rap)의 세 갈래로 나뉘었다¹⁵⁸⁾. 1980년말에 흑인들의 민족주의가 랩으로 승화되어 더욱더 발전하였고, 1990년대에는 밝은 색상의 야구모자와 네온 컬러의 의상이 유행하였다. 최근에는 비보이(Breakdancing boy)문화, 레깅스(leggings)패션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¹⁵⁹⁾. 하위문화 요소의 메이크업은 특정 시대의 역사·문화적 요소나 다국적 이미지를 수용한 복고·다문화적 경향과 펑크·히피 등의 하위 문화적 요소를 믹스시킨 양상으로 각 요소의 무차별적 교류에 의해 부조화된 이질적 이미지를 양산하는 모호한 특성을 보인다¹⁶⁰⁾.

이처럼 하위문화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서 선정과 퇴폐, 일탈과 파괴적으로 미적 요소를 버리고, 절제·생략된 경향을 나타낸다. 디자인 요소의 축소적 경향, 완성된 구성을 의도적으로 파괴, 지저분하게 만드는 미완성, 변형의 파괴적 경향 등 다양한 미적 표현을 가능케 한다. 거리 문화의 파괴적 성향을 적극 수용하여 상반된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계층의 해체에서 하위문화와 성의 무경계성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선정과 퇴폐, 일탈과 혐오, 실험적 창조주의, 성의 무경계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선정과 퇴폐

선정과 퇴폐성은 복고주의적 영향에 의한 과거의 팝아트 사조를 현대에

157) Lynn Schnurnberger, op. cit., p. 394.

158) Allison Samuels, N" Gai Croal, David Gates (2000. 10. 9), Battle for the Soul of Hip-Hop, Newsweek, pp. 62-63.

159) John Storey, op. cit., pp. 102-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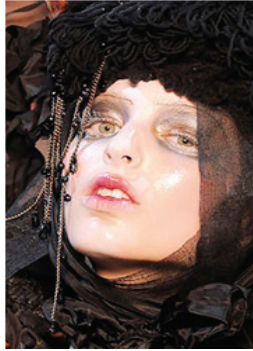
160) 이순홍 외, op. cit., pp. 285-294.

재해석하여 우아함이나 세련된 것과는 거리가 먼 대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였다. 인체에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을 하여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보이거나 성적으로 노골화하여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과 에로틱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로테스크(grotesque)하거나 혐오스런 표현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컬러의 도입으로 탈 중심적 현상과 얼굴을 왜곡하여 메이크업을 한다. 또한, 병적이거나 자극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부조화된 색을 사용¹⁶¹⁾하였다. 예를 들면 입술에 적색이나 검붉은 색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선정적 느낌을 주거나 차가운 색조로 눈 주변을 과장하거나 어두운 색으로 지저분하게 반미학적 추(醜)의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로테스틱 감성이 메이크업에도 적용되어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충격적 시각효과를 추구하는 키치(kitch)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18>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메이크업으로 글로시(glossy)한 피부 표현과 병적이거나 눈 부분의 아픈 느낌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선정적이면서도 퇴폐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눈 주변을 어두운 색으로 지저분하게 표현하여, 피부 표현은 글로시하면서도 페일(pale)하게 연출하여, 퇴색한 듯 빛바랜 느낌으로 가벼운 표현을 하고, 눈화장을 과장하여 아름다움을 배제한 미를 나타내어 이중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메이크업으로 퇴폐적이면서 해체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하드 매트한 피부 표현과 검고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눈썹은 얇고 길게, 입술의 모양 또한 요부적이면서 선정적인 느낌을 연출하였다. 메이크업을 통해 혐오스럽고, 충격적인 시각 효과의 키치적 메이크업으로 자극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오렌지와 레드, 그리고 검붉은 색의 립스틱 등 선정적이면서 무대화장 같은 형태의 입술화장과 강렬한 부조화된 색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161) 김경순 외 (2000), Make-up II, 서울: 청구문화사, pp. 39-41.



< 그림 18 >
John Galliano I, 2009 F/W Collection
(www.vogue.co.kr)



< 그림 19 >
Christian Dior II, 2005 F/W Collection
(www.style.com)

(2) 일탈과 혐오

일탈과 혐오의 메이크업은 전통적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충격적인 시각효과를 추구하는 표현방법 중 하나이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가치관의 붕괴는 고전적인 미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미적 취향에도 새로운 견해가 이입되어 시각적 충격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반미학적 추(醜)의 미를 추구하게 되었다¹⁶²⁾. 메이크업에서 예상하지 않은 것들과의 조합과 의외성을 강조한 데페이즈망(depaysment)¹⁶³⁾ 기법 및 형식이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자동기술 방법인 오토마티즘(automatism)¹⁶⁴⁾ 등의 초현실주의 경향은 기발한 위트를 보여 준다. 이는 괴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절망·공포 등 극단적 그로테스크(grotesque)¹⁶⁵⁾한 감정을 불러 일으

162) Ibid., 45.

163) 데페이즈망 (depaysment) : ‘전치’, ‘전위법’ 등으로 번역. 초현실주의파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 엉뚱한 곳에 배치하는 것.

164) 오토마티즘 (automatism) : 자동(작용), 자동성; 기계적 행위. 자동성 (근육의 반사 운동, 심장의 고동 따위). 자동 현상, 무의식적 행동. 오토마티즘, (무의식에 의한) 자동 기술법(記述法)(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의 그림이나 콜라주에서 볼 수 있는 수법).

165) 그로테스크(grotesque) : 서양 장식 모양의 일종. 그로트(grotto)에서 유래된 말. 동물, 식물, 가면, 건축의 일부 등 각종 모티브를 곡선 모양으로 연결시켜 복잡하게 구성한 것.

키기도 한다¹⁶⁶). 일탈과 혐오성은 더러움에 감추어진 진실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더욱 진실된 것으로 만들려는 과시적 빈곤의 표현이자 은폐·미완성·변질을 통해 일탈로 이어지는 파격의 미라고 할 수 있다. 장식적 요소의 생략에서 기본요소의 파괴·변형 및 미와 대립된 추(醜)의 요소를 미의 범주로 격상시켜 다양한 미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불균형·불완전의 표현방식을 의미한다¹⁶⁷). 메이크업에서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고자 하거나, 완성된 메이크업을 고의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불완전의 미를 추구한다¹⁶⁸).

일탈과 혐오성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그림 20)에서 보여지는 메이크업은 미완성을 통한 이목구비의 생략과 변형, 검은색의 색의 제한 등으로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고, 완성된 메이크업을 파괴시킴으로써 과시적 빈곤의 표현이자 미완성·변질을 통해 일탈로 이어지는 파격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1>도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양·중성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어두운 이미지의 혐오스러운 형태의 눈화장과 얼굴 형태와는 무관하게 눈밑에 문신 형태의 문자의 조합과 거친 피부 표현을 통해 일상과는 다른 모습의 부자연스러운 남성스러움을 표현했다.

<그림 22>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메이크업으로 비대칭적인 저속한 형태의 과장된 미완성 이미지로 인조 속눈썹을 표시하도록 연출하여 부조화를 통한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림 23>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메이크업으로 충격적인 시각효과를 통한 괴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로 공포의 극단적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이는 변질을 통해 일탈로 이어지는 파격의 미라고 할 수 있다.

166) 변영희, 채금석 (2009), “과리컬렉션에 나타난 반꾸밈적 뷰티디자인의 미적특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 9권, 2호, p. 24.

167) John Storey, op. cit., p. 1239.

168) 류은주 (2003), 모발학 사진, 서울 : 광문각, p. 930.



< 그림 20 >

Jean Paul Gaultier I, 2009 F/W Collection
(www.vogue.co.kr)



< 그림 21 >

Jean Paul Gaultier II, 2010 S/S. Collection
(www.style.com)



< 그림 22 >

Christian Dior I, 2005 F/W Collection
(www.style.com)



< 그림 23 >

John Galliano II, 2010 F/W Collection
(www.vogue.co.kr)

(3) 실험적 창조주의

과학과 예술의 역사적 상호작용은 20세기에 들어서 예술적 도형, 색채, 구조, 재료, 형태, 리듬에 대한 거대한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예술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최전방 연구에서 새로운 세계관, 개념, 재료, 등을 채용하고 있다¹⁶⁹⁾.

실험적 창조주의는 1960년대 히피에서 보여졌던 형태의 예술을 모방, 차용

169) 홍성욱, op. cit., p. 49.

하거나 조형 의지를 통해 재창조와 새로운 독창적 아이디어를 부여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형태의 복잡성, 다양성, 상호대립적인 요소들의 결합, 상징적인 창조물들의 과감한 도입, 역사적 전통의 창조, 콜라주, 패러디 장식성의 강조는 실험적 창조법을 제공한다¹⁷⁰⁾. 히피의 요소들을 재현, 변형하여 신소재의 장식적인 요소들과 혼합하고 일상적인 소재나, 비일상적인 독특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과감한 창의성과 조형성을 첨가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¹⁷¹⁾. 오브제를 활용한 폴라주 작업을 함으로서 그 동안 얼굴에 시도되었던 선, 색채, 면을 활용한 평면적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입체적이며 다양한 질감표현의 변화는 21세기 뉴 히피적인 메이크업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¹⁷²⁾. 메이크업에서 실험적 창조주의 요소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이질적 소재를 활용한 해체·변형 개념을 중심으로 실험성, 혁신성의 매력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현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림 24>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메이크업으로 비닐 소재의 플라스틱을 통해 수녀나 종교적 이미지를 연출하여 이목구비 무시를 통한 인체의 왜곡을 통한 입술 변형의 방법으로 해체를 표현하고 있다. 비일상적인 독특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것들과의 조합을 통해 과감한 창의성과 조형성을 첨가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변형하고 있다.

<그림 25>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메이크업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채를 통해 독특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이질적 소재를 활용한 해체·변형 개념을 중심으로 실험성, 혁신성의 매력을 추구하고 있다. 자극적이며 저속하고 선정적인 색채를

170) 진경옥 (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패션의 코디네이션”, 한국복식학회지, 제 55권 6호, p. 192.

171) Joanne Richmond, op. cit.,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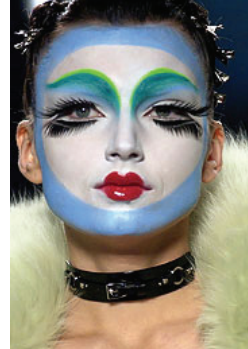
172) Kevyn Aucoin (2003), A Beautiful Life, New York: Atrabooks, pp. 122-123.

통한 광대같은 무대의 가면을 쓴것 같은 얼굴의 과장된 표현과 푸른색의 저속한 색채를 보면, 과시적 심리표현을 통한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키치 메이크업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 그림 24 >

Alexander McQueen II, 2009 F/W Collection
(www.style.com)



< 그림 25 >

Christian Dior II, 2003F/W Collection
(www.style.com)

(4) 성(性, gender)의 무경계

성 역할 변화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텍스트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대립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해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¹⁷³⁾. 성에 관한 관심이 생겨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간성(間性)이 처음으로 나타난 19세기에 사람들은 이 실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 내적으로 큰 혼란을 겪지 않고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1902-1994, 독일)의 연구 이후 우리는 사회적이든 또는 심리적이든 간에 정체성의 획득은 포함이라는 긍정적 관계와 배타라는 부정적 관계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극도로 복잡한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개개인은 어떤

173) 최영욱 (2001),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문화연구, 제 9권, 제 4호, p. 576.

사람과의 유사성이나 또는 어떤 사람과의 차별설에 의해 정의된다¹⁷⁴). 성 정체성을 구분 짓는 판단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이 있다. 생물학적 성은 신체 물리적 조건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성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설정된 성 역할 기준에 근거한다¹⁷⁵). 19세기 이후 남성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체적 효율성과 엄격한 외모로 제한된 반면, 여성성은 신체적 매력과 장식적 외모로 이분화 되는데, 이는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이라는 권력관계로 합법화되었다. 남, 녀를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로 그들의 권력위치를 공고히하였다. 모더니즘 문화의 본질은 남성성, 생산적, 창조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절대적 가부장제에 기초한다. 권력층인 남성들은 여성과의 차이를 명쾌히 했다. 남성들의 성 범주는 그들에게는 권력을 의미한다¹⁷⁶).

앤드로지너스(androgynos)는 여성 특성이 균형, 조화를 이루는 인간상대가 반영된 것을 말하며, 남, 여의 특징 모두 포함하는 양성성(Androgyny)을 가진다¹⁷⁷). 플라톤은 ‘향연 (Symposium)’ 을 통해 성에 대한 신화를 소개하면서,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인간을 묘사하였다. 그 후 오랜 뒤에 사무엘 콜리지(Samuel Coleridge, 1772-1834, 영국)는 위대한 정신은 남성과 여성성 특질을 함께 결합한 양성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여성과 남성성 특질이 높은 사람을 양성적¹⁷⁸(androgynous)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남성적 특질과 여

174) Schickendanz, Judith A. (2001). "Chapter 1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and Methods of Studying Children", *Understan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4th edition, Allyn and Bacon, pp. 12-13.

175) 권기영 (2004), “패션잡지 광고에서 보여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제 28권, 제 1호, p. 101.

176) Edward Fuchs (1912), *Illustrier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 Das Burgerliche Zeitalter* 이기웅, 박종만 역 (1991), *풍속의 역사 IV*, 서울: 까치, p. 17.

177) 하미희, op. cit., pp. 66-67.

178) Sandra Ruth Lipsitz Bem (born June 22, 1944 Pittsburgh, Pennsylvania) is an American psychologist known for her works in androgyny and gender studies,[1] including the Bem

성적 특질이 모두 낮은 경우는 ‘양성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¹⁷⁹⁾. 마그누스 허쉬필드(Magnus Hirschfeld)는 복장 도착 행위에 있어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적 표시로써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는 동성애와 관련이 있고, 옷을 대상으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성역할을 표시하는 것은 복장 도착자의 행위¹⁸⁰⁾라고 설명하였다. 페티시즘(fetishism)의 출현은 19세기 후반 전통적이고 억압적인 성 윤리에 반발하여 등장과 세기말적인 예술사조의 경향¹⁸¹⁾, 여성의 성 해방 운동에 관련된 페미니즘(feminism)의 성장으로 남녀의 성역할이 전도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¹⁸²⁾.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은 현대에 와서 생긴 신조어로 복합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젊은 남성의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¹⁸³⁾. 성에 대한 진리와 절대를 불신하고 대립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성에 대한 시각을 해체한다. 오랫동안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호르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고,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으로 이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이 공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⁴⁾. 이처럼 성 역할 변화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서 상호텍스트성으로 남, 녀를 구분짓는 이분법적인 요소들이 상충적 이기보다는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보충될 수

Sex Role Inventory.[2]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Cornell University, 네이버, 위키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Sandra_Bem, 검색일 2010년 8월 19일.

179) 이인식 외 (2005),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경계를 넘어라, 서울: 고즈윈, p. 216.

180) Marjorie Garber (1992), *Vested interest-Crossing Dressing & Cultural Anxiety*, New York : Routiege. p. 40.

181) Michel Steele (1996),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22.

182) Emily Apter (1991), *Feminizing the Fetish: Psychoanalysis and Narrative obsession in Turn-of-the Cwntury Franc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6.

183) 신인류의 사는 법 (2010), 이데일리 EFN, 강동완 (2008, 5, 28), (www.nate.com, 검색일: 2010년 9월 7일).

184) Mary Ellen Roach-Higgins, Joanne B. Eicher, Kim K.P. Johnson(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 p. 113.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 두 요소 사이의 자유로운 치환을 허용하여 상호텍스트성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는 계층의 해체를 설명하고 있다. 메이크업을 하는 목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활동의 모티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뱀프(vamp) 화장은 극단적인 여성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남성화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¹⁸⁵⁾ 메이크업에서 성의 무경계는 경계를 허물기 위해 성(gender)의 특징적인 모습을 통한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양·중성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나타나는데, 양성적 메이크업은 남성 이미지의 눈썹, 남성 복식의 디자인적 요소와 소품의 적용, 남성에게는 여성적인 이미지의 깔끔하고 깨끗한 피부 표현, 여성적 이미지의 눈화장 형태와 아이টে임을 적용한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형태로 표현되며, 남·여의 성을 배제하고 각각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무시한 중성적 이미지로 메이크업을 표현한다. <그림 26>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에서 보여지는 메이크업으로 성(gender)의 고정 관념을 파괴하여 양·중성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혐오스러운 형태의 거친 선을 이용한 눈화장 표현을 통해 남성스러움을 표현했다.

필립 림(Phillip Lim)(그림 27)에서 보여지는 메이크업은 성의 무경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년같은 중성적인 느낌의 헤어 라인을 통한 헤어 스타일과 직선 형태의 남성적 이미지 형태의 눈썹과 폐일한 베이스와 윤곽을 강조한 블러셔 피부 표현을 통해 남성적 각진 느낌을 잘 살렸으며, 무심한 듯 립스틱 색상과 전체적으로 양성적인 이미지의 잘 조화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

<그림 28>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메이크업으로 남성적 표현의 특징인 수염과 두껍고 굵고 거친 느낌의 눈썹 형태를 통해 남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고 있으며, 광택의 피부표현과 자극적인 컬러의 눈화장을 통해 여성스러

185) Bazaar, October, 2005, p. 344.

운 이미지의 느낌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9>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메이크업으로 남성 모델에게 여성적 표현의 특징인 여성스러운 형태의 또렷한 눈썹 형태와 화려한 색상의 눈 화장과 입술화장 그리고, 볼 부분이 블러셔를 통해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중성적 느낌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6 >

Jean Paul Gaultier III, 2010 F/W Collection
(www.style.com)



<그림 27 >

Phillip Lim I, 2010 F/W Collection
(www.style.com)



<그림 28 >

John Galliano III, 2010 F/W Menswear
(www.vogue.co.kr)



<그림 29 >

John Galliano IV, 2009 S/S Menswear
(www.vogue.co.kr)

2) 시·공간의 혼재

예술은 예술가의 서 있는 현실의 공간과는 다른, 전혀 없는 순수한 허의 공간 상태에서 미지의 세계인 바로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내용에서 시작된다. 무의식은 심리현상에 매우 심오한 표현을 만들어 내며 심리종류의 모든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가상공간의 화면 앞에서 작업할 때 갖게 되는 내적 필연성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⁸⁶⁾. 칸딘스키(Василий Кандинский, 1866-1944)는 예술에 있어서 내적 충동을 시사하는 “작가의 눈은 작가의 내적 세계로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한 작품의 기본요소인 신비로운 필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다¹⁸⁷⁾.

공간적인 개념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을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서 ‘차연’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공간적 혼재성은 과거의 요소를 차용하여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요소들과의 혼성을 노리는 시간적 요소의 메이크업이다¹⁸⁸⁾. 이는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의 시대별 양식을 혼용하거나 과거의 양식을 재조명하여 시대별 양식 대비가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모방이 유행 전파의 행동적, 심리적인 모체를 이루고 있으며 유행은 주기성을 가지고 재현·반복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요소들이 한 시대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복고풍, 즉 레트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¹⁸⁹⁾.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29-2007)는 ‘패션은 항상 과거 형태의 즉각적이고 전체적인 재순환’ 이라고 지적하였듯이, 과거로의 회귀, 또는 복고성의 이름으로 과거의 스타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과거

186) 박 진 (2007), 장르와 탈장르의 네트워크들, 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p. 6.

187) Wassily Kandinsky, 권영필 역 (2004),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열화당, p. 4.

188) 정홍숙 (2000),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p. 305.

189) Lynn Schnurnber, op. cit., p. 195.

의 답습이나 모방이 아닌 역사적 전통성의 요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절충적인 방안으로 새로움을 창출하고, 과거의 이미지만을 과거성으로 제시하는 혼성 모방으로 쉽게 사라지고 다시 쉽게 생겨날 수 있는 순간적이고 불연속적인 이미지를 조합하고 있는 것이다¹⁹⁰). 바바라 빈켄(Barbara Vinken)이 “패션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영원한 현재를 표현하는 것¹⁹¹)”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자 당대에 수용자들에게 인정되지 않은 고급문화의 실험은 이후 시대에 고전이 되어 현대의 수용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재생된다.

정보사회의 과학기술 발달로 형성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시간의 불연속적인 찰나성, 일시성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 속으로 압축하며, 이러한 시간의 압축에 따라 공간도 파생적이고 분절화된 순간적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¹⁹²).

따라서,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시·공간의 혼재성에서는 테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서 차연과 시·공간의 불연속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와 현재 두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과거와 현재

시·공간적 절충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복고풍의 개념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적 특성이 되고 있으며, 복고적 현상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인용, 은유, 혼합하여 현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거의 친숙한 요소들을 인용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아이러니한 대조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¹⁹³). 레트로 메이크업은 역사적

190) Jean Baudrillard, op. cit., p. 88.

191) Cerda Bexbaum (1996), *Icons of Fashion*, NewYork: Prestel, p. 166.

192) 하미희, op. cit., p. 35.

내용의 ‘재현’이 아니라 ‘과거성’을 이미지의 차용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과거의 유형적인 함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¹⁹⁴⁾.

톨민(Stephen Edelston Toulmin)은 “물리학의 모든 주요 발견들의 근본은 새로운 재현 기법과 추론을 연역해 내는 테크닉의 발견이다”.라고 ‘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⁹⁵⁾. 재현의 문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과학과 예술 사이의 상호작용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¹⁹⁶⁾.

레트로의 개념은 하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으로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에게 익숙한 선행양식,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이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 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재의 유행 스타일로 재창조 되는 것이다¹⁹⁷⁾. 레트로 메이크업은 시대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며 현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단순히 과거에 유행한 메이크업 스타일의 재현을 뜻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응용하거나 새롭게 변화시켜 표현한 메이크업도 포함된다¹⁹⁸⁾. 레트로 경향으로 표현된 메이크업은 내추럴한 메이크업 보다는 인위적이고 화려한 메이크업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메이크업은 과거 반문화 요소들의 의미는 제거되고 절충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여러 시대의 양식을 혼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결부시키고 이미지를 부여한 새로운 형식의 ‘혼

193) Jean Baudrillard, op. cit., p. 88.

194) RoyBoyne, 김보현, 신명아 공역 (1992),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서울: 한신문화사, p. 7.

195) Stephen Toulmin (1953), *The philosophy of Science*, London: Hutchinson, p. 34. 홍성욱 (2008),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37. 재인용.

196) Bruce Clarke and Linda Henderson (2002), *From Energy to Information: Represent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 and Literature*,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45-173.

197) Herbert J. Gans, 이은호 역 (1996),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서울: 현대미학사, p. 37.

198) 이경은, op. cit., p. 136.

성모방' 현상의 특징을 지니면서 21세기에 새롭게 재등장하게 된다¹⁹⁹⁾. 예를 들면, 골드(gold)의 이미지는 에스닉 메이크업과 결합하면서 고급함에서 저급함까지로 확대되었고, 기본 컬러가 가지고 있는 컬러 고유 이미지인 고급스러움도 하이브리드 현상에서는 전혀 다른 저급한 이미지로 변형될 수 있다²⁰⁰⁾. 시·공간 해체 요소의 메이크업은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들에게 익숙한 선행양식 60년대 아이 메이크업 요소를 차용하여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요소들과의 혼성을 노리는 시간적 요소의 메이크업이다.

<그림 30>은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가까운 과거의 시대적인 메이크업으로 1960년대 재클린의 모습을 재현한 클래식과 모던한 이미지와 과장되고 강렬한 아이메이크업과 풍성한 인조속눈썹을 이용하여, 부풀린 헤어와 컬러로 과거의 이미지를 현대에 혼합하여 60년대 재클린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얼굴에 수직적 시간 개념인 과거와 현재, 고전과 현대적 이미지를 함께 표현하여 시간을 초월한 해체와 다양성을 혼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감각이 공존하는 메이크업이 나타나서 더욱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그림 31>에서 보여주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메이크업은 폐일한 느낌의 하드 메트한 두껍고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고 있다. 과장되고 강렬한 색상의 눈화장, 두꺼운 형태의 여성스러운 눈썹과 치켜 올라간 아이라인, 풍성한 인조 속눈썹 등 공들여 눈, 코, 입술의 클래식한 화장을 하고 있다. 과거의 익숙한 요소의 특징을 통하여 1960년대 이미지를 인용하여, 현대에 맞게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하였다.

199) 하미희, op. cit., p. 35.

200) Jemma Kidd (2009), *Jemma Kidd Make-up Masterclass*,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86-87.



< 그림 30 >

Christian Dior III, 2008 F/W Collection
(www.vogue.co.kr)



< 그림 31 >

Christian Dior IV, 2010 S/S Collection
(www.style.com)

(2) 현재와 미래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는 퓨처리즘(Futurism Look)²⁰¹⁾을 들 수 있다. 미래는 언제나 현재의 연장 선상에서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 역시 현재와 상상적인 연장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퓨처리즘은 미래적인 감각이 풍부한 미래를 소재로 한 디자인으로, 20세기 초반 경향과 60년대의 스페이스 룩(space look) 그리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2000년대에 나타났던 퓨처리즘을 지칭한다²⁰²⁾.

퓨처리즘은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는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패턴의 경향이 두드러진 형태였다. 그리고 미래주의 회화의 발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옵(optical) 아트와 키네틱(kinetic) 아트의 영향으로 옵아트 패션과 키네틱 패션이 등장하였다. 미래 지향적 메이크업을 대표하는 컬러는 실버, 골드, 네온 컬러 등으로 90년대 이후 자주 등장하였는데 메탈 색상과 흰색이나 검정색, 다크 블루 등 미래적이고 테크놀로지적인 감각을 나타내

201) 퓨처리즘(Futurism) : 미래파. 미래주의.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예술의 새 운동. 동적이면서도 기계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문학·회화 등 많은 분야에 영향. 미래파 지향주의. 가까운 미래를 묘사한 패션.

202) Cerda Bexbaum (1996),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p. 166.

는 색상이 주로 사용되고 기하학적인 프린트와 고풍택으로 화려하게 배합한 색채로 테크노 감각을 강조하였다²⁰³⁾.

미래 내추럴 메이크업은 디자이너들이 제한하는 21세기 경향으로 패션 쇼 현장과 일반인들을 가장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메이크업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²⁰⁴⁾. 미래 익스트림과 판타스틱 익스트림은 메이크업 트렌드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의 이벤트성 쇼 현장에서 줄거리를 가지고 공연처럼 나타나고 있다²⁰⁵⁾. 현재와 미래의 메이크업은 사이버 테크노적 이미지, 메탈릭한 소재 외에 신소재, 무채색이나 강렬한 원색,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 등을 그 표현 특징으로 하며, 일반의 유행을 앞선 독창적이고 독특한 메이크업이나 대중성을 무시하고 실험적인 요소가 강한 메이크업 등을 말한다. 인공미를 부여하여 기하학적이고, 우주를 테마로 하는 펄을 이용한 메탈릭 질감과 색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무채색 계열이나 강렬한 원색, 미래지향적인 차가운 계열의 펄이나 글리터(glitter)등을 사용하여 강한 질감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²⁰⁶⁾.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그림 32)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공간 의 해체 요소의 메이크업은 인공미를 부여하여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 등을 표현하고, 미래 지향적인 선을 통한 메탈과 광택의 색상을 사용하여 대중성을 무시하고 실험적인 요소가 강한 메이크업이다.

<그림 33>은 와이어스(The Warriors)의 메이크업 작품으로 미래 지향적인 차가운 계열의 펄이나 글리터 등을 사용하여 강한 질감 표현을 하고, 사이버 테크노적 이미지, 메탈릭한 소재 외에 신소재, 무채색이나 강렬한 원색의 우주를 테마로 하는 펄을 이용한 메탈릭 질감과 색상이 특징적으로

203) Ibid., p. 214.

204) Quant Mary (1996), *Ultimate Makeup & Beauty*, London: Dorling Kindersley, p. 14.

205) 방기정, 김경희 (2010),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18권, 제 1호, p. 74.

206) 이경은, *op. cit.*, p. 145.

나타나고 있다. 현대적 이미지를 함께 표현하여 시간을 초월한 해체와 다양성을 혼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패션 감각이 공존하는 메이크업이 나타나서 더욱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 그림 32 >

Jean Paul Gaultier VI, 2009 S/S Collection
(www.style.com)



< 그림 33 >

The Warriors, VOGUE, 2010년 2월호
(www.vogue.co.kr)

2.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통한 절충과 혼합성이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절충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등장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대두된 현상으로 그 특성을 하나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하나의 간단한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²⁰⁷⁾.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의 세계와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사고방식으로, 좁은 의미로는 예술 문화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20세기 후반의 시대정신이나 정신구조 그리고 세계관과 관련된 매우 폭넓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⁰⁸⁾.

207) 김옥동 (2004), 포스트 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p. 머리말.

어떤 이론가들은 '포스트'라는 접두어를 가진 용어가 그리하듯이 부정적 의미의 안티(Anti)나 반(反) 즉,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이나 반작용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파악하는가 하면 어떤 이론가들은 가깝게는 모더니즘 좀 더 멀리는 낭만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모더니즘 시대의 예술가들은 예술, 그 자체로서 혁명인 것이며 어떠한 혁명보다도 더 근원적인 혁명이어야 한다²⁰⁹⁾고 주장하였다. 예술적 혁명은 아방가르드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아방가르드는 소속부대를 엄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초에서 활동하는 분견대나 별동대를 의미하는 군사 용어지만 지적, 기술적, 예술적 영역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극단적인 실험집단이나 운동 내지는 집단을 나타내는 공간적 비유로 사용된다²¹⁰⁾.

포스트 모더니즘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결합한 20세기 초에 일어난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의 맥락에서 보려는 이론가들이 있는가 반면, 이와는 정반대로 신보수주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이론가들도 있다. C. 배리 채보트(Charles Barry)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텅 빈 기록판”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²¹¹⁾. 제임슨(F. Jameson)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특성을 혼성 모방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양식을 모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순수한 창의성의 문화라기보다는 인용적 상호텍스트적 문화이다²¹²⁾.

서양에서의 동양 문화를 섞는 혼합문화의 시도는 누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개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단편화된 시각으로 인지하여 복합, 혼합시키는 개념으로 하이브리드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²¹³⁾

208) 권택영 (1990),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 14.

209) 이병창 (2001), 이야기로 풀어보는 20세기 사상가, 서울: 천지, p. 78.

210) M. Calinescu, 이영욱 외 3역 (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시각과 언어, p. 127.

211) 김옥동, op. cit., p. 22.

212) John Storey, op. cit., pp. 242-244.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특징은 서로 다른 것을 적절히 조화시켜 이러한 모든 현상을 복합, 혼합시켜 믹스하는 것으로 혼합과 절충성을 보여준다. 제임스 레버(James Laver)가 “복식은 육체의 의복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신의 의복이며 그 시대나 사회의 생활 감정의 표현 내지는 상징으로서 존재하며, 사회적·문화적 경향의 거울로 문화현상의 뉘앙스를 반영한다”²¹⁴⁾ 라고 했듯이 메이크업 각 시대의 문화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의 민속적 요소는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형성되는 메이크업이다.

에스닉(ethnic)은 고유한 민속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갖게된 정보시대의 패션을 국제화의 모습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이 서양 복식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공유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를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민속적 요소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할 수 있다²¹⁵⁾.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충성은 인간의 내면에 깔려있는 자유분방한 표현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풍자(pardy)나 혼성모방(pastiche)의 기법을 반영하며, 형식과 규칙을 무시, 기괴하고 추한 것을 반영한 낭만주의²¹⁶⁾ 또한 과도한 장식이나 이국적 요소의 수용을 통해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에서 민속적 요소의 혼합과 다원성,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과학 기술의 발달과 유희와 테크놀로지의 특징적인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탈 장르화 특징에서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을 민속적 요소와 과학 기술적 요소 두 가지로 유형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3) Lee, C. Susan, op. cit., pp. 5-10.

214) Amy de la Haye (1996), *The Cutting Edge: 50 Years of British Fashion, 1947-1997* (Hardcover), USA: Penguin. p. 11, 재인용.

215) 이윤정, op. cit., pp. 91-100.

216) 이경아, 전해정 (2004),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1)”, 한국복식학회지, 제 54권, 1호, p. 143.

1) 민속적 요소의 혼합

21세기를 대표하는 다문화주의를 상징하는 문화는 특정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산물이고 이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간의 대화에서 생성되면 형성 및 재형성의 장에서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¹⁷⁾. 디지털 시대에 과학 기술적 요소의 발달은 각 문화간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각 민족의 고유문화가 상호작용을 하여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고 그 경계 또한 모호해 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더 강화하려는 부분도 있다. 현대인들은 대량생산에 의한 대중문화에 대해 동질화, 획일화, 집중화에 대하여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과학 문명의 급진적인 발달은 많은 혜택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매우 회의적이고 불안해 하고 있다²¹⁸⁾.

민속적 요소의 하이브리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여 서양복식의 인위적, 건축적 형태에서 벗어나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수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²¹⁹⁾. 민속적 요소의 혼합은 에스닉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에스닉(ethnic)은 ‘인종의’, ‘민족의’, ‘민족 특유의’²²⁰⁾라는 뜻을 가지며, 서양에서는 그들 기독교 문화 외에 다른 모든 종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을 말하며, 각 민족고유 의복이나 문양, 장식, 액세서리에서 영감을 의미한다. 세계 전역의 고유한 민속 복식을 절충하는 다원적인 태도는 국제성 속의 지역성과

217) 장민한, 미학대계간행회 편자 (2009), 현대의 예술과 미학: 제 3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267.

218) 이봉덕, op. cit., p. 69.

219) 김선영, 임영자, op. cit., p. 158.

220)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i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p. 410.

전통성을 강조²²¹⁾하고 있다. 21세기에는 다문화주의의 반영으로 다양한 지역과 문화가 혼합된 새로운 민속풍으로 변화하여 나타난다.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 및 서양의 미적 기준에 염증을 느끼고, 그 동안 소외시 되어 온 동양국가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모티브를 차용해 접목시키는 이국적 경향으로 차별적 신비적 이미지를 풍긴다²²²⁾.

이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적 양면 가치를 증대시켜 민족성에 대한 양면가치는 무경계적인 혼성주의로 나타나며, 타 문화권의 이미지를 도입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끼리의 복합적인 이미지 차용 등 전통적·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을 뛰어 넘는 다국적 혼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속적 요소의 혼합은 유럽 민족 외에 세계 여러나라 민족 고유의 복장을 한 것을 가리킨다. 민속적 요소의 혼합은 터키나 인도, 일본, 중국, 아프리카의 민속 의상, 유럽, 아메리카 인디언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이 메이크업에 나타나고 있으며, 21세기의 재등장한 스타일은 다양한 분위기가 믹스, 매치되어 더욱 풍부한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다²²³⁾.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트렌드는 신비한 동양의 모방에서 발전되어, 여러 민족적 컬러들을 다양하게 혼합시킨 민족 융합적인 창조의 결과로 민족적으로 근원을 명확하게 갖고 있거나 민족 융합적인 새로운 코드는 그 자체가 글로벌이 되어 가고 있다²²⁴⁾.

이처럼,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민속적 요소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민속적 요소의 혼합과 다원성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비서구화와 요소와 지역화 요소 두 가지로 유형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21) 김지연, 이경희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한국의류학회지, 제 6권, 제 1호, pp. 9-16.

222) 김선영, 임영자, op. cit., p. 38.

223) 하미희, op. cit., p. 35.

224) Quant Mary, op. cit., p. 16.

(1) 비 서구화

현대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문화간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각 민족의 고유 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²²⁵⁾. 현대인들은 싫증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신비스럽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는 비 서구적이며 다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 서구란 미국과 유럽 이외의 세계 여러나라의 민족 의상과 민족 고유의 특성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이는 비 기독교 문화권의 민족을 가리키면서 기독교권 국가라도 그 지역 토착 원주민들의 전통복식까지 포함한다. 전통적인 양식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그 동안 무가치하고 소외되었던 미적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서구 중심적이었던 획일적 미의식을 부정하여 다양한 미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비 서구화 사회에서의 얼굴과 체형장식은 서양문명 사회의 일시적이 화장과 비교해서 보다 드라마틱하고 지속성이 강하다. 이러한 비 서양문화의 메이크업이 서양사회에서는 영구적인 상처로 그 밖의 장식은 비문명으로 보여졌다²²⁶⁾. 메이크업의 비 서구화 스타일은 비 서구 지역의 고대 화장법이나 인종적 특성을 묘사한 메이크업을 말한다.

비 서구화 요소에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젠스타일(Zen Style)로 나눌 수 있다. 이전의 오리엔트는 극동이라 불리고,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를 중동,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일대를 극동 또는 원동이라 불렀으며²²⁷⁾, 오늘날에는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 지역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과거 동양의 이미지를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롭게 표현하거나 전통의 라인을 현대적 소재와 병합, 전통문양의 재해석, 현대적으로 응용한 연출방법, 전통문화 이미지의

225) 이봉덕, op. cit., p. 69.

226) 이경은, op. cit., p. 140.

227) 이재성 (1997),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서울: 민족사, p. 15.

사실적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하이브리드가 나타나고 있다²²⁸⁾. 이러한 서양의 시각은 20세기가 시작하면서 동양이 소개되면서 상류층의 동양 취향이 비문명적인 것이 아닌, 고급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에스닉 메이크업 또한 패션의 영향으로 메이크업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다. 오리엔탈풍의 취향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 현상과 맞물려 동양을 종속적 비하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미적 표현의 기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뉴 오리엔탈리즘(new orientalism)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²²⁹⁾.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의 선의 연구(善 — 研究, Zen no Kenkyu)에서 젠은 선(禪)의 동양적 이미지들이 서양으로 건너가 ‘젠’이란 이름으로 되돌아 온 것인데, 서구의 모더니즘에서 발원한 미니멀리즘이 90년대 후반 동양의 선 철학과 접점을 이루면서 밀레니엄의 새로운 화두인 젠이 탄생하게 되었다²³⁰⁾. 젠의 표현은 동양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양적 느낌의 유형과 색상을 사용하는데, 붉은 색상으로 대표되는 동양풍의 메이크업이 주변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메이크업은 하얀 피부 표현과 함께 검정색의 눈썹과 붉은색의 입술, 눈, 볼이 구조를 이루게 하는 경향이다²³¹⁾. 구체적인 표현을 설명하면 동양 여성처럼 작게 오므린 듯한 형태의 입술화장, 속눈썹을 표현한 과장된 선들은 동양적 신비감을 표현하여 독특한 에스닉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짙은 눈썹과 눈꼬리를 길게 뻗 아이라인 등 에스닉하면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²³²⁾. 각 민족의 다양하고 강렬한 색상과 민족적 특징을 21세기의 숙련된 테크닉으로 얼굴에

228) 하미희, op. cit., pp. 48-49.

229) Scott Barnes, op. cit., pp. 10-20.

230) 하미희, op. cit., pp. 49-50.

231) Joanne Richmond, op. cit., p. 29.

232) 서명희 (2003), “1990년대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룩 메이크업 영향”, 인체예술학회지, 제 4권, 제 2호, p. 293.

표현함으로써 특히 동양적인 여성 분위기의 이국적 느낌을 세련미와 신비스러움²³³⁾, 그리고 섹시한 여성미로 재창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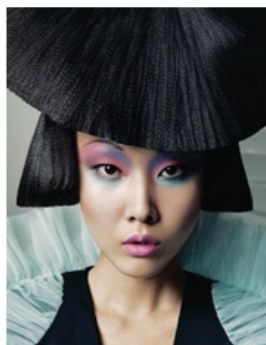
<그림 34>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작품으로 적은 형태의 입술과 검붉은 색의 색상을 통해 선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눈화장 부분의 그라데이션을 통해 동양적인 이미지의 색상을 사용하여, 서양인이 생각하는 동양적 이미지를 충실하게 재현하였다. 하얀 얼굴의 베이스 메이크업 표현과 검은색의 눈썹과 검붉은 색의 입술로 경극 화장의 컬러 베이스가 이용되어, 일본과 중국 문화의 혼합적인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

<그림 35>의 플라워 밤(Flower Bomb)은 각 민족의 다양하고 강렬한 색상과 민족적 특징을 21세기의 숙련된 테크닉으로 얼굴에 표현함으로써 특히 동양적인 여성 분위기의 이국적 느낌을 세련미와 신비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일본 가부키 메이크업 문화를 모방하여 공간을 초월할 듯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 그림 34 >

John Galliano IV, 2007 F/W Collection
(www.vogue.co.kr)



< 그림 35 >

Flower Bomb Part.1 VOGUE, 2010 5월호
(www.vogue.co.kr)

233) 이승민 (2003), “페미니즘 시각에서 바라본 메이크업 연구”, 인체예술학회지, 제 4권, 제 1호, p. 283.

(2) 지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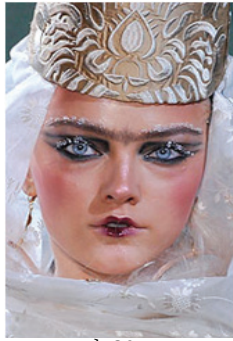
지구 곳곳의 고유한 민속 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갖게 된 정보시대의 패션은 서구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²³⁴⁾.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형성되는 민족적 요소의 메이크업이다²³⁵⁾. 1980~199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 온 민속복식 패러디는 2000년대 들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00년 이후 컬렉션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복식은 환상적인 에스닉 룩을 탄생시켰다. 또한 러시아와 모로코, 알프스 지방의 민속적 요소가 나타나는 에스닉풍이 컬렉션을 장식하였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그림 36)의 메이크업에서 인종적 특성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여, 중앙 아시아의 몽고인들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볼이 발그레하게 표현하여 실내에서 보아도 추워 보이는 특유의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몽골리안 뷰티로써 추워 보이는 것을 강조한 메이크업이다. 미간 사이의 눈썹을 연결하여 일자에 가까운 느낌의 눈썹 표현과 정반대의 지역인 러시아 추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눈썹위에 속눈썹 부분에 하얀색 눈을 형상화한 표현과 추워 보이는 것을 강조하여 볼을 발그레하게 표현하였다. 두 개의 눈썹 표현을 하면서 눈썹 부분에도 눈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어 민족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추운 날씨를 나타내는 광택이 나는 피부톤 연출과 붉은 볼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그림 37>의 메이크업은 중동과 인도풍의 화려한 사리(sari)를 연상시킨다. 뿌옇게 연출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피부와 볼 부분의 면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통해 중동풍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서양인의 폐일한 피부 표현과 움푹 패

234) 주명희 (1992), “크리스티앙 라크르와의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 16권, 제 1호, p. 124.

235) 이윤정, op. cit., pp. 91-100.

인 눈화장을 통해서 중동 인도풍의 이미지와 서양인의 느낌을 혼합하여 표현하고 있다.



< 그림 36 >

John Galliano V, 2009 F/W Collection
(www.vogue.co.kr)



< 그림 37 >

John Galliano VI, 2009 F/W Collection
(www.vogue.co.kr)

2) 과학기술의 발달과 절충

디지털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 전반적으로 확산된 다원주의의 경향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중의 감각을 자극하고 이를 라이프스타일에 반영시킴으로서 다양한 감성의 디자인을 창출하였다. 또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²³⁶⁾. 21세기에는 과학적 방법이라 불리는 탐구 방식들이 자연에 대해 냉정하고 무심하며 주체와 객체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비인격적(impersonal)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이란 객관화되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 대상이다²³⁷⁾. 윌슨(Edward O. Wilson)은 과학과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융합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의

236) 박 진, op. cit., p. 5.

237) Morris Goran (1940), The Literati Revolt Against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7. p. 379. 홍성욱 (2008),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3. 재인용.

저서 ‘통섭’은 학문들 사이의 경계를 가로 지르고 분자들이 원류를 찾아서 이를 하나로 꿰는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²³⁸⁾. 과학과 미디어의 관계는 상위에서 하위로 정보가 흐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진 독자적인 시스템 사이의 상호 작용이 되며, 이럴 때 다른 시스템들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²³⁹⁾. 대중매체의 특징은 자유로운 감정의 발산과 해방감을 위해 기존 장르나 개념을 변형, 과정, 이질적 요소의 도입 및 기존의 위치에서 이탈시켜 엉뚱한 곳에 배치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의 미를 추구한다²⁴⁰⁾. 이는 기존의 상반된 개념의 엄격한 구분에서 해방되어 다양성을 수용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특징이자 표현의 한계를 초월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동양의 유머적 성향을 보인다²⁴¹⁾.

서로 다른 전공의 벽을 깨고 융합으로 얻어지는 창의적인 결과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문화라는 점을 받아 들여야 한다²⁴²⁾. ‘과학의 예술가’인 마이켈슨(Albert Abraham Michelson)은 과학적 이해의 본질이 대상에서 경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같은 물리학자가 시인일 수 있다면 연구 대상이 불러 일으키는 충만감과 거의 존경에 가까운 느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²⁴³⁾.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징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화의 대중화를 통해 유희적 성향과 복합적인 절충성을 보여준다. 21세기 과학기술의 발달은 탈 장르화 특성에서

238) Edward O. Wilson (1999),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Alfred A. Knopf, p. 46.

239) Peter Weingart & P. Pansegrau (1999), “Reputation in Science and Prominence in the Media: The Goldhagen Debat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ume 8, pp. 8-10.

240) 박진, op. cit., pp. 4-5.

241) 변영희, 채금석, op. cit., pp. 13-29.

242) 박성봉, op. cit., p. 65.

243) Dorothy Michelson Livingston (1978), “Michelson, Artist in physics”, *Science Technology & Humanities*, Volume 1, pp. 187-192. 홍성욱 (2008),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3. 재인용.

기술주의적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과학문명의 발달을 바라보는 기술주의적인 낙관론은 고도화된 미래 사회를 바람직한 유토피아로 찬양하고, 그 미래 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현재를 소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른 장르의 코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하이브리드 장르로 진화해가는 경향을 띤다²⁴⁴⁾.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과 반대로 비관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웰빙,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 꾸미지 않은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는 동양 철학을 반영하여, 인위적인 것을 거부, 자연 그대로의 형태와 색채, 소재를 통해 순수한 이미지를 추구한다²⁴⁵⁾. 그리고 환경보존이나 사라져가는 인간성의 회복이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발전될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경계를 허물고 상호 교류하면서 자료와 인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예술가들은 과학과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고, 과학자들은 ‘아름다움’과 같은 미학의 언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과학과 예술은 과학자와 예술가라는 각각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인간의 활동이다. 과학과 예술은 상이한 훈련을 받고, 상이한 개념적·실질적 도구를 사용해서 세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한다²⁴⁶⁾. 예술의 결과물은 항상 ‘개인적인 것(personal entity)’으로 남아 있지만, 과학의 법칙은 ‘개인을 초월한 것(impersonal entity)’이다²⁴⁷⁾.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에서 대중매체의 발달은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로 표현의 한계를 초월한 다양한 대중 문화와의 혼합과 절충성을 보여준다.

244) Dorothy Michelson Livingston, op. cit., p. 125.

245) Bazaar, October, 2005, p. 344.

246) 홍성욱 (2008), op. cit., p. 39.

247) Victor F. Weisskopf (1979), “Art and Science”, American Scholar, Volume 48, pp. 473-485.
홍성욱 (2008),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3. 재인용.

디지털 시대에는 경계 공간의 확산과 더불어 과학과 기술 양쪽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공헌을 한 잡종적인 사람들의 부류가 형성 되었다.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같은 과학기술 학자는 근대이후 과학과 기술 모두가 비인간(nonhuman)을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담당했다고 하면서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 과학과 기술을 순수 연구를 하는 자연과학과 응용연구를 하는 공학으로 분리한다면,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이나 나노기술(nanotechnology)과 같은 ‘기술’(technology)은 과학에 포함시키기 힘들어진다고²⁴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현대인의 생활은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확대되고 현대 디자인에서 테크놀로지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디자인을 돕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디자인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예술과 디자인에서 미(美)를 결정하는 인자가 되었다²⁴⁹⁾. 디지털 시대의 가장 으뜸이 되는 사회적 이슈는 바로 웰빙(Well-being)이다. 지구 환경 파괴에서 오는 위기감에서 시작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재나 아이템이 개발되고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메이크업에서 웰빙에 이어진 웰 루킹(Well-looking) 이라는 개념이 도입 되었는데, 단순히 단점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장 건강하게 보이게 만드는 메이크업을 말한다²⁵⁰⁾.

이처럼,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과학 기술적 요소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성과 과학 기술의 발달, 유희와 테크놀로지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자연적 요소와 유희적 요소 두 가지로 유형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48) Bruno Latour, op. cit., pp. 247-260.

249) Rutsky (1999), *High Techne*, Minnesota press, p. 158.

250) Scott Barnes, op. cit., pp. 10-20.

(1) 자연과 테크놀로지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인위성을 배제하고 자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으로 비움으로써 채울 수 있는 기능형태를 지니고, 결국은 순연한 질서에 귀의하려는 도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반영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꾸미지 않은 듯한 순수하고 편안해 보이는 형태’의 자연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자연을 동경하고 회귀하고자 하는 심리가 표현된 것이다²⁵¹⁾.

내추럴 이미지는 자연스러움을 표현한 디자인들로 에콜로지, 원시 등의 분위기가 여기에 속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활동적이며 생기에 넘치는 이미지가 연출되게 색상의 이미지로는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유사색의 조화 및 동일색의 조화를 통한 이미지이다. 내추럴 메이크업(Natural Make-up)은 가공되지 않는 자연미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됨으로서 자연스러운 멋을 내기 위한 전통적 감각의 신선한 여성미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²⁵²⁾. 내추럴 메이크업은 과학적 접근시도, 첨단 테크노와 퓨전 등 디지털 시대라 불리는 첨단 테크노 시대로 사이버틱하고 테크노적인 메이크업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기계 문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마음이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 내추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⁵³⁾.

21세기에는 내추럴 메이크업, 누드(nude) 메이크업, 창백하고 차가워 보이는 페일 메이크업 스타일이 함께 공존하였고, 다양한 색상을 약간 가미해 개성있게 표현된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또한 베이지색, 상아색, 갈색을 이용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은 1960년대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 꾸준히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재등장하게 되었다²⁵⁴⁾. 자연과의 절충 이

251) Ibid.,

252) 이경은, op. cit., p. 131.

253) 향장 (2002), 서울: 아모레, 2002. 2.

미지의 메이크업은 부드러운, 밝은 이라는 단어로 집약되어 여성들의 의식이 딱딱하고 긴장 상태보다는 자유롭고 여유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태도로 변모했다²⁵⁵).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기본으로 점점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예술의 외적 형식은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예술에 도입된 다양한 매체들은 예술에 새로운 장르들을 탄생시키면서 현대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의 역할을 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컴퓨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대중화된 컴퓨터는 인터넷의 글로벌화와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개념미술, 설치미술 등 타 매체, 장르와 결합하여 ‘컴퓨터 아트(Computer Art)²⁵⁶’라는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²⁵⁷).

<그림 38>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메이크업으로 자연의 진화를 통해 기술에 의한 미래에는 파충류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과장스러운 헤어와 조형적으로 파충류를 형상화하였고, 얼굴에 인조왁스나 인조피부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그 위에 색조를 넣지 않은 피부표현을 통해서 자연과 과학기술적 요소의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그림 39>는 다크 뮤테이션(Dark Mutation)의 미래의 파충류가 진화한 것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괴기스러운 모습과 함께 과학의 발전을 통한 광택 나는 펠로 피부 표현과 파충류의 피부와 인간의 몸에 있는 가죽과 아이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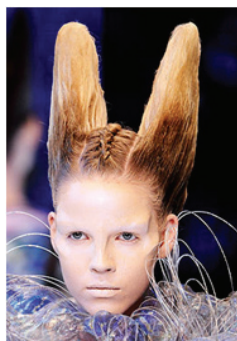
254) Scott Barnes, op. cit., pp. 10-20.

255) 한명숙, op. cit., pp. 21-22.

256) 컴퓨터 아트 (Computer Art) : 컴퓨터의 기능을 음향, 그래픽, 영상작품 등에 이용하는 예술. 1960년대에 이르러 프로터가 보급됨에 따라 미술가들이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에 응용, 음극선관을 사용한 화상표시의 보급에 힘입어 채색화면을 보면서 수정, 가필이 가능해져 아날로그적 감성표현이 진행.

257) 이민정, op. cit., pp. 46-59.

이크업의 색을 통일하여 미래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여전사로서의 강인한 이미지를 위해서 아이메이크업을 강렬한 핑을 이용하여 스포키 메이크업을 하였고, 헤어 컬러를 통해 변화를 주었다.



< 그림 38 >

Alexander McQueen III, 2010 S/S Collection
(www.vogue.co.kr)



< 그림 39 >

Dark Mutation VOGUE, 2009년 9월호,
(www.vogue.co.kr)

(2) 유희와 테크놀로지

디지털 시대에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유희를 그 자체로써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미의 요소와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퍼놀로지(funology)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켰다²⁵⁸⁾. 유희와의 결합은 유희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어린 시절의 순진 무구함을 나타내는 유아기적 요소와 오브제의 사용, 위치의 전환 등이 특징이다. 퍼놀로지에 의한 유희성은 재미와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환상을 표현하는 유아적 스타일이나 큐트한 컬러 또는 환상적인 컬러 레인지, 대담한 형태와 함께 우주적이고 만화적인 캐릭터의 등장, 팝 아트적인 요소가 가미된 디자인이나 그래피티(graffiti) 아트가 주요한 도구, 시각적 재미, 촉각적 즐거움, 사용상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소재가

258) 퍼놀로지 (fun+ technology), 재미와 기술의 결합, 위키백과사전, (검색일. 2010. 10. 25)
,<http://ko.wikipedia.org/wiki>

활용되기도 한다²⁵⁹⁾.

디지털에 의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급진적인 발전은 많은 혜택과 편리함 이면에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게 되었다. 풍자나 해학적인 유희성은 감상적인 것으로 현대 생활의 기계주의에 대해서 작용한다. 유희성은 패러디(parody)와 풍자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유치함과 충격적 요소, 왜곡이라는 수단으로 나타난다²⁶⁰⁾. 그리고, 유희성은 키치의 낭만주의적 경향인 팝아트로 표현하는데, 1960년대 등장한 팝 아트는 저급예술, 혹은 대중문화의 고급예술의 진영으로의 진입을 알린 미학적 양식으로 전유된 키치의 영향력이나 의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실이다. 키치의 불행, 반복, 권태로서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키치의 낭만주의적 경향은 주된 매력이다²⁶¹⁾. 퍼블로지 디자인은 유머러스한 그래픽이나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써 첨단 기술에 의한 효율성의 가치추구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즐거움도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⁶²⁾. 유희적 요소는 정형화된 메이크업과는 달리 반 미화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미적 감수성의 하나로 인식하기도 한다. 유희적 메이크업이 장난스러운 회화적 기법을 도입, 얼굴의 조형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흥미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탈 장르화 특성에서 대중매체의 발달은 진지함속의 만만한 유머적 표현을 다양한 대중 문화와의 혼합과 절충성으로 보여 준다.

259) 김지희, 유태순 (2007),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 문화 감성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57권, 제 8호, p. 7.

260) 이경은, op. cit., p. 69.

261) 양효실, 미학대계간행회 편자 (2009), 현대의 예술과 미학: 제3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69-382.

262) 방기정, 김경희, op. cit., p. 74.

샤넬(Chanel)(그림 40)의 메이크업에서 보면 얼굴의 조형 요소를 무시하고, 장난스러운 회화적 기법을 도입하여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한다. 만화 캐릭터가 튀어 나온듯한 과장스러운 헤어와 커다란 리본헤어 장식으로 조형적으로 재미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깨끗하고 맑은 베이스 메이크업과 얇게 표현한 입술 모양으로 귀엽고 재미있는 모습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1>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메이크업으로 팝 아트적이고 큐트하고 선명한 컬러와 과장된 눈 화장과 볼 부분의 볼터치를 이용하여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과장된 헤어 연출과 함께 인형같은 재미의 혼합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마치 인형을 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42>은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작품으로 과장된 헤어와 볼 부분 전체를 붉은색으로 눈밑과 볼 부분의 연장하여 과장된 모습과 핑크 스타일의 인형 캐릭터의 형상화 통해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헤어쇼(Hair Show)(그림 43)의 메이크업에서 보면 강렬한 헤어 컬러를 바느질하는 모습으로 눈 부분을 바느질하기 위한 구멍을 형상화 한 듯 보여주고 있다. 직접 바느질을 통해 인형을 만드는 듯한 메이크업을 하였고, 차가운 베이스 메이크업의 색과 헤어의 칼라를 통해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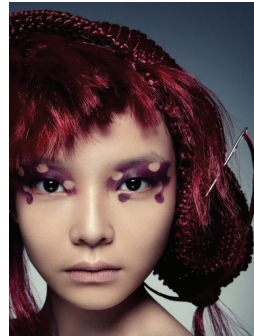
< 그림 40 >
Chanel V, 2010 S/S Collection
(www.style.com)



< 그림 41 >
John Galliano VII, 2008 S/S Collection
(www.vogue.co.kr)



< 그림 42 >
Louis Vuitton I, 2010 S/S Collection
www.style.com



< 그림 43 >
Hair Show, VOGUE, 2009년 9월호
www.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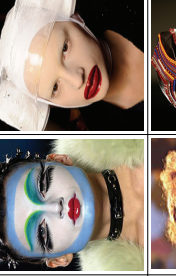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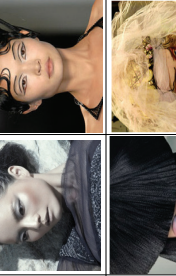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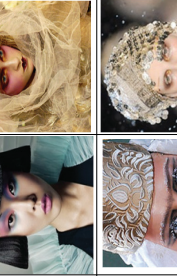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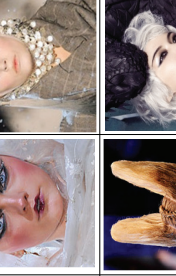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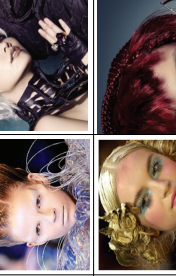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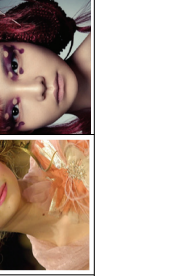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탈 장르화 특성을 중심으로 경계의 해체, 대중화의 혼합과 절충성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계층의 해체, 시·공간의 혼재, 민속적 요소, 과학기술의 발달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또한, 탈 장르화 특징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명하면 <표 3>과 같다.

< 표 2 > 하이브리드 탈 장르화 특성의 유형별 분류

		유형	특 성	표현방법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	해체주의	하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법칙 없는 무질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무형식 · 우아미를 넘어 일탈로 이어지는 과격적 경향 · 절제, 생략, 등 동양미학의 역설적 경향 · 완성된 구성 의도적으로 파괴, 미완성, 변형의 활용 · 부조화의 아름다움 실현, 반미적 추의 표현 · 펑크, 히피 다양한 이미지 조합, 해체 통한 표현 	하위문화 (subculture) 파괴, 변형 미완성 키치
		성 역할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관계에 의한 다양한 상호보존적 존재 인식 ·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인용, 대립을 통한 해체 · 탈 현상, 텍스트의 분해와 재구성을 통한 창조 · 남, 녀 구분짓는 이분법적 요소 	상호텍스트 (intertext) 상호보존적 재구성 통한 창조
		시·공간 불연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차이에 시간 개념 도입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 · 시대별 양식을 혼용하거나 재조명, 양식의 대비 · 역사의 전통성 요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 · 절충적 방안으로 새로움 창출 · 패러디 과정을 통한 새로운 표현성 · 혼성모방을 통한 불연속적인 이미지 조합 	차연 차용 복고(retro) 패러디 혼성모방
	포스트모더니즘	민속적 요소의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새로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새로움에 대한 인식, 인용을 통해서 이루어짐. · 다양한 집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 기독교 문화 외의 다른 모든 종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 · 다문화 반영,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혼합, 이미지 차용 · 무경계적인 다국적 혼성주의, 타문화권의 이미지 도입 	전통적 비서구화(ethnic) 복고(retro) 인용 이미지 차용
		다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 소외된 것들을 통해 확장된 표현세계 · 규범해체, 다원주의 사고, 문화차이, 다양성 다층성 · 절충적 혼성모방의 경향, 인간 존중의 경향 	대중적 혼성모방 타문화권의 다양성
	대중매체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장르 코드 적극적 수용, 하이브리드 장르로 진화 · 친환경 선호, 소박한 자연스러움 동양철학 반영 · 자연형태, 색채, 소재를 통한 순수한 이미지 추구 · 탈 경계를 통한 상호교류, 자료와 인식 공유 · 표현한계 초월한 다양한 대중 문화와의 혼합과 절충 	기능의 혼합 탈경계 상호교류 상호텍스트 (intertext)
		유희와 테크놀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놀이의 경계 모호 · 상위, 하위문화의 경계 구분 짓는 절대 이념 붕괴 · 재미(fun)+기술(technology)=, 퍼블로지(funology)탄생 · 현실도피, 키치의 낭만주의적 경향 · 어린 순진무구함, 유아기적 요소, 오브제사용, 위치 전환 · 큐트한 컬러, 대담한 형태, 만화적 캐릭터, 팝아트적 요소 	유머의 선호 하위문화 (subculture) 팝아트요소 키치, 오브제 다양한 색상, 형태

< 표 3 >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 메이크업

유형	형태	특성	특징	표현 방법	그림
탈 장르화 특성의 체계	대중화 의 질종과 혼합성	선경, 퇴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위 문화의 이분법적 논리거부 육체적 갈망으로 자극적 노출과 소극적 은폐 완전한 것 저항하는 정신적 갈망 표현 자극적, 선정적, 이중적 예쁨을 버리고, 저속한 외모로 표현하는 키치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한 마스크라등을 이용하여 착한 여자의 이미지 파괴 피부톤을 페일 톤으로 통일시켜 퇴색한 듯 빛바랜 킬러 표현 창백한 얼굴과 경계가 보이지 않는 완벽한 피부표현 눈화장이 번진듯 하면서도 과장되지 않게 스모키아이어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류층의 화장을 명명하는 것으로 시작 하이패션에서 차용하여 메이크업 트렌드로 자리잡음 파격의미, 그로테스크적 감성의 적용 고전적인 미의식의 변화로 인한 반미학적 추의 미추구 예쁨을 버리고 공격적이고 거칠고 저속한 외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위한 색다른 체험 이목구비의 생략을 통한 변형과 색의 제한, 불필요한 색의 과다적용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자연스러운 유도 충격적 시각효과 추구, 그리고 조각상처럼 각진 그늘표현 헤어와 메이크업을 각각 다르게 연출하여 다양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면적 메이크업을 오브제, 플라주 이용 입체적 표현 몽타주, 페리디, 아이러니 등 다양한 예술적 경험 제공 인정받기 원하는 과시적 심리표현 통한 맥시멀리즘 이미지 인체의 왜곡, 얼굴과장표현, 다원주의적 해석의 가능성 에끼지 않은 것들과의 조합, 의외성의 테페이즈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과 자극적이며 저속한 색채 사용 지속적이고 통속적인 키치의 이미지 사물을 통한 사회적 지위, 꿈, 환상, 신화, 내면세계의 표출 뉴히피적 메이크업으로 이질적 소재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의 경계를 허물어 시도 성의 혼돈을 통한 다양한 예술적 경험 제공 완전한 것 저항하는 정신적인 갈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티함과 우아함이 함께 느껴지는 가벼운 피부 표현 무척 끈끈하게 표현 했는데도 무심한 듯 보이게 표현 경계가 보이지 않는 블렌딩과 하이라이트 남성적인 눈매와 수염을 통한 정 의 은폐를 통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과 공간의 해체를 통한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유 완벽한 레트로 시대성을 강조하지 않고 내추럴에 절제된 고전 미가 있는 복합적인 레트로 양상 과거의 익숙한 요소의 인용을 통한 페리디 사용 과거요소에 대한 향수적 감성과 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기 패션코드와 21세기 코드가 혼합되어 재구성 대표적인 유명 스타의 포인트 스타일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 가까운 과거와의 결합을 통한 마틸린 민토, 그레이스켈리, 오드리헵번, 제클린, 마이클잭슨, 마돈나 등 메이크업 스타일의 재조명 공들여 눈, 코 입의 화장을 하고 클래식하고 지적인 이미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 미래이미지와 해체를 통한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 내포 공정과 귀족 스타일이 절제 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으로 헤어스타일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 고급스러운 장신구와 함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메탈, 골드, 실버등의 컬러를 사용 귀족풍우위를 느낄 수 있는 보라와 황금색 컬러 이용 현대적인 이미지의 메탈의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 눈, 코, 입 등의 부분화장에 충실하게 공을 들여 표현 황금색 컬러의 유행이 진행되면서 골드메탈이 유행트렌드로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서구화 지역의 민속적 요소의 혼합을 통한 표현 21세기의 컬렉션에서는 경극과 가부키의 혼합형태 디지털 기술과 동양적 가치관 심취로 인한 새로운 문화형성 전통적인 비서구화를 중심으로 과장되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가부키와 중국 의 경극화장의 혼합적인 형태로 표현 하얀색 피부표현과 검정과 붉은 컬러의 적절한 배합을 통한 절제된 표현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동양적인 전통적인 사상과 다양한 차용을 통한 혼합된 다원화된 형태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전통적 민속적인 에스닉에 고급화된 이미지가 포함된 에스닉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들의 전통적 민속적 요소들이 차용되어 다양하게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갈색 또는 브론즈 컬러 에스닉 표현 헤어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 듯한 이미지와 눈썹, 주근깨, 아이아인, 눈화장 등 부분화장으로 강조한 표현 기존의 에스닉 메이크업에 글로시함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적 요소의 발달로 인한 환경보존이나 사라져 가는 인간성 회복 심화 크기의 파괴와 변형으로 부적합한 요소들의 결합 강한 캐릭터 생성을 통한 이질적 소재들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위한 기본적 컬러로 갈색이나 브론즈 표현 자연화귀의 이미지를 통한 눈썹 또는 눈화장, 아이라인 등으로 부분화장 강조하여 표현 독특한 질감과 색채, 형태, 형식을 통한 부적합한 요소들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유목민의 일탈 욕구 충족 사용상 기능성을 통시에 만족시키는 소재와 재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화적인 캐릭터의사용으로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 제공 큐트한 컬러, 팜아트, 그라피티 아트 등 과학기술적 요소와 재미의 혼합을 통한 퍼블로지의 표현 과도한 색채의 사용과 자극적이고 저속한 색채 사용으로 키치 이미지 	

IV.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

1. 제작의도 및 방법

1) 제작 의도

본 장에서는 하이브리드의 예술적 이론고찰을 통해 탈 장르화를 유형별로 경향 분석한 흐름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절충적 예술성의 탈 장르화를 응용하여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작품을 제작하는데, 모델 선정은 동·서양의 지역적인 요소와 비서구화 요소를 반영하여 쌍커플이 없는 얼굴선이 가늘고 여린 전형적인 동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2) 제작 방법

탈 장르화의 특징을 컨셉(concept)으로 설정한 후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해체와 절충성으로 적용하여 19개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은 탈 장르화 현상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경계의 해체성 10작품 중 작품 I~VII은 계층의 해체, 작품 VIII~X은 시·공간의 혼재로 구성하였으며,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9작품 중 작품 XI~XVI은 민속적 요소, 작품 XVII~XIX은 과학 기술적 요소로 디자인하였다.

메이크업 디자인 작업 지시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모델의 얼굴에 각각 디자인을 메이크업하여 제시하였다.

2. 디자인 기획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에서 보여지는 경계 해체성의 계층의 해체, 시·공간의 혼재와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의 민속적 요소, 과학 기술적 요소를 응용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작품 구성을 기획하였다.

1) 형태

형태 기획은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형태를 분류하여 탈 장르화 특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고 변형, 왜곡시킨 해체성의 형태, 대중화의 다문화의 혼합과 부적합한 형태의 결합, 컬러의 절충과 혼합성의 형태로 기획하였다.

2) 색채

색채 기획은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탈 장르 특성 중에서 해체성의 형태는 해체주의에서 구조색으로 사용하는 검정색의 비중을 높였으며, 포인트로 빨강색, 흰색 등의 색을 이용하였다. 또한 중심색으로는 빨강색과 파랑색의 혼합 형태인 보라색의 비중을 높여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의 형태는 지역적, 민속적 요소에 많이 사용하는 흰색, 빨강색, 검정색과 다양한 색 등을 이용하였다.

과학 기술적 요소에서 자연과의 결합은 갈색을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자연 회귀, 인간성 회복 심화 등의 영향으로 중심색으로 초록색 계열 색을 기획하였다.

3) 질 감

질감 기획은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탈 장르 특성 중에서 해체성의 표현 형태인 광택이 없는 질감과 마른 질감의 비중을 높여 기획하고 무겁고 딱딱한 느낌의 질감을 위주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유목민들의 생활과 사용 필요성에 의한 모든 기기와 트렌드에서 휴대성의 증가와 가벼움의 선호로 인한 가벼운 형태의 윤이 나는 질감과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을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그리고,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의 형태는 지역적, 민속적 요소에 많이 차용하는 광택이 없는 질감을 기본으로 딱딱한 질감을 중심으로 선명하고 다양한 컬러의 색채 기획을 통한 가벼움을 표현하고자 기획하였다. 과학 기술적 요소의 시각 및 촉각적 즐거움을 위한 유희는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을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3. 작품 제작

작품 제작은 기존 구조의 파괴와 변형, 왜곡시킨 형태의 해체와 다문화의 혼합과 부적합한 형태와의 결합, 전형적인 스타일의 탈피와 도형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탈 형태로 작품 제작을 기획하였다.

작품 제작에 따른 디자인 컨셉은 <표 4>와 같다.

< 표 4 > 작품 디자인 컨셉

유형	형태	특성	색채	소재	표현기법	
경계의 해체성	계층의 해체	선정 및 퇴폐	검정(black), 파랑(blue), 보라(purple), 빨강(red), 메탈(metal) 등	수성컬러, 브러쉬, 필가루, 바셀린, 아쿠아새도우 등	반짝반짝(simmering)한 피부표현, 퇴폐적 눈화장 변진듯 표현, 창백한 얼굴, 진한 마스크라를 통한 착한이미지 파괴, 경계가 보이지않는 블렌딩과 하이라이트, 퇴색한듯 빛바랜 컬러표현	
		일탈 및 혐오	검정(black), 화이트(white) 빨강(red), 메탈(metal) 등	수성컬러, 브러쉬, 글루, 비즈, 필가루, 색도화지, 새도우 등	일상과 다른 자신모습 표현, 이목구비의 생략과 변형 색 제한을 통한 혐오, 불쾌감 표현, 부자연스러운 유도 충격적 시각효과 표현	
		실험적 창조주의	검정(black), 파랑(blue), 빨강(red), 노랑(yellow), 분홍(pink), 메탈(metal) 등	수성컬러, 브러쉬, 인조왁스, 비즈, 새도우, 인조눈썹, 깃털, 아쿠아새도우 등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표현, 신체의 왜곡과 과시적 심리표현, 평면적 메이크업을 입체적으로 표현, 이질적 소재의활용, 저속하고 통속적인 키치의 이미지 표현, 맥시멀리즘 이미지 표현	
		성의 무경계성	검정(black), 파랑(blue), 보라(purple), 분홍(pink) 등	수성컬러, 브러쉬, 안료, 바셀린, 아쿠아새도우, 유성용물감 등	성의 경계를 허물어 수염표현, 성의 무경계를 나타내는 보라색으로 새도우를 하고 남성적 강한 눈썹으로 표현	
	시공간의 혼재성	과거와 현재	검정(black), 보라(purple), 분홍(pink), 빨강(red), 주황(orange) 등	수성컬러, 브러쉬, 새도우, 립스틱, 브러셔컬러 등	가까운 과거와의 결합을 통한 80년대 마돈나 페르디 표현, 과거요소에 대한 향수적 감성과 차용을 통한 표현, 복합적 레트로 표현	
		현재와 미래	메탈(metal), 검정(black), 분홍(pink) 등	수성컬러, 브러쉬, 아쿠아메탈컬러, 라텍스, 글루, 비즈스톤, 필가루 등	현대적인 이미지 메탈의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하여 표현, 과학적 미래 이미지 혼합을 통한 디지털 프린팅 표현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민속적 요소	비서구화	검정(black), 화이트(white) 빨강(red), 주황(orange) 등	수성컬러, 브러쉬, 크라운 화운 데이션, 매트화이트파우더, 새도우 등	가부키와 경극을 연상시키는 화이트 피부표현, 빨강색과 검정색의 조화로운 혼합표현, 절제된 형태를 통한 동양의 사상 표현
			지역화	갈색(brown), 파랑(blue), 빨강(red), 노랑(yellow), 분홍(pink), 파랑(blue), 초록(green) 등	수성컬러, 브러쉬, 크라운 화운 데이션, 매트 화이트 파우더, 새도우, 아쿠아새도우, 눈효과 소품 등	동양의 이미지 부각시키는 기본 페이스는 갈색이나 브론즈로 표현, 눈썹 또는 아이새도우를 통한 부분화장으로 강조하여 표현, 기존의 민속적인 에스닉 컬러의 혼합을 통한 이미지 표현
과학 기술적 요소		자연	갈색(brown), 파랑(blue), 분홍(pink), 파랑(blue), 초록(green) 등	수성컬러, 브러쉬, 인조속눈썹, 비즈, 아쿠아새도우 등	이질적 소재들의 결합을 통한 강한 캐릭터 표현, 크기의 파괴와 변형으로 부적합한 요소들의 결합표현, 아이라인 및 눈썹 부분화장현, 갈색이나 브론즈로 표현	
		유희	검정(black), 주황(orange) 빨강(red) 등	수성컬러, 브러쉬, 인조왁스, 인조속눈썹, 아쿠아새도우 등	큐트한 컬러를 통한 팝아트적 표현, 만화적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다양한 색상표현,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 표현	

1) 작품 I

제목 : Black Tears of an Angel

주제 : 선정과 퇴폐

분류 : 경계의 해체

작품 I의 이미지는 ‘천사의 검은 눈물’이라는 주제로 이분법적 논리를 거부하여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이미지와 정신적인 갈망을 한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표현하여 해체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그림 44).

표현방법은 선과 면의 그라데이션과 혼합의 형태로 메이크업에 있어서 표현 부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을 그리고 그 안의 면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 완벽한 메이크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메이크업은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있다(표 5).

색채는 기존의 미의식을 부정하고 검정색만을 이용하여 검은 눈과 검은 입술 등 검정색, 즉 검은 눈물을 통하여 죽음, 절망, 공포, 공허 등을 나타내고, 또한 이목구비의 해체를 통한 채도와 선명도가 낮은 저속한 색채와 비일상적인 색의 도입으로 파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질감은 글로시와 투명한 질감의 표현을 통한 경계가 보이지 않는 블렌딩과 하이라이트를 하였다. 피부는 폐일한 피부톤으로 투명하고 하얀색의 맑은 이미지의 천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하얀색의 메탈스러운 피부표현은 퇴색한 듯 빛바랜 색의 이미지로 이중적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표 5> 작품 I. Black Tears of an Angel의 작업지시서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flex-end;"> <div style="margin-bottom: 10px;"> <p>base</p> <div style="width: 6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white;"></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eye</p> <div style="width: 6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black;"></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lip</p> <div style="width: 6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black;"></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div style="width: 6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white;"></div> </div> <div> <p>blusher</p> <div style="width: 6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f4a460;"></div> </div> </div>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사와 악마적인 이중적 이미지 해체를 통해 계층의 해체를 표현하는 선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운데이션, 매트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수성컬러, 브러쉬, 펄가루,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유성물감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페일톤의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눈썹의 형태를 무시하고,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선을 강조한 면의 결합을 통해 표현해 준다. 화이트 유성물감을 이용하여 검정색의 선을 강조해 준다. ● 실버 메탈색 펄가루를 얼굴의 중심부분 눈과 코를 중점적으로 표현해 준다. ● 검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펄가루를 중심에 표현하고, 화이트 유성물감을 통해 머리카락 뿌리부분과 얼굴면을 연결한 포인트를 준다.



<그림 44> 작품 I. Black Tears of an Angel

2) 작품 II

제목 : The Illusion of Nomadic

주제 : 선정과 퇴폐

분류 : 경계의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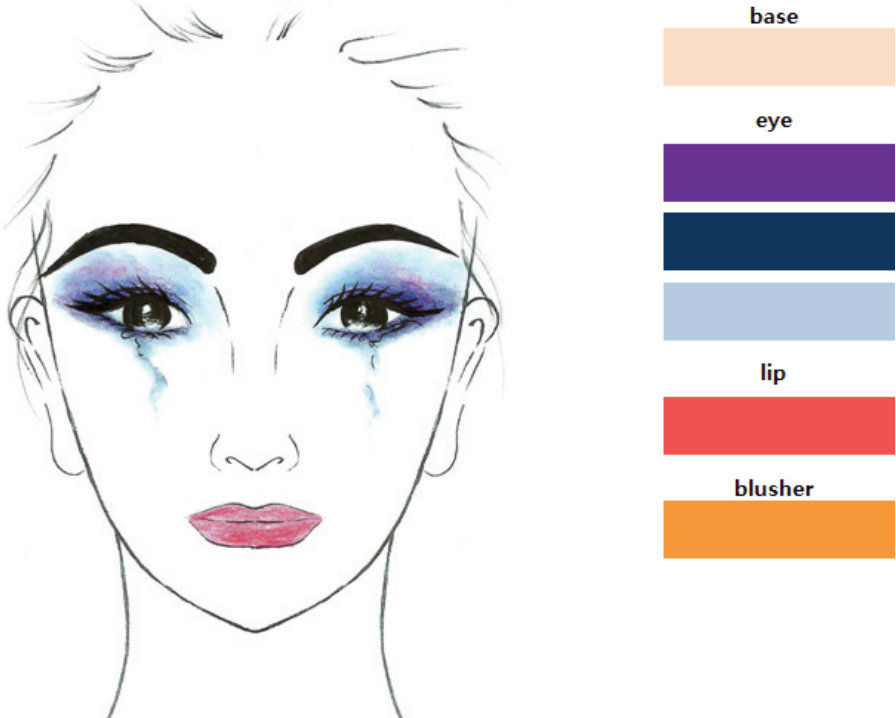
작품 II의 이미지는 ‘유목민의 환상’으로 집시 유목민의 허무한 상상을 통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면서 진한 눈화장과 마스크라의 번짐을 통해 착한 여자의 이미지를 파괴하여 해체성을 표현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 45).

표현방법은 해체 이미지의 색채 적용을 통한 선과 면의 해체를 나타내고, 일반적인 메이크업의 역할과 목적, 미적 가치에 대한 기본을 무시하고 극단적이고 전위적인 표현을 통해 충격적인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색채는 검은색의 눈물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을 통해 공포감과 데카당스(decadence)하고 그로테스크(grotesquerie)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전체적인 어두운 색조의 화장을 통해 기존의 미의식을 부정하고 진한 마스크라를 이용하여 눈 화장의 번짐으로 허무주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미적 가치와 미적 질서를 파괴하여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는 것 이상으로 부적절하고 어색한 미의식을 도입시킴에 따라 조화로움에 대한 개념적 한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통한 해체를 표현하였다.

질감은 창백한 얼굴의 페일 톤의 피부 표현으로 퇴색한 듯 빛바랜 색과 지저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피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깨끗하고 얼룩 없는 피부가 아름다운 피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얼룩져 보이는 피부처럼 화장을 하여 부조화를 통한 해체를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버리고 저속한 외모의 이미지로 지저분함과 눈화장이 번지면서 인위적으로 저속함을 극대화하여 일반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파괴하여 표현하였다(표 6).

<표 6> 작품 II. The Illusion of Nomadic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짐시 유목민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계층의 해체를 통한 퇴폐적 요소를 색채에 적용한 색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케익타입의 새도우, 수성물감, 브러쉬, 바셀린,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펄가루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폐일한 색의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눈썹의 윤곽을 잡고,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눈썹을 그려준다.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해서 눈화장을 표현해 준다. 진한 마스크라를 이용하여 강한 눈화장을 표현한다. 바셀린을 바른 후 펄가루를 붙여준다. ● 블러셔와 립스틱을 얼룩지게 바른다. ● 물에 수성물감을 묻혀서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도록 브러쉬를 이용하여 눈부분 아이라인과 연결한 선에서 떨어뜨려 준다.



<그림 45> 작품 II. The Illusion of Nomadic

3) 작품 III

제목 : Flamenco Dance Chimera

주제 : 일탈과 혐오

분류 : 경계의 해체

작품 III의 이미지는 ‘플라멩고를 추는 키메라’로 이목구비의 변형과 색의 과도한 제한을 통하여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였다. 미적 가치에 대한 기본을 무시하고 극단적이고 전위적인 표현을 하였다(그림 46).

표현방법은 선과 면의 절충을 통한 형태로 헤어와 메이크업을 각각 다르게 연출하여 다양성을 부각하고 단순하면서도 시선을 자극하는 시각효과를 추구하였다. 인위적인 입술 형태의 콜라주(collage)를 입술에 직접 부착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면서 이목구비의 생략, 변형을 통하여 일상과는 다른 이미지를 파괴하여 보여주고 있다. 과격의 미를 통한 그로테스크적 감성이 적용되어 아름다움을 버리고 저속한 외모의 이미지로 반미학적 추의 이미지를 추구하여 표현하였다(표 7).

색채는 기존의 미의식을 부정하고 아그리파(agrippa) 조각상처럼 각진 검은색의 그늘 표현을 통한 눈화장의 번짐으로 허무주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여성스럽고 아름다우며, 우아한 메이크업과는 거리가 멀게 표현하여 영역과 절차를 무한대로 확대시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상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위한 색다른 체험을 표현하였다.

질감은 매트하고 폐일한 표현과 지저분한 피부표현을 통해 퇴색한 이미지와 해체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표 7> 작품 III. Flamenco Dance Chimera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열적인 프라멩고를 추는 키메라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이목구비의 생략과 변형을 통한 선정적 색채에 적용한 색과 선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운데이션,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수성컬러, 칼라색지,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브러쉬, 글루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피부색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인조왁스 이용하여 눈썹을 가려주고, 수성물감 이용해서 선을 강조한다. ● 검은색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그라데이션하여 면의 결합을 통해 표현한다. ● 색지에 과장된 입술형태를 그리고, 오려서 입술부분에 글루를 이용하여 붙여준다. ● 눈에 여성스러운 진한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46> 작품 III. Flamenco Dance Chimera

4) 작품 IV

제목 : The Return of Zorro

주제 : 일탈과 혐오

분류 : 경계의 해체

작품 IV의 이미지는 ‘돌아온 퀘걸 조로’라는 주제로 파격적이고 인위적인 얼굴형태의 표현을 통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부조화를 통한 이목구비의 생략, 과장된 형태의 변형을 통하여 일상과는 다른 이미지를 파괴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 47).

표현방법은 선을 통한 면의 분리 형태로 눈 부분의 기본적인 이목구비를 변형하여 두건이나 안대같은 과장된 형태의 조형을 통해, 메이크업에 나타난 부조화를 통해 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무시하고 전위적인 표현을 통해 다소 충격적인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뉴히피적 메이크업을 얼굴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이질적 소재의 활용과 예상되지 않은 것들과의 조합으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보여주었다. 과거에 나타난 조로의 스타일 패러디를 통한 재현하는 방법을 통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춰 새롭게 표현 하였다.

색채는 경계의 해체성의 주조색인 검정색을 중심으로 눈 화장에는 비즈와 글리터(glitter)를 이용하여 눈이 형태를 강조하고 눈의 양쪽 끝으로 모양을 확대시켰다(표 8). 이러한 기법을 중심으로 눈꼬리를 연장시키고 검정색을 이용한 눈 화장을 하였고, 입체적인 볼과 여성적이고 관능적인 입술로 표현 하였다.

질감은 매트하고 폐일한 표현과 투명한 피부표현을 통해 해체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표 8> 작품 IV. The Return of Zorro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겔 조로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이목구비의 생략과 변형 요소를 형태에 적용한 색채를 통해 선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운데이션, 파우더, 비즈,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크리스탈 스톤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피부색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인조왁스 이용하여 눈썹을 가려주고, 수성물감 이용해서 눈주위에 안대를 쓴 것같이 선을 강조한다. ● 검은색 수성물감을 그라데이션하여 면의 결합을 통해 표현한다. ● 흰색 유성물감을 이용하여 선과 패턴을 그리고, 비즈와 스톤을 부착한다. ● 눈에 여성스러운 진한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47> 작품 IV. The Return of Zorro

5) 작품 V

제목 : The Dream of a Clown

주제 : 실험적 창조주의

분류 : 경계의 해체

작품 V의 이미지는 ‘광대의 꿈’으로 주류에서 소외된 광대의 인정받기 원하는 과시적 심리 표현과 열정 표현을 계획하지 않은 이질적 소재와 얼굴의 과장된 표현으로 연출하였다. 맥시멀리즘을 통한 예기치 않은 것들과의 조합을 통해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과 자극적이며 저속한 색채를 이용하여 통속적인 키치의 이미지에서 정제된 꾸뜨르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48).

표현방법은 선과 색채의 결합을 통한 형태로 과격적이고 인위적인 눈 형태의 선을 이용한 표현을 통해 이목구비의 파괴와 광대의 가벼움을 표현하였다. 이목구비의 생략, 변형을 통하여 일상과는 다른 이미지를 파괴하여 보여주고 있다. 메이크업에 나타난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와 얼굴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이질적 소재의 활용과 조합으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표현하였다.

색채는 화려한 색을 활용하여 본래의 얼굴 모양이나 색과는 무관하게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색과 일정한 주제가 없는 추상적인 선을 사용하였다(표 9).

질감은 매트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과 투명한 피부표현을 통해 색채의 대비를 통한 강조를 하였고, 해체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표 9> 작품 V. The Dream of a Clown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대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차용하여 경계의 해체에 따른 실험적 창조 요소를 색채에 적용한 선과 색채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운데이션, 파우더, 인조왁스, 브러쉬, 수성컬러, 케익 타입의 새도우, 립스틱, 비즈,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유성물감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눈썹을 인조왁스를 이용하여 수정해 주고, 크라운 화이트 화운데이션을 이용해 표현해 준다. ● 그 위에 다시 페일한 색의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수성컬러를 이용하여 눈썹의 형태를 그리고,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해서 색을 강조한 면의 결합을 통해 표현해 준다. ● 수성컬러로 선을 이용하여 광대이미지를 표현해 준다. ● 핑크색 립글로스를 바른 후, 파랑색 비즈를 입술에 붙여준다. ● 눈에 여성스러운 진한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고, 볼에 말그레한 핑크컬러를 이용하여 수줍은 듯한 이미지의 볼을 표현해 준다.



<그림 48> 작품 V. The Dream of a Clown

6) 작품 VI

제목 : **Passionate Expression of Phoenix**

주제 : 실험적 창조주의

분류 : 경계의 해체









작품 VI의 이미지는 ‘불새의 열정’으로 환상과 신화를 통해 열정 표현을 계획하지 않은 이질적 소재와 얼굴의 이목구비의 무시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질적 소재를 얼굴에 부착하여 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얼굴의 이목구비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강조를 통한 다양한 이미지를 수용하였다(그림 49).

표현방법은 선과 면의 그라데이션을 통한 형태로 기본 구성요소를 제거하거나 다양한 이미지 창조를 통한 메이크업의 전통 구성방식을 새로운 조형성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이질적 소재를 통해 꿈과 환상의 맥시멀리즘을 표현하고, 비즈와 인조 속눈썹 등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화려한 인조 속눈썹과 눈썹의 앞부분에 더듬이를 통해 새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크리스탈 비즈 장식을 통해 눈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눈 모양을 전체적으로 새의 부리와 꼬리 깃털을 형상화한 형태로 나타내어 색과 조화를 이루어 불새의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입술은 전체를 그리지 않고, 새의 부리를 형상화하였다.

색채는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화려한 색을 통해 불새의 열정 표현을 붉은 계열 주조색으로 표현하였다. 피부표현을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색상 또한 너무 진하지 않게, 살아있는 생동감을 나타내려고 하였다(표 10).

질감은 건조하고 매트한 페일톤 피부로 해체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표 10> 작품 VI. Passionate Expression of Phoenix의 작업지시서

	<p style="text-align: right;">base</p>  <p style="text-align: right;">eye</p>     <p style="text-align: right;">lip</p>  <p style="text-align: right;">blusher</p>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열정적인 추상적 이미지를 적용하여 색채에 의한 선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베이지 화운데이션, 베이지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펜슬,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깃털장식, 스톤비즈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베이지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해서 눈썹의 윤곽을 잡고,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준다. ● 케익타입 새도우를 이용해 눈부분 아이홀에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해 준다. ● 핑크색 펠새도우를 투명립글로스워 섞어서 색을 만든 후, 입술에 바른다. ● 눈에 여성스러운 진한 인조속눈썹을 붙여주고, 얼굴 윤곽선을 강조하여 광대뼈 부근을 중심으로 블러셔를 해 준다.



<그림 49> 작품 VI. Passionate Expression of Phoenix

7) 작품 VII

제목 : He and Her Idealism

주제 : 성의 무경계

분류 : 경계의 해체

작품 VII의 이미지는 ‘그와 그녀의 이상주의’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와 그녀의 완벽한 정신적 갈망을 통한 이상주의를 표현하였다. 성에 따른 주종관계를 성의 무경계성 요소를 통한 해체를 적용하여 탈 중심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50).

표현방법은 점과 선의 강조와 결합을 통한 형태로 남성적인 힘차고 거친 느낌의 눈썹과 가루수염을 유성물감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표 11). 여성의 남성화를 남성의 특징적인 신체적 요소를 이용하여 수염과 거칠고 역동적인 눈썹을 통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은폐하였다. 또한 성의 혼돈을 통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다양한 피부톤과 얼굴선의 인위적인 윤곽 표현을 하기 위해 블러셔 그리고 새도우를 이용하였다.

색채는 여성적인 아이홀의 새도우를 보라색과 보라색 돌가루의 이질적인 소재를 통해 여성의 남성스러운 그도 그녀도 아닌, 둘 모두를 인정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질감은 거칠고 진한 피부색 표현을 통하여 강한 남성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눈화장 부분에 글로시함의 표현과 색상을 통해 여성스러움으로 해체를 표현하였다.

<표 11> 작품 VII. He and Her Idealism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신체적 특징 이미지를 차용하여 이분법적 구분을 초월한 성의 해체성을 색채에 적용한 성의 무경계성 요소의 선과 점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피부톤 화운데이션,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립스틱, 수성물감, 케익아이라이너, 새도우 돌가루, 유성물감, 브러쉬, 스티로폼 스폰지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피부색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눈썹윤곽을 잡고,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거칠고 남성적인 눈썹을 그려준다. ●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해서 보라색을 강조한 면의 결합을 통해 표현하고, 그 위에 바셀린을 바른 후 보라색 돌가루를 붙여준다. ● 스폰지에 유성물감 검정색을 찍어서 입술 주변에 턱밑에 가루수염을 세심하게 표현해 준다.



<그림 50> 작품 VII. He and Her Idealism

8) 작품 VIII

제목 : Communication with Madonna

주제 : 과거와 현재

분류 : 경계의 해체

작품 VIII의 이미지는 ‘마돈나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과거의 익숙한 요소를 인용하고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유하는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마돈나와의 의사소통 하듯이 복합적인 레트로 경향을 통해 현대적인 코드와 혼합되어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모방이나 인용 장르의 파괴를 통한 탈 장르화 특성을 반영하였다.

표현방법은 그라데이션을 통해 면을 채우는 형태로 1980년대 굵은 아이라인과 인조 속눈썹을 통해 강조한 강한 눈화장의 메이크업이 사용되어 과거의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대표적 특성을 중심으로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감각에 맞춰서 재창조하여 확장하였다. 눈, 코, 입 메이크업을 하고 가까운 과거 요소에 대한 향수적 감성과 차용을 통하여 시·공간의 혼재성을 과거의 요소를 통해 나타내었다.

색채는 과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찾아서 패러디 기법을 사용하여 마돈나의 아이라인으로 섹시한 이미지와 점, 강렬한 빨강색의 립스틱과 금발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현대의 마돈나와 대화를 나누듯이 의사소통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었다(표 12).

질감은 건조하고 거친 느낌의 질감과 폐일한 피부색 표현을 통하여 선정적 이미지와 여성스러움으로 해체를 표현하였다.

<표 12> 작품 VIII. Communication with Madonna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돈나의 과거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해체를 색채에 적용한 색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화운데이션, 화이트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명주솜, 조각천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화이트색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눈썹의 윤곽을 잡고,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해서 색을 강조한 면의 결합을 통해 표현해 준다. 케익타입 새도우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파스텔 색상으로 추운날 겨울날 안면에 홍조된 표정을 표현해 준다. ● 핑크색 펄새도우를 투명립글로스 섞어서 색을 만든 후, 입술에 바른다. ● 눈에 여성스러운 진한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51> 작품 VIII. Communication with Madonna

9) 작품 IX

제목 : Digital Nomads' Network

주제 : 현재와 미래

분류 : 경계의 해체



작품 IX의 이미지는 ‘디지털 유목민의 그물망’으로 디지털 유목민의 인간 관계가 그물처럼 얽여 있듯이 가까운 과학적 미래의 이미지를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인 질서와 균형, 대칭, 조화, 대비, 리듬, 비례 등의 형식의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여 무한대의 표현세계로 표현하였다(그림 52).

표현방법은 선과 면의 해체 및 세분화 형태로 여성스럽고 아름다우며, 우아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표현에 대한 영역과 절차를 무한대로 확대시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표 13).

색채는 시·공간 혼재성의 미래의 요소는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메탈의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하고, 환상적이고 미래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실버색을 이용하여 절제되면서도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52). 고급스러운 품위를 느낄 수 있는 현재의 핑크색을 스티로폼의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연지곤지 짝듯이 불터치나 포인트로 부착하여 표현하였다.

질감은 매트하면서 글리터 느낌의 피부색 표현을 하고, 미래적 이미지를 통해 해체를 표현하였다.

<표 13> 작품 IX. Digital Nomads' Network의 작업지시서

	<p style="text-align: center;">base</p>   <p style="text-align: center;">eye</p>    <p style="text-align: center;">lip</p>  <p style="text-align: center;">blusher</p>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인 미래의 이미지와 그물망 구조를 이용하여 해체적 시공간의 혼재성을 색채에 적용한 선과 면의 해체를 통한 표현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인체용 테이프, 아쿠아 에어브러쉬용 물감, 수성물감, 글루, 소품용 스펀지, 인조속눈썹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후, 인체용 테이프를 디자인하여 얼굴에 붙여준다. ● 메탈 컬러의 아쿠아 에어브러쉬용 물감을 빈 부분에 칠해준다. ● 테잎을 얼굴에서 제거한 후, 수용용 물감을 이용하여 빈 부분에 그물망을 그려준다. 글루를 이용하여 얼굴에 핑크색 스펀지를 붙여준다. ● 눈에 신비하고 미래적인 실버색 반짝이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52> 작품 IX. Digital Nomads' Network

10) 작품 X

제목 : Crystal Dreams in the Winter

주제 : 현재와 미래

분류 : 경계의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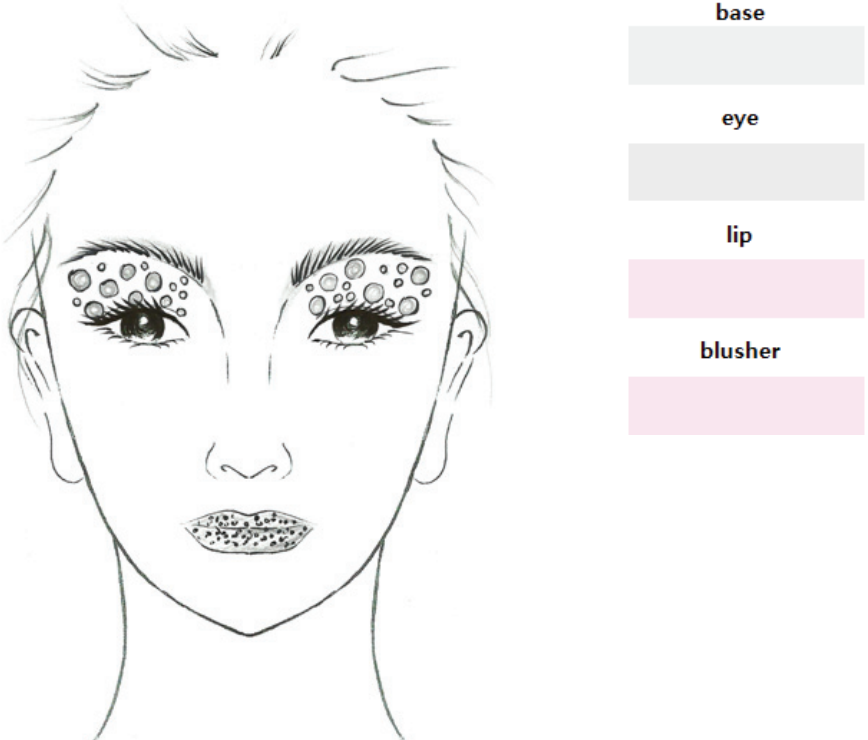
작품 X의 이미지는 ‘겨울속에 크리스탈의 꿈’으로 경계의 해체를 통한 시·공간의 미래적 이미지를 통하여 펄 파우더와 글리터(glitter), 그리고 크리스탈 스톤 등 이질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기존의 미적 질서를 파괴하고 표현의 한계점을 나타내었다(그림 53).

표현방법은 다양한 소재에 적용한 점들의 조화와 혼합을 통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메이크업에 있어서 표현 부위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을 그리고, 그 면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 메이크업을 하였다. 이목구비의 생략과 면만 채우고, 선을 그리지 않아서 미완성된 느낌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표 14).

색채는 한 겨울속의 차갑고 미래적인 이미지의 비즈와 크리스탈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미의 개념을 파괴하고 해체하여, 왜곡된 이미지와 자유롭게 표현되는 메이크업으로 메탈과 실버의 차가운 느낌의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중복적 표현을 하였다.

질감은 글로시하면서 글리터를 특수 효과의 느낌으로 이중적 이미지의 중복과 피부색 표현을 통하여 미래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표 14> 작품 X. Crystal Dreams in the Winter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를 통한 미래의 이미지와 메탈의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하여 해체적 시·공간의 혼재성을 소재에 적용한 점들의 조화를 통한 표현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크리스탈 스톤, 필가루, 수성물감, 글루, 바셀린, 필파우더, 인조속눈썹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후, 페일톤의 파운데이션과 필 파우더를 꼼꼼하게 발라준다. ● 눈부분에 바셀린을 바른 후, 크리스탈 스톤비즈를 종류별로 부착한다. ● 입술에 핑크색 립글로스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입자가 큰 조개가루로 만든 필가루를 묻혀준다. ● 눈에 신비하고 미래적인 실버색 반짝이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53> 작품 X. Crystal Dreams in the Winter

11) 작품 XI

제목 : Queen of Purity

주제 : 비서구화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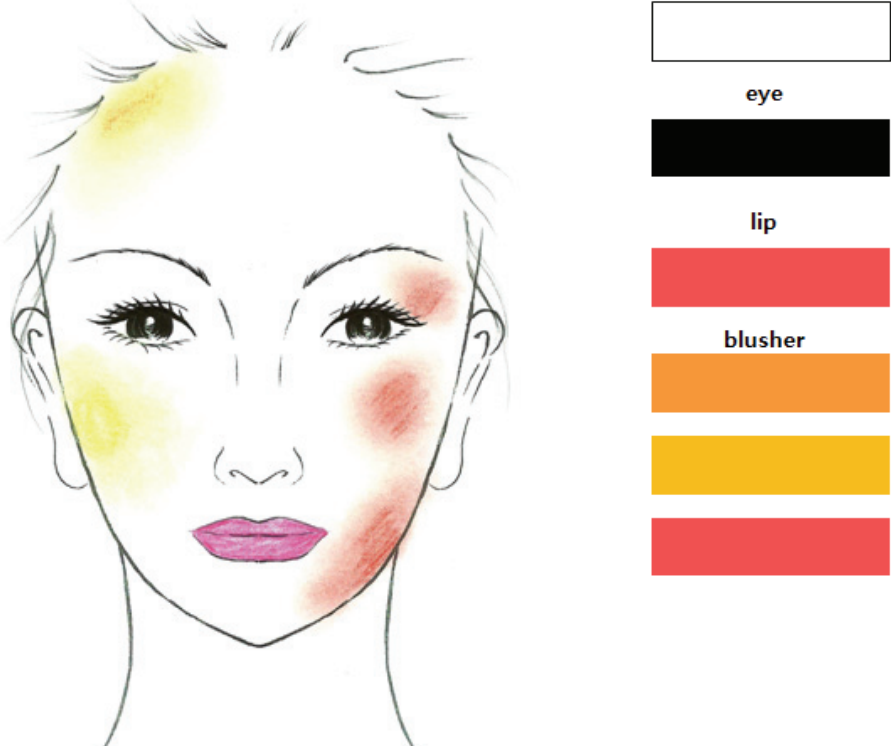
작품 XI의 이미지는 ‘여왕의 순수’로 투명하고 피부색이 살짝 비치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통해 투명하고 맑은 순수한 눈을 표현하였다. 메이크업은 동양 또는 제 3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이용하고 비 서구화 민속적 요소를 강조하여 오리엔탈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54).

표현방법은 면을 그라데이션 방법으로 채우는 형태로 표현부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선을 그리고 그 안의 면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메이크업은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하여 볼이 붉게 표현되어 있어 실내에서 보아도 추워 보이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색채는 매트한 흰색을 이용하여 메이크업을 하고 자연스런 입술 라인과 동양적 느낌의 얇은 눈썹선을 통해 절제된 느낌을 표현하였다. 새도우 눈화장을 생략하여 서구적 메이크업과 비교해 볼때 소재, 질감, 형태, 색채 면에서 비교되는 특징을 지닌다(표 15).

질감은 매트하고 건조한 느낌과 투명하고 차가운 이중적 이미지의 중복과 피부색 표현을 통하여 해체를 표현하였다.

<표 15> 작품 XI. Queen of Purity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의 순수한 동양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절충과 혼합의 민속적 요소를 색채에 적용한 색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화운데이션, 화이트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명주숨, 조각천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화이트색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눈썹의 윤곽을 잡고,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해서 색을 강조한 면의 결합을 통해 표현해 준다. 케익타입 새도우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파스텔 색상으로 추운날 겨울날 안면에 홍조된 표정을 표현해 준다. ● 핑크색 펄새도우를 투명립글로스와 섞어서 색을 만든 후, 입술에 바른다. ● 눈에 여성스러운 진한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54> 작품 XI. Queen of Purity

12) 작품 XII

제목 : Courtesy of Multinational Girl

주제 : 비서구화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작품 XII의 이미지는 ‘전통적 다문화 소녀’로 동양 전통적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여러 다문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혼합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그림 55).

표현방법은 일본의 가부키 화장과 중국의 경극의 화장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한국의 금줄을 매는 전통 풍습 중에서 숯을 매는 방법을 활용하여 혼합한 동양 소녀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동양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새로운 다문화의 형성을 통해 비 서구화를 중심으로 일반화장과는 달리 과장되어 표현하였다. 점과 면의 절제된 형태를 통한 동양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표 16).

색채는 가부키와 경극을 연상시키는 흰색의 피부 표현과 빨강색과 검정색의 주조색을 통해 조화로운 혼합표현을 하였다. 자연스러운 립라인이 아니라 명도가 높은 색을 이용하여 입술 크기를 극적으로 축소시켜 빨간 입술을 표현하였다.

질감은 매트하고 글로시한 느낌과 투명하고 차가운 이중적 이미지의 피부색 표현과 흰색의 가면을 착용한 듯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표 16> 작품 XII. Courtesy of Multinational Girl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동양의 다문화 이미지를 차용하여 절충과 혼합의 민속적 요소를 색채에 적용한 점과 면의 조화로운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화운데이션, 화이트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숯과 노끈, 수성칼라, 브러쉬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화이트색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눈썹의 윤곽을 잡고, 수성물감을 이용해서 눈썹을 얇게 한올 한올 그려 동양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준다. ●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하여 눈부분에 그라데이션 해주고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볼과 입술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다. ● 눈에 여성스러운 진한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55> 작품 XII. Courtesy of Multinational Girl

13) 작품 XIII

제목 : Soul of the Geisha

주제 : 비서구화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작품 XIII의 이미지는 ‘게이샤의 영혼’으로 동양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게이샤 이미지를 중심으로 꿈꾸는 듯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선명하고 명확한 선과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을 이용하여 동양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림 17).

표현방법은 선과 면의 절제되고 명확한 형태를 통한 동양의 사상을 나타내었다. 일본의 게이샤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무겁고 건조한 느낌의 흰색 파우더를 이용하여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 라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자유롭게 흐르는 선을 만들어 영혼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자연스런 입술 라인과 동양적 느낌의 얇은 눈썹선을 통해 절제된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입술 크기를 극단적으로 작은 형태로 축소시키지는 않았으나 원래의 형태보다는 작은 입술을 통해서 게이샤 입술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색채는 일본의 게이샤 분장을 연상시키는 흰색 피부와 현대적인 느낌의 눈썹, 눈꼬리 부분의 세심한 선은 빨강색과 검정색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혼합 표현을 하였다(표 17).

질감은 건조하면서도 촉촉한 느낌과 투명하고 차가운 이중적 이미지의 피부색 표현과 흰색의 가면을 착용한 듯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표 17> 작품 XIII. Soul of the Geisha의 작업지시서

	<p style="text-align: right;">base</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p style="text-align: right;">eye</p>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div style="background-color: red;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p style="text-align: right;">lip</p> <div style="background-color: red;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p style="text-align: right;">blush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전통적인 게이샤 이미지를 차용하여 절충과 혼합의 민속적 요소를 색채에 적용한 선과 면의 조화로운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화운데이션, 화이트 파우더, 립스틱, 케익 아이라이너, 인조 속눈썹, 수성칼라, 브러쉬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화이트색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눈썹의 윤곽을 잡고, 검정색 수성물감을 이용해서 눈썹을 얇게 한올 한올 그려 동양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준다. ● 수성물감 이용하여 눈부분에 빨간색 꽃잎 차용한 이미지 선을 그려준다. ● 립스틱을 이용하여 입술 라인보다 적은 형태를 그려주고 포인트를 준다. ● 눈에 여성스러운 진한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56> 작품 XIII. Soul of the Geisha

14) 작품 XIV

제목 : Out of the Eskimo

주제 : 지역화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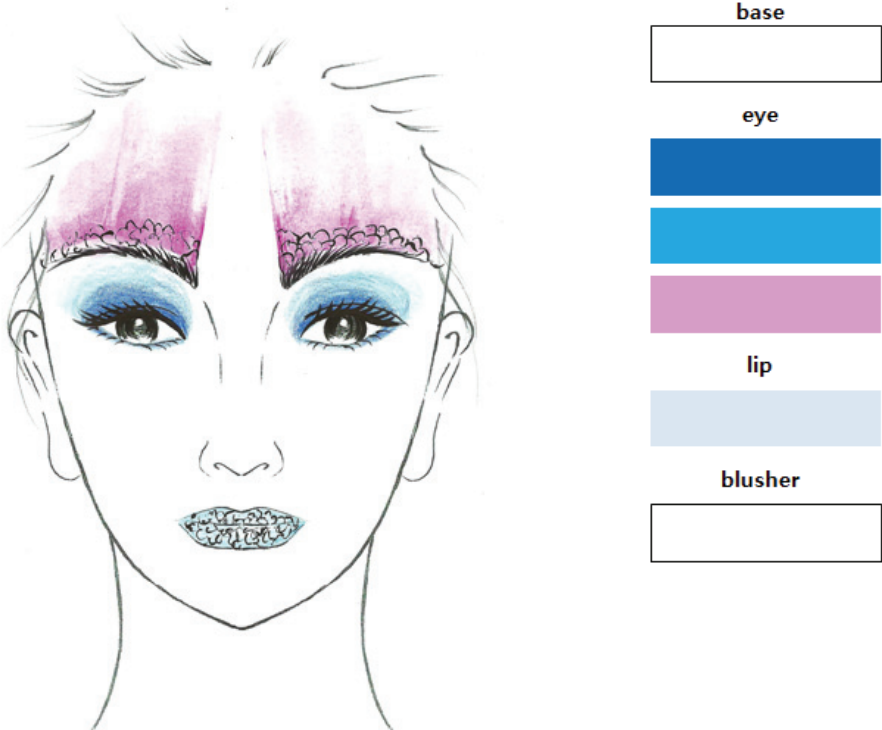
작품 XIV의 이미지는 ‘에스키모의 외출’로 지역화 요소를 이용하여 제 3국의 전통적인 민속적 형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몽골인 이미지 메이크업의 구성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하였다(그림 57).

표현방법은 크리스탈 눈모양 형태의 콜라주를 이용한 입체적 효과와 색을 통한 면의 경계를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형태를 통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고 자연스런 입술 라인과 동양적 느낌의 얇은 눈썹선을 통해 절제된 느낌을 보여주었다. 차가운 느낌의 크리스탈 얼음형태 결정을 통해 콜라주를 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중앙아시아의 몽고인들은 추운 날씨로 인하여 찡그린 듯한 느낌의 이미지로 이중적 눈썹을 그리는 특징이 있는데, 눈썹위에 크리스탈 눈모양 형태의 콜라주를 이용한 한 개의 눈썹을 그려서 2개의 이중적 눈썹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인종적 특성을 바탕으로 몽골리안 뷰티로 얼음 결정의 표현 소재를 통해 차가와 보이는 것을 강조한 메이크업이다. 눈썹 부분에도 눈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소금형태의 특수효과 소재를 부착하여 표현하였다.

색채는 선명하고 밝은 색의 색도우를 이용하고, 세밀한 눈화장을 생략하여 서구적 메이크업과 비교해 볼때, 소재, 질감, 형태, 색채 면에서 비교되는 특징을 지닌다(표 18).

질감은 건조하고 무거운 느낌의 흰색 파우더를 이용하여 차가운 느낌을 연출하고, 눈과 서리가 묻은 듯한 입술을 연출하였다.

<표 18> 작품 XIV. Out of the Eskimo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가운 얼음과 중앙아시아 몽골인 이미지의 전통 구성방식과 전통적인 이미지를 차용하여 색채에 의한 선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화운데이션, 화이트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크리스탈 결정, 눈 결정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화이트색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주고, 케익타입의 새도우를 이용하여 그라데이션을 해 준다. ● 민트색 새도우에 투명립글로스를 섞어서 색을 만들어 바른 후, 입술위에 크리스탈 결정을 찍어준다. ● 눈썹위에 투명립글로스를 바르고 크리스탈 결정 큰것과 작은것을 적절하게 붙여준다.



<그림 57> 작품 IV. Out of the Eskimo

15) 작품 XV

제목 : The Reincarnation of Cleopatra

주제 : 지역화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작품 XV의 이미지는 ‘클레오파트라의 환생’이라는 컨셉을 통해 현대에 재현된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요소를 표현하였다. 탈 중심적인 성격의 복합 문화주의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절대적 우위성을 부여하는 이분법적 가치와 체계가 아닌 다원적인 체제이다(그림 58).

표현방법은 면을 채우는 형태를 통한 기존의 전통적 민속적인 다양한 색의 에스닉 색의 혼합을 통한 지역화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눈화장을 중심으로 단순한 형태에 탈 장르를 통한 복합적 다문화주의를 상징하는 다양한 색상을 통해 혼합과 절충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채는 혼합성 요소의 지역화를 통한 다문화의 국가별 대표적인 민속적 다양한 색상들을 표현하고자 여러 다문화 국가들 국기 색상의 다양한 색의 조합과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 색상을 이용하여 선명하고 깔끔하게 눈 화장을 연출하였다. 동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본 컬러로 갈색이나 브론즈 컬러를 통해 건강한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하였다. 또한 눈썹과 아이 새도우의 화려한 색을 통한 부분 화장으로 전통적 에스닉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표 19).

<표 19> 작품 XV. The Reincarnation of Cleopatra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의 요소를 차용하여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를 다문화의 색채에 의한 선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브론즈 화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수성물감, 립스틱, 케익 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브러쉬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브론즈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아쿠아컬러 수성물감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채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눈화장을 통한 지역화 요소를 부분화장을 통해 표현해 준다, ● 선명한 케익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또렷한 아이라인과 눈썹을 그려준다. ● 핑크색 펠새도우에 투명립글로스를 섞어서 색을 만들어 바른다. ● 피부표현은 건강한 혈색을 표현하기 위해 오렌지 컬러와 브론즈 컬러의 블러셔로 얼굴 윤곽을 수정해 준다. ● 여성스러운 인조 속눈썹을 표시나지 않도록 붙여준다.



<그림 58> 작품 XV. The Reincarnation of Cleopatra

16) 작품 XVI

제목 : Pop Art of India and the Middle East

주제 : 지역화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작품 XVI의 이미지는 ‘인도와 중동의 팝아트’라는 지역화 요소의 민속적 요소를 차용하여 화려한 눈화장을 통한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 3국의 전형적인 터번 모양의 민속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그림 59).

표현방법은 선과 면을 다양한 혼합과 절충을 통한 화려한 도형적 형태로 인도와 중동지역의 남성들은 터번을 쓰고, 주로 성의 이분법적인 계층을 구분한다. 남성적인 형태의 거칠면서도 무심한 듯한 눈썹의 형태와 브론즈색을 사용하여 여성적인 신체 특징을 감추고자 하였다(그림 59). 지역적인 특징만을 강조한, 인위적이고 과장된 메이크업으로 강한 이미지의 부각 및 메이크업의 자유와 독립성을 표현하였다.

색채는 다양한 색을 적용한 선과 면의 혼합요소를 비 서구화를 대표하는 갈색과 브론즈색을 이용하여 오리엔탈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부분 메이크업을 강조해 국가별 대표적 상징성이 있는 기존의 에스닉 색상의 혼합을 이용하여 제 3국 이미지, 다문화의 인도와 중동 지방의 지역적인 컬러들을 사용하여, 지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표 20).

질감은 건조하면서 투명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아이섀도우를 통한 눈화장을 다문화의 지역적 색상의 팝아트적 요소를 통해 혼합과 절충성을 표현하였다.

<표 20> 작품 XVI. Pop Art of India and the Middle East의 작업지시서

	<p style="text-align: center;">base</p>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p style="text-align: center;">eye</p>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6a329f;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87093;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80;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02070;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p style="text-align: center;">lip</p> <div style="background-color: #ff8c00;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p style="text-align: center;">blush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div>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의 요소를 차용하여 인도와 중동지역의 이미지를 다문화 색채에 의한 다양한 선과 면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브론즈 화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수성물감, 립스틱, 케익 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브러쉬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브론즈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섀도우를 이용하여 눈썹의 형태를 잡아주고,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남성적인 이미지의 눈썹을 거친듯한 선을 이용하여 표현해 준다. ● 아쿠아컬러 수성물감을 이용해서 아이섀도우를 팝아트 이미지의 큐트한 컬러를 통해 그려주고, 다양한 형태와 색상표현을 해 준다. ● 오렌지색 립글로스를 입술에 바른다. ● 인조 속눈썹을 표시나지 않도록 붙여준다.



<그림 59> 작품 XVI. Pop Art of India and the Middle East

17) 작품 XVII

제목 : Return to Nature

주제 : 자연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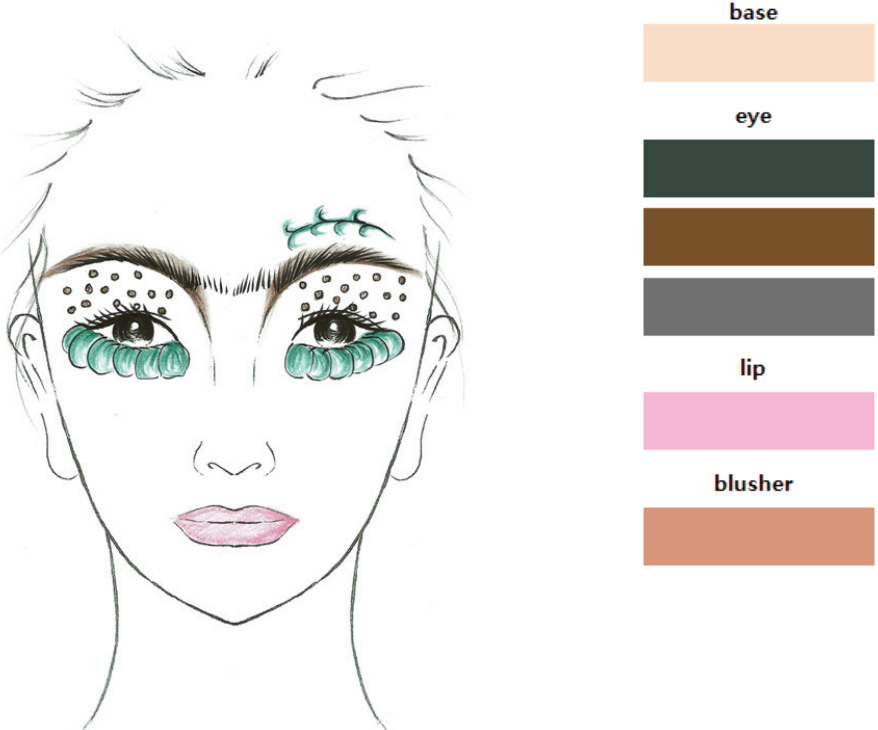
작품 XVII의 이미지는 ‘자연으로의 귀환’으로 환경보존이나 사라져가는 인간성 회복의 심화로 인한 자연 회귀를 표현하였다. 강한 캐릭터 생성을 통한 이질적 소재들의 결합과 내추럴 색상을 이용하여 메이크업의 조형 요소로 부적합한 요소를 사용하였다(그림 60).

표현방법은 이질적 소재의 콜라주를 통한 형태와 다양한 점과 선의 결합과 혼합한 형태로 눈썹과 새도우, 아이라인의 부분화장의 강조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형태는 갈색의 점을 이용하여 새도우를 하였으며, 눈밑에는 초록색 인조 속눈썹을 표현하여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 모습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눈썹의 앞머리 부분은 일본의 아이누족의 눈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일자 형태로 나타냈다.

색채는 <표 21>에서와 같이 과학 기술적 요소의 기본 페이스는 갈색이나 브론즈로 내추럴 색상을 통해 표현한다.

질감은 자연 회귀로의 표현을 하기 위해 나무 질감의 소품과 어울리는 피부 표현을 하였다.

<표 21> 작품 XVII. Return to Nature의 작업지시서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이미지 요소를 차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인 이미지의 자연 색채에 의한 다양한 점과 선의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브론즈 화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수성물감, 립스틱, 케익 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브러쉬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브론즈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새도우를 이용하여 눈썹의 형태를 잡아주고,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한올한올 원시적인 느낌의 눈썹을 표현해 준다. ● 갈색 수성물감을 이용해서 아이새도우를 점 모양의 형태를 통해 그려주고, 눈밑에 초록색 인조 속눈썹을 붙여준다. . ● 한쪽에만 초록색의 넝쿨모양의 문양을 그려주어 단조로움을 피한다. ● 핑크색의 필이 포함된 립스틱을 발라주어 청순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60> 작품 XVII. Return to Nature

18) 작품 XVIII

제목 : Primitive Jungle Girl

주제 : 자연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작품 XVIII의 이미지는 ‘밀림의 원시소녀’로 자연의 과학 기술적 요소를 절충하여 혼합한 메이크업으로 밀림의 원시적인 환경의 소녀를 향한 인간성 회복 심화와 자연 회귀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61).

표현방법은 면의 그라데이션과 선과 면의 적절한 배치 그리고 결합을 통한 형태로 원시 밀림을 연상시키는 꽃과 잎사귀, 노끈이나 식물의 넝쿨을 이질적인 소재와 소품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색채는 눈화장에는 파스텔 톤의 색상들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을 해준 그 위에 직접적으로 가지와 꽃모양의 스톤을 이용한 콜라주 방법을 통해 독특한 질감과 색채 표현을 하여 눈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 화장을 하였다. 볼과 입술은 어린 소녀의 수줍음과 생기있음을 핑크색으로 경계가 보이지 않는 블렌딩을 통하여 세밀하게 표현 하였으며, 녹색, 노란색 등 자연적 느낌이 드는 색상들을 사용하여 눈화장을 표현하였다(표 22).

질감은 기본적인 피부 표현을 글로시하면서 깨끗하게 자연적 색상인 갈색으로 표현하였다.

<표 22> 작품 XVIII. Primitive Jungle Girl의 작업지시서

	<p style="text-align: center;">base</p>  <p style="text-align: center;">eye</p>    <p style="text-align: center;">lip</p>  <p style="text-align: center;">blusher</p>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적인 정글의 이미지 요소를 차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자연 색채에 의한 다양한 선과 면의 배치와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브론즈 화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수성물감, 립스틱, 케익 아이라이너, 꽃모양의 스톤 비즈, 인조속눈썹, 브러쉬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브론즈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새도우를 이용하여 눈썹의 형태를 잡아주고,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한올 한올 원시적인 느낌의 눈썹을 표현해 준다. 초록색, 노란색 컬러의 케익타입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눈화장을 세밀하게 그라데이션 해 준다. ● 수성물감 이용해서 눈화장 부분에 가지모양의 선을 그려 형태를 잡고, 꽃모양의 스톤을 조화롭게 붙여준다. ● 핑크색 립스틱과 볼부분에 볼터치하여 소녀의 순수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림 61> 작품 XVIII. Primitive Jungle Girl

19) 작품 XIX

제목 : Cute Minnie Mouse

주제 : 유희

분류 :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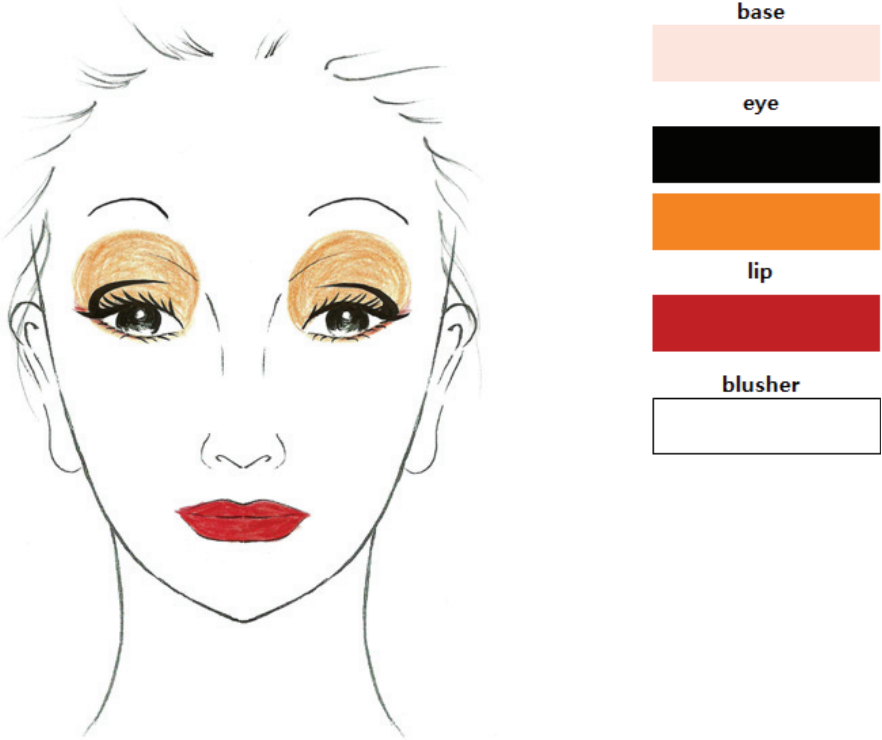
작품 XIX의 이미지는 ‘귀여운 미니 마우스’로 만화적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미니 마우스 형태로, 사탕을 모아놓은 듯한 헤어 장식과 어울리는 깨끗한 피부톤에 사탕의 형태를 유지하여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오렌지색을 눈부분에 동그란 귀여운 형태로 표현하였다(그림 62).

표현방법은 선과 면의 적절한 조화와 절충을 통한 형태로 절충과 혼합성을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눈썹을 비정상적인 위치에 배치하여(표 23), 부조화스러운 만화적 캐릭터를 상상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와 채도 높은 색상 표현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 기존의 미에 대한 일정한 규칙과 기본에 절대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현존하지 않는 서로 다른 의미들이 혼합되어 충돌하는 것으로 상호텍스트적인 경계가 무너져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색채는 자연의 과학 기술적 요소를 통하여 큐트한 컬러와 비비드 톤의 색상과 글로시한 느낌으로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을 주는 표현을 하였다(그림 62).

질감은 글로시하면서 깨끗하게 피부 표현하였으며, 다른 곳의 피부와 피부톤의 차이가 나지 않게 세밀한 블렌딩을 통한 피부 표현을 하였다.

<표 23> 작품 XIX. Cute Minnie Mouse의 작업지시서

	<p>base</p> <p>eye</p> <p>lip</p> <p>blusher</p>
<p>표현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적 캐릭터 이미지 요소를 차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큐트한 색체에 의한 다양한 선과 면의 배치와 결합
<p>표현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 화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수성물감, 립스틱, 케익 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브러쉬 등
<p>작업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 아쿠아컬러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눈부분에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만화캐릭터 모양의 눈썹을 그려준다. ● 커다란 사탕처럼 오렌지색을 이용하여 아이세도우를 표현해 준다. ● 검정색 수성물감 이용해서 눈화장 부분에 반달 모양의 선을 그려 형태를 잡고, 검정색 진한 인조속눈썹을 붙여준다. ● 투명하고 빨간 립스틱을 립라인을 따라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려준다.



<그림 62> 작품 XIX. Cute Minnie Mouse

< 표 24 > 탈 장르화 특징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작품

유형	형태	특성	이미지	표현 방법	색채	소재	작 품
경계 의 해체	계층의 해체	선정 퇴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사의 검은 눈물이라는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이미지와 정신적인 감망을 한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표현하여 해체를 통하여 표현 집시 유목민의 허무한 상상을 통해 자극적, 선정적, 진한 눈화장과 마스카라의 번짐을 통해 착한 여자의 이미지를 파괴하여 해체정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이트 메탈의 창백한 페인톤으로 퇴색한 듯 빛바랜 컬러표현 이중적 이미지, 퇴폐적 눈화장 번짐 표현 이목구비의 해체를 통한 지속적인 외모와 비일상적인 색상 도입 기존의 미의식 부정, 파괴적 이미지 표현 검정색을 이용하여 죽음, 절망, 공포, 공허, 허무주의 표현 	검정, 파랑, 보라, 빨강, 메탈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필기구, 바셀린, 아쿠아세도우 등	
		일탈 혐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라벵고를 추는 키베라는 이목구비의 변형, 색의 과도한 제한으로 혐오스럽고 불쾌감 유발, 부자연스러움 유도, 미적거리기 무시, 충격적 표현 불안한 채질 조르는 파괴적 인위적인 얼굴형태의 표현, 부조화의 이목구비 생략, 과장된 형태 변형통해 이미지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위한 색다른 체험 이목구비 생략, 변형 색채를 통한 혐오, 불쾌감, 부자연스러움 유도, 충격적 시각효과 추구, 그리퍼 조각상처럼 각진 그늘표현 아름다움을 버리고, 지속적인 외모, 반미학적 추의 이미지 추구 과장된 표현을 통한 이질적 소재 활용과 조합의 표현 	검정, 흰색, 빨강, 메탈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글루, 비즈, 필기구, 색도화지, 세도우	
경계 의 해체	계층의 해체	실험적 창조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의 꿈은 맥시멀리즘의 과시적, 열정표현, 이질적 소재와 산만한 장식, 자극적 색채, 얼굴의 과장된 표현, 통속적인 키치 이미지 불새의 열정은 환상과 신화통해 열정표현, 이질적 소재 얼굴 이목구비 무시 통해 표현. 새 이미지 형상화, 이목구비 확대 축소 강조, 다양한 이미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을 통한 사회적 지위, 꿈, 환상, 신화, 내면세계의 표출 뉴히피적 메이크업으로 이질적 소재의 활용 신체의 왜곡과 과시적 심리표현, 맥시멀리즘 이미지 표현 킬러플한 색상, 일정한 주제없는 추상적인 선을 이용한 표현 메이크업의 부조화, 기본구성요소의 제거, 오브제의 사용 	검정, 파랑, 노랑, 분홍, 메탈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인조화스, 비즈, 세도우, 인조눈썹, 깃털, 아쿠아세도우	
		성의 무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한 그와 그녀의 이상주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완벽한 정신적 갈망을 통한 이상주의를 표현 성에 따른 주종관계 해체를 성의 무경계성 요소 통한 해체적용을 탈 중심적으로 표현. 이분법적 구분 없을 조율한 다양한 성의 수용을 통한 충격적 시각효과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함과 우아함이 함께 느껴지는 가벼운 피부 표현 남성적인 눈썹과 수염을 통한 성의 은폐를 통한 표현 남성의 힘차고 거친 느낌의 눈썹과 짙은 수염의 표현 여성적 아이홀과 남성적 거친 세도우 표현 이분법적 구분을 조율한 성의 수용을 통한 충격적 시각효과 	검정, 보라, 분홍, 빨강, 주황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안료, 마셀린, 아쿠아세도우, 유성용물감	
대중 화의 절충 과 혼합 성	민속적 요소	과거와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돈나와의 대화는 과거 익숙한 요소 인용, 차용과 과거 현재가 함께 공유하는 메이크업 표현. 마돈나와 의사소통 하듯이 복합적 레트로 경향통해 현대적인 코드와 혼합 재구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모방, 인용통한 장르의 파괴 탈 장르화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유명 스타의 포인트 스타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 가까운 과거와의 결합을 통한 80년대 마돈나 페르디 표현 젊은 아이러인과 인조 속눈썹 강조한 강한 눈화장 섹시한 아이러인, 점, 감렬한 빨강색 립스틱과 금발헤어 표현 과거요소에 대한 향수적 감성과 차용을 통한 표현 	검정, 보라, 분홍, 빨강, 주황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세도우, 립스틱, 브러시컬러	
		현재와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유목민의 그물망은 인간관계가 그물처럼 얽여있어 미래의 이미지를 절제 고급스럽게 표현 겨울속에 크리스탈의 꿈은 필로우더, 필기구, 크리스탈 스톤 등 이질적 소재 이용, 기존의 미적질서 파괴, 표현 한계점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메탈, 골드, 실버 등 컬러사용 현대적인 이미지 메탈의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하여 표현 과학적 미래 이미지 혼함을 통한 디지털 프린팅 표현 기본적 형식의 원리 무시하고 무한대의 표현세계 표현 의도적인 미완성의 무계획적이며 우연적인 메이크업 	검정, 검정, 메탈, 검정, 분홍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아쿠아메탈컬러, 라텍스, 글루, 비즈스톤, 필기구	
대중 화의 절충 과 혼합 성	민속적 요소	비서구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왕의 순수는 투명하고 살색 살짝비치는 베이스투명 하고 맑은순수 눈표현. 진동적 오리엔탈 이미지표현 개이샤의 영혼은 일본 게이샤 이미지, 환상적 이미지, 갈꿈, 절제된 형태 통해 동양의 사상 표현 진통다문화 소녀는 여러 다문화 이미지 복합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양, 제 3국의 전통적 이미지 사용하여 오리엔탈 이미지 표현 하얀색 피부표현, 검정과 붉은 컬러의 배합 통한 질제된 표현 어색의 미를 강조, 동양 전통적인 사상과 다양한 차용 혼합 다문화화된 형태 표현, 소재, 질감, 형태, 색채 면에서 비교 전통적 규범을 부정하여 미완성 메이크업 추구 	검정, 흰색, 빨강, 주황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크라운, 화운데이션, 메트화이트과 우더, 세도우	
		지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스키모의 외출은 제 3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이용 강조, 중앙아시아 몽골인 이미지 차용 클레오파트라와 환생이라는 현대에 재현된 탈 중심적인 성격의 복합 문화주의 표현, 다원적 체제 인도와 중동의 팜아트라는 화려한 눈화장 통한 메이크업의 이미지 사용, 3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양 이미지 부각시킬 수 있는 갈색, 브론즈로 에스닉 표현 기존의 민속적인 에스닉 컬러의 혼함을 통한 이미지 표현 탈 중심적 성격의 복합문화주의 잘 표현 여러 다양한 색상의 조합과 혼합, 팜아트적 요소의 표현 인위적 과장된 강한이미지 부각 통한 자유와 독립성 표현 	검정, 파랑, 빨강, 노랑, 분홍, 파랑, 초록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크라운, 화운데이션, 파우더, 세도우, 아쿠아 세도우, 눈효과 소품 등	
대중 화의 절충 과 혼합 성	과학 기술적 요소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으로서의 귀환은 환경보존, 사라져가는 인간성 회복심화, 자연회귀 표현. 강한 캐릭터생성, 이질적 소재 결합, 내추럴 색상 이용 릴림의 원시소녀는 릴림 원시적 환경의 소녀의 인간성 회복심화, 자연회귀 이미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회귀의 이미지 표현 위한 기본적 컬러 갈색, 브론즈 표현 독특한 질감과 색채, 형태, 형식을 통한 부적합한 요소의 결합 크기의 파괴와 변형으로 부적합한 요소들의 결합표현 아이러인 및 눈썹 부분화장 표현 	검정, 파랑, 분홍, 파랑, 초록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인조 속눈썹, 비즈, 아쿠아 세도우	
		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여운 미니마우스는 만화적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사탕을 모아놓은 듯한 헤어 장식과 어울리는 깨끗한 피부톤에 사탕형태 유지하여 오렌지색 컬러를 눈부분에 동그란 귀여운 형태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큐티한 컬러, 팜아트적 표현, 다양한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 표현 과학 기술적 요소와 재미의 혼함을 통한 퍼블로지의 표현 만화적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다양한 색상표현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눈썹의 위치를 변경하여 배치 	검정, 주황, 빨강 색상	수성컬러, 브러쉬, 인조화스, 인조 눈썹, 아쿠아 세도우	

탈 장르화 특성

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는 단지 시간적인 의미와 기술적인 의미의 변화뿐만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만큼이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예술과 모든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전 세계의 다문화 시대를 통해 하나의 문화로 통합해 버려, 문화와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이브리드화 되었다. 디지털과 온라인과의 결합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해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추하여 발전하는 패션과 메이크업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을 중심으로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패션과 메이크업 방향을 예측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의 예술 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의 다양한 양식의 혼재로 인해 상품과 사용자간에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개념이 도입되어 개개인의 취향이 존중된 제품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인간과 제품의 상호 작용을 이루는 공유 영역의 개념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21세기 메이크업 디자인의 경향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기존 개념과 경계의 초월 및 장르간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다원적이고 탈 장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 및 예술의 여러가지 면에서 상대적 대립 개념을 절충한 크로스오버적 경향은 메이크업 디자인에 있어 더욱 복잡해진 하이브리드적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통해 시간, 계층, 지역적 경계의 해체 및 절충을 통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 실현을 위해 과거의 역사적 모티브를 다양하게 혼합한 혼성모방 및 다양한 이미지 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본래의 의도나 개념은 상실한 채 주변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탈 장르화 접근을 보인다. 이분법적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분을 뛰어넘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실현하려는 동양의 미의식인 꾸미지 않는다는 상대 개념이 공존함으로써 이탈되는 탈 중심적 모호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예술적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개과정과 하이브리드 예술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탈 장르 특성을 응용하여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스타일별 경향을 분석하여, 탈 장르화를 응용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21세기에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의 요소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탈 장르화 특성을 적용하여 작품제작을 통한 관련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하이브리드는 사회 전반에서 보여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몇몇 가지의 현상의 조합이 아닌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인 것들과의 잡종과 같은 현상으로, 기존의 분류법으로 구분하거나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곧 하이브리드의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다원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경향으로 메이크업에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과 관련 제품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양식으로 혼재하고 있는 메이크업의 한 흐름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디자인과 관련 제품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작품은 총 19점이며, 경계의 해체성 10점과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9점으로 탈 장르화를 조형미 분석에 따라 화려하고 섬세하면서도 과감하게 디자인 하여 얼굴을 하나의 캔버스 의상과 같은 이미지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헤어와 조화롭게 하여 인체의 조형 예술작품으로 재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품제작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에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탈 장르화, 다원화, 융합화, 유희화의 특성이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화는 경계의 해체성과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탈 장르화를 응용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정서, 생활습관 등을 반영한 다문화 시대의 문화적 열린 사고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공감하는 디자인이어야 함을 인지하였다.

넷째, 작품 제작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응용한 메이크업은 조형적 예술의 차원에서 다원성 요소를 가미하여 또 다른 새로운 창작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다섯째, 다양한 다원성과 장르를 넘나드는 탈 장르화 특성을 통한 현대적 메이크업 디자인을 통해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의 소통으로의 미미한 시도를 하여 미적 특성으로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21세기 탈 장르화를 통한 열린 개념의 미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 디자인 개발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무궁 무진 함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추하여 발전하는 문화적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의 예술 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탈 장르화 경향을 중심으로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한 흐름과 방향을 예측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다원성과 장르를 넘나드는 탈 장르화 특성을 통해 그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의 소통으로의 미미한 시도를 하여 미적 특성으로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3.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탈장르 특성을 통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특성의 탈 장르는 디자인 및 조형적 특성과 표현양식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조형요소와 표현방법 및 디자인의 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의 하이브리드 환경은 패션과 메이크업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패션 및 뷰티산업 분야에 다양한 변화 유형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유형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경화(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 APC.
- 강대영(1999).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 권택영(1990).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권택영, 윤도근(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 김상환(1996).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성곤(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성곤(1989). 탈 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육동(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 김육동(2004).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 김경순 외(2000). Make-up II. 서울: 청구문화사.
- 김연순 외(2008). 하이브리드 컬러.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인혜(2004). 기초디자인: 점 / 선 / 면. 서울: 미진사.
- 김용숙(2004). 화장치료심리학. 서울: 신정, p. 7.
- 민경우(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p. 174.
- 문석우(2003). 장르진화란 무엇인가?,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 박 진(2007). 장르와 탈장르의 네트워크들: 탈근대의 서사와 담론. 서울: 청동
거울 문화점검.
- 박기웅(2000). 조형예술학 연구. 서울: 조형사.
- 박성봉(2006). 대중예술과 미학. 서울: 일빛출판사.

- 오창섭(2002). 디자인과 키치. 서울: 시지락.
- 이병창(2001). 이야기로 풀어보는 20세기 사상가. 서울: 천지.
- 이순홍 외 8인(2002). 세계 복식과 패션 정보. 서울: 교문사.
- 이재성(1997).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서울: 민족사.
- 이인식 외(2005).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경계를 넘어라. 서울: 고즈윈.
- 이화순 외 2명(2003).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 윤난지(2002). 현대미술의 풍경, 서울: 예경.
- 양희석(1988). 예술철학(上), 서울: 자유문고.
- 양효실, 미학대계간행회 편자(2009). 현대의 예술과 미학: 제3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영철(1992). COSMA 9312. 서울: 사회사상과 일러스트아트.
- 조오순 외 4인(2005). 패션과 그리고 뷰티 이야기. 서울: 경춘사.
- 조규화(199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2).
- 조 열, 김지현(2003). 형태지각과 구성 원리. 서울: 창지사.
- 장민한, 미학대계간행회 편자(2009). 현대의 예술과 미학: 제 3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홍숙(2000).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 최정호(2001). 새로운 예술론 편: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 서울: 나남출판.
- 홍성욱(2008).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항명숙(1999). 마꾸아쥬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2. 학위논문

- 김미현(2005). “융합화 문화 변화에 따른 패션 패러다임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유리(2004). “Y세대 미국 청소년의 문화와 패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정현(2009). “문화·예술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신(2008). “빌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시각적 표현형식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자연(2009). “현대 미술의 다층적 평면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 사진, 회화, 섬유예술의 매체적 혼용”,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윤주(2004).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색조화장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질감표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덕(2002).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미희(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세계 4대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학회지

- 고윤정, 김민자(2010).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문화권력과 패션에 대한 연구”, 복식, 제 60권, 제 2호. pp. 81-98.
- 권기영(2004). “패션잡지 광고에서 보여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 제 28권, 제 1호. pp. 1672-1682.
- 김경인, 유영선(2009).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헤어디자인의 표현

- 특성 분석”, 복식문화연구, 제 17권, 제 6호. pp. 1021-1033.
- 김영옥(1998), “현대복식에 내제된 해체 현상”, 장안전문대학교 산업기술연구, 제 7권, 제 1호. pp. 136-158.
- 김자민, 하지수(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르간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 복식, 제 55권, 제 8호. pp. 1-14.
- 김주현 외 2인(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4호. pp. 578-596.
- 김지연, 이경희(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의류학회지, 제 6권, 제 1호. pp. 9-16.
- 김지희, 유태순(2007).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 문화 감성성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7권, 제 8호. pp. 1-13.
- 김용선, 이정민(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팝아트 경향에 관한 연구”, 미용학회지, 제 9권, 제 1호. pp. 175-202.
- 이일형(1995). “현대 건축의 혼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 11권, 제 1호, 통권 75호. pp. 35-41.
- 이경아, 전해정(2004).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1)”, 복식, 제 54권, 1호. pp. 59-72.
- 박수남(2009).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 대한화장품학회, 2009 국제학회 프 로시딩. p. 81.
- 방기정, 김경희(2010).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18권, 제 1호. pp. 64-79.
- 변영희, 채금석(2009). “과리컬렉션에 나타난 반꾸밈적 뷰티디자인의 미적특 성 연구”, 패션디자인학회지, 제 9권, 2호. pp. 13-29.
- 서명희(2003). “1990년대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룩 메이크업 영 향”, 인체예술학회지, 제 4권, 제 2호. pp. 137-144.

- 양희영, 양숙희(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Andy Warhol을 중심으로”, 의류학회지, 제 24권, 제 4호. pp. 538-548.
- 양학미, 김민자(2000).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복식, 제 50권, 제 1호. pp. 69-84.
- 엄혜정(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복식, 제 37권, 제 1호. pp. 117-138.
- 이승민(2003). “페미니즘 시각에서 바라본 메이크업 연구”, 인체예술학회지, 제 4권, 제 1호. pp. 273-286.
- 이윤정(2010).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특성 연구: 보그(Vogue)지를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제 60권, 제 1호. pp. 91-100.
-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집, Vol. 18, No. 1. pp. 107-121.
- 이윤진, 박명희(2003). “현대 의상에 나타난 유머성”, 복식, 제 53권, 제 5호. pp. 33-48.
- 이봉덕, 양숙희(200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 (1보):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의류학회지, 제 26권, 제 11호. pp. 1649-1659.
- 임영자, 김선영(2000).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0권, 제 4호. pp. 37-51.
- 조정미(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제 11권 제 6호. pp. 925-940.
- 장미숙(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 20호. pp. 412-432.
- 진경옥(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패션의 코디네이션”, 복식, 제 55권, 제 6호. pp. 51-66.

- 주명희(1992). “크리스티앙 라크르와의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제 16권, 제 1호. pp. 123-136.
- 채금석(2004).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된 꾸밈미학”, 복식, 제 54권, 제 3호. pp. 113-127.
- 최경희(2007). “19세기 후반 이후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에 관한 맥락적 연구”, 복식, 제 57권, 제 5호. pp. 166-182.
- 최혜정(2001).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1권, 제 2호. pp. 149-167.
-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제 22권. pp. 71-83.
- 허정선(2010).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패션디자인학회지, 제 10권, 제 1호. pp. 107-119.

4. 간행물 및 참고사이트

Bazaar, October, 2005.

신인류의 사는 법 (2010). 이데일리 EFN, 강동완 (2008, 5, 28), (www.nate.com)

향장(2002). 서울: 아모레. 2002. 2.

스타일닷컴, www.style.com

보그, www.vogue.co.kr

패션비즈, www.fashionbiz.co.kr

네이버, www.naver.com

네이트, www.nate.com

II. 국외문헌

- Alison Gill(1998). "Deconstrucion Fashion: The Making of Unfinished, Decomposing and Re-assembled Clothes", *Fashion Theory*, Volume 2, Issue 1, United Kingdom: Berg Publishers.
- Allison Samuels, N'' Gai Croal, David Gates(2000. 10. 9). Battle for the Soul of Hip-Hop, Newsweek.
- Amy de la Haye(1996). *The Cutting Edge*, London: Victoia & Albert Pulition.
- Kevyn Aucoin(2003), *A Beautiful Life*, New York: Atriabooks.
- Bruno Latour(1988). "Mixing Humans and Nonhumans Together: The Sociology of a Door Closer", *Social Problems*, Volume 35 (1988). pp. 298-310, Bruno Latour(2002). "Morality and Technology: The End of the Means", *Theory, Culture & Society*, Volume 19.
- Bruce Clarke and Linda Henderson(2002). *From Energy to Information: Represent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 and Literature*,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Cerda Bexbaum(1996). *Icons of Fashion*, NewYork: Prestel.
- Charles W. L Hill(2008). *Global Business Today: 6/E*,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Daniel H. Pink(2005).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New York: Riverhead Books.
- Dorothy Michelson Livingston(1978). "Michelson, Artist in physics", *Science Technology & Humanities*, Volume 1.

- Edward Burnett, Tylor(1958). *Primitive Culture*, New York: Harper, p. 1.
(2010),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London: Cambridge Press.
- Edward Fuchs(1912). *Illustrier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Das Burgerliche Zeitalter* 이기웅, 박종만 역 (1991). 풍속의 역사 IV. 서울: 까치.
- Emily Apter(1991). *Feminizing the Fetish: Psychoanalysis and Narrative obsession in Turn-of-the Century Franc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Edward O. Wilson(1999).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Alfred A. Knopf.
- Jim McGuigan(2006). *Modernity and Postmodern Culture: Issues in cultural and Media Studies*, London: McGrawhill.
- Joanne Richmond(2008). *Color Me Beautiful: 4 Seasons of Color, Makeup, and Style*, Canada: National Book Network.
- John Storey(2006).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 Reader*, Univ of Georgia Press.
- Jang, N., Hawley, J, & Dickerson, K.(2002).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factors of apparel product success and failure.
- Joyco McDougall(1985), *Theatres of the Mind: Illusion and Truth on the Psychoanalytic Stage*, New York: Basic Books.
- Jemma Kidd(2009). *Jemma Kidd Make-up Masterclass*, New York: ST. Martin's Press.
- Keen, Peter G. W., Sanford, Lindsa., Williams, Ronald O.(2005). *Let Go*

- And Grow - How to Profit And Thrive in Commodity Hell*, New York: Pearson P T R.
- Lynn Schnurnberger(1991). *40,000 Years of Fashion: Let There Be Clothes*, New York: Workman Publishing.
- Lee, C. Susan(2005). *Fashioning the Future*, London: Thames & Hudson.
- Morris Goran(1940). The Literati Revolt Against Science. *Philosophy of Saence* 7.
- Marjorie Garber(1992). *Vested interest-Crossing Dressing & Cultural Anxiety*, New York : Routiege.
- Mary Ellen Roach-higgins, Joanne B. Eicher, Kim K.P. Johnson (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
- Powell, W.(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t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 Behavior*, Volume 12.
- Peter Dicken(1999). *Global Shift;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3rd Edition*, London: Paul Champman Publishing Ltd.
- Peter Weingart & P. Pansegrau(1999). "Reputation in Science and Prominence in the Media: The Goldhagen Debat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ume 8.
- Peter Galison(1997). *Image and Logic: A Material Culture of Microphys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ter Galison(1999). Trading Zone: Coordinating Action and Belief, in Mario Biagiolied., *Science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 Penelope, H.(1996). *Hybrids of Modernity: Anthropology, the Nation State the Universal Exhition*, New York: Routledge Inc.
- Renato Poggiolli(1962). *Teoria dell'ate d'avanguardia*. Bologna: II Mulino.

- Rolf Jensen(2001). *The Dream Society*. New York: McGraw-Hill.
- Raymond Williams(1995). *The Sociology of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chter, Gerhard.(2006). *Gerhard Richer: Portraits*, Distributed Art Pub Inc.
- Samuel P. Huntington(2001).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 Stuart W. Leslie(1999). "Reestablishing a Conversation in STS: Who's Talking, Who's Listening? Who Cares?",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Volume 19.
- Scott Barnes(2010). *About Face: Amazing transformations Using The Secrets of the Top Celebrity Makeup Artist*, Beverly: Fair Winds Press.
- Schickendanz, Judith A.(2001). "Chapter 1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and Methods of Studying Children", *Understan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4th edition, Allyn and Bacon.
- Sandra Ruth Lipsitz Bem (born June 22, 1944 Pittsburgh, Pennsylvania) is an American psychologist known for her works in androgyny and gender studies.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Cornell University, 네이버, http://en.wikipedia.org/wiki/Sandra_Bem, 검색일 2010. 8. 19.
- Victor F. Weisskopf(1979). "Art and Science", *American Scholar*, Volume 48.
- Victoria Jackson(2000). *Make up Your Life*, New York: QVC Publishing, Inc.
- Quant Mary(1996), *Ultimate Makeup & Beauty*, London: Dorling Kindersley.
- Quinn Biroshi(2002). *Techno Fashion*, New York: Berg.
- Alvin Toffler, 이규행 역(1997). *미래 쇼크*.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Michael Earl, 이국철 외 역(1995). *정보기술시대의 경영전략*. 서울: 푸른산.

- Tsuneo Avabe 편저, 김인호 역(1999). 문화인류학의 명저, 서울: 자작나무.
- W. 하이젠 베르그, 최종덕 역(1990), 물리학과 철학의 만남: Physics and Philosophy.
- John A, Walker(1987), *Art in the Age of Mass Media*, 정진국 역(1997). 대중 매체 시대의 예술, 서울: 열화당.
- Wassily Kandinsky, 권영필 역(2004).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열화당.
- Howard Eves(1995). 수학의 기초와 기본개념. 서울: 경문사.
- Herbert J. Gans, 이은호 역(1996).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서울: 현대미학사.
- 프랑수아 지콥, 이정우 역(1994). 생명의 논리 유전의 역사. 서울: 민음사.
- M. Calinescu, 이영욱 외 3역(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시각과 언어.
- Devon Lee(2008). 콜래보 경제학: 새로운 부와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콜래보레이션 성공전략. 서울: 흐름출판사.
- Dominique Paquet, 지현 역(1998). 화장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 W. Kandinsky, 차봉희 역(2004). 점 · 선 · 면, 서울: 열화당.
- Johann Wolfgang Von Goethe, 장희창 역(2003). 색채론. 서울: 민음사.
- RoyBoyne, 김보현, 신명아 공역(1992).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서울: 한신문화사.
- Stephen Toulmin(1953). *The philosophy of Science*, London: Hutchinson.

ABSTRACT

A Study on Make-up Design with Application of Genre Deconstruction in Hybrid

Barng, Kee-Jung
Departmen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Hybrid implies that elements in more than two are combined, and is what is merged and used complexly the technologies and materials in several field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progress in technology. In the formative and artistic aspect, the hybrid can be said to be phenomenon that two of mutually different genres are combined. The function and form in each genre, which were combined at this time, are remained wholly or partially, thereby revealing as well without hiding a fact of having been combined. In the digital communication era, the same time level was integrated into one culture, with destroying the temporal-spatial boundary. Thus, hybrid phenomenon came to appear that is characteristic of digital era in all the sections of culture and our daily life, not the convergence-complexation only in one specific section. As for this hybrid phenomenon, many parts are changing through a meeting in cyber space through combination between digital and online, along with a change in

paradigm of industrial society caused by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The cultural contents are developed by ruminating society and culture in the period. There is necessity of grasping a change and characteristics in fashion and make-up. Its importance is being emphasized. Such make-up is being adopted several artistic concepts, thereby showing trend of being mixed several complex aspects. It is thought to be very important to arrange the foundation available for predicting and pursuing a flow and direction of future hybrid make-up based on this, by analyzing a flow centering on hybrid trend, which was shown previously.

As fo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irst, the aim is to suggest a model for researching into make-up by grasp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 art through considering an art theory of hybrid, which was shown in make-up. Second, the aim is to design make-up by analyzing trend by make-up style after applying the genre deconstruction in hybrid.

This study was developed with the following contents. Chapter 1 discussed about research objective, research scope and method. In Chapter 2,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hybrid concept and social-cultural characteristics, it classified it into 4 types in genre deconstruction, triangulation, convergence, and enjoyment(遊戯化). Also, it considered a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ake-up by period. In Chapter 3, it classified barrier demolition into 2 kinds such as the class deconstruction and the temporal-spatial disorder centering on genre deconstruction of hybrid. The class deconstruction was segmented into 4 kinds such as the sensation & degeneration according to sub-culture and a

change in role of sex, the deviation & hatred, the experimental creationism, and non-boundary in sex. Deconstructionism was classified into temporal · spatial disorder through characteristic of temporal · spatial discontinuity. Compromise and mixture in popularization were divided into non-westernization and localization element through the mixed characteristic of plurality and folk element in post-modernism. Owing to the development in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progress in technology centering on development in mass media and deconstructionism, it analyzed a make-up case by type through designer's works after dividing it into natural and enjoyment-based element. In Chapter 4, it manufactured totally 19 pieces of works by designing make-up as a hybrid concept, which applied the genre deconstruction. For the formative analysis of a work, it described on the production intention, design planning, color significance, and theme symbolism, and interpreted works on production and process.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could be examined through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the new understanding about make-up design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genre deconstruction in hybrid of make-up.

As for a research method, it analyzed characteristics in genre deconstruction, which was indicated in make-up selected in typical fashion-specialized magazine and internet site, with 2 trends through dividing it into the barrier demolition and the compromise & mixture of popularization, and analyzed genre deconstruction by segmenting it again into 4 types such as class deconstruction, temporal · spatial disorder, folk element, and scientific technological element.

The research scope was limited to make-up design by applying genre

d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in hybrid. For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hybrid concept and characteristics, the materials were collected and arranged in separate volumes, which were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and in materials of prior researches, which were presented in academic-degree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at home and abroad.

For empirical research, it produced a work by systematically arranging make-up design, which shows open and compromising artistry with the application of genre deconstruction in hybrid, which is one artistic trend in the 21st century. The manufacture of works included totally 19 pieces. First, among 10 pieces for barrier demolition, the works in I~VII comprised 7 works for class deconstruction. The works in VII~X comprised temporal · spatial disorder. Second, among 9 works for compromise and mixture of popularization, the works in XI~XVI included 6 works for folk element. The works in XVII~XIX were designed with 3 works for scientific technological element.

This work designed genre deconstruction colorfully, delicately, and boldly according to analyzing formative beauty, thereby having re-implemented a face as the formative art work in a human body by making it harmonize with hair so that coordination can be possible with the image like one canvas clothing. A model was selected who has typically oriental image with the thin facial and soft line without double eyelids by fully reflecting the local element in the east · the west and non-westernization element. Color was made the higher weight in black color, which is much used as the main color in deconstruction, and was used colors such as red and white as the point. Also, the weight of violet color was made higher to be

used, which is the mixture form of red and blue. And, as for a form of compromise and mixture in popularization, diverse and brilliant colors were used that are used much in local and folk elements. Combination with nature was used green color as the point in the deepening of a return to nature and of recovery in human nature centering on brown. Texture was used centering on hard and heavy feeling by increasing the weight of dry texture without luster, which is a form of expressing deconstruction. However, due to a rise in portability and preference for lightness caused by development in digital technology, it used centering on hardness based on texture that has greasy, shining, transparent and light feeling and has no luster. Enjoyment for visual and tactile pleasure was expressed lightness through using clear and diverse colors, and was used transparent feeling as the point.

Through this study, it was recognized that the design needs to be sympathized by globalization centering on the cultural open idea in multi-cultural era that reflected modern people's emotion and living habits. Make-up with application of diverse matters and materials in producing a work suggested possibility as saying of being able to be re-evaluated in a sense of making novelty through another new creation by adding plural element in dimension of formative art. The modern make-up design through genre-d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beyond diverse plurality and genre could be known to be highlighted as aesthetic characteristic by a slight attempt as communication of open space, which connects culture and genre, which had failed to be recognized and was neglected. Through this,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forming genre deconstruction out of artistic

characteristics in hybrid, which is shown remarkably in digital era, thereby understanding a cultural flow of the period socially and culturally and researching into a form of future-oriented desig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ould be known that there is infinite possibility in developing make-up design in line with modern sensation through aesthetic element and symbolic significance through genre deconstru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s significance can be said to be in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offering new sight to the design &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the expression mode in future make-up, to providing basic data, and to strengthening competitive edge of culture and art.